

제35회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14회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

공동정기학술대회

주제 : 4차산업과 뉴미디어에 관한 목회적 성찰

-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소 : 성문교회 비전홀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52 ☎031-982-0391)

목 차

·일정표-----	5
·알리는 말씀-----	6
·예배 순서-----	7
·설교문: 영육간에 3대가 함께하는 신앙의 가정과 교회가 되자	
설교/ 박요일 목사-----	8
·주제발표1: 4차산업 시대, 목회적 대응 방향: 설교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 박현신 박사-----	19
·주제발표2: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	
발표/ 이승진 박사-----	54
·주제발표2 [부록]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첨부/ 이승진 박사-----	77
·자유발표1: 4차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방안 연구	
발표/ 조성호 박사-----	106
논평1/ 조성현 박사-----	123
논평2/ 황빈 박사-----	126
논평3/ 이대환 박사-----	130
·자유발표2: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소고	
발표/ 김상구 박사-----	133
논평1/ 이상흥 박사-----	153
논평2/ 임도균 박사-----	157
논평3/ 김대진 박사-----	160
·자유발표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발표/ 김준식 박사-----	163
논평1/ 이돈규 박사-----	186
논평2/ 윤훈중 박사-----	190
논평3/ 이재욱 박사-----	193
·자유발표4: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 방안 연구	
발표/ 남상문 박사-----	198
논평1/ 함용철 박사-----	221
논평2/ 김진목 박사-----	225
논평3/ 강일구 박사-----	229

일 정 표

시간/ 내용/ 제목/ 담당	장소
10:00 - 10:45 [예배]	
■ 개회예배 인 도: 김영태 목사 (원주신촌교회) 기 도: 오현철 목사 (성결대) 설 교: 박요일 목사 (강성교회 원로) 축 도: 전재호 목사 (성문교회) 광 고: 박태현 목사 (총신대) [예배 후 전체 기념 촬영]	비전홀 (소예배실)
10:45 - 11:10 [주제발표 I]	
■ 4차산업 시대, 목회적 대응 방향: 설교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발 표: 박현신 박사 (총신대) 사 회: 양병모 박사 (침신대)	비전홀 (소예배실)
11:10 - 11:35 [주제발표 II]	
■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 발 표: 이승진 박사 (합신대) 사 회: 양병모 박사 (침신대)	비전홀 (소예배실)
11:35 - 11:50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사회: 양병모 박사)	
11:50 - 12:00 [분반이동, 휴식]	
12:00 - 12:50 [분반 자유발표/ 발표-20분, 논평-15분, 질의응답-15분 예정]	
제목/ 담당	부속장소
■ 자유1: 4차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방안 연구 발 표: 조성호 박사 (서울신대) 좌 장: 문병하 박사 (KC대) 논평1: 조성현 박사 (개신대총장) 논평2: 황빈 박사 (강성교회) 논평3: 이대환 박사 (반석교회)	비전홀
■ 자유2: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소고 발 표: 김상구 박사 (백석대) 좌 장: 김순환 박사 (서울신대) 논평1: 이상홍 박사 (광신대) 논평2: 임도균 박사 (침신대) 논평3: 김대진 박사 (고려신대원)	영아부실 (2층)
■ 자유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발 표: 김준식 박사 (하늘빛교회) 좌 장: 박인걸 박사 (수주중앙교회) 논평1: 이돈규 박사 (새생명교회) 논평2: 윤훈중 박사 (생명수생교회) 논평3: 이재욱 박사 (사춧가교회)	중등부실 (2층)
■ 자유4: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 방안 연구 발 표: 남상문 박사 (추계예술대) 좌 장: 김광연 박사 (성은교회) 논평1: 함용철 박사 (화곡교회) 논평2: 김진목 박사 (큰사랑교회) 논평3: 강일구 박사 (선한목자교회)	유치부실 (2층)
12:50 - 14:00 [중식 및 교제]	
식당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35회 및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 제14회 공동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 오늘 공동정기학술대회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주제발표와 자유논문 발표자 및 좌장과 논평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 학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회원 여러분, 또한 여러 목회자들과 대학원 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 이번 공동정기학술대회를 위해 장소와 중식을 제공해 주시고, 원활한 학회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문교회 전재호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1부 예배 마친 후 전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발표가 이어집니다.
6. 주제발표 후 4개 분반으로 이동해 자유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발표1(조성호 박사)은 메인장소인 비전홀, 발표2(김상구 박사)는 2층 영아부실, 발표3(김준식 박사)은 2층 중등부실, 발표4(남상문 박사)는 2층 유치부실에서 자유발표가 시행됩니다. 참석자들께서는 듣고 싶은 주제를 찾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자유발표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4층 식당에서 중식이 제공됩니다.
8.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의 논문집, 「복음과 실천신학」 제46권과 47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본 학술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과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복음과 실천신학」 제48권에 투고하실 분들은 5월 20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를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공식 이메일(keptmail@daum.net)로 보내주시고,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개회 예배

인도: 김영태 목사 (원주신촌교회)

예배선언: 인도자

찬 송: 29장[통29] “성도여 다 함께”

기 도: 오현철 목사 (성결대)

성경봉독: 창 48:8-22/ 인도자

설 교: “영육간에 3대가 함께하는 신앙의 가정과 교회가 되자”/
박요일 목사 (강성교회 원로)

광 고: 박태현 목사 (총신대)

찬 송: 505장[통268] “온 세상 위하여”

축 도: 전재호 목사 (성문교회 담임)

▷ 찬송가 29장[통29] “성도여 다 함께”

1.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 설교본문/ 창세기 48장 8절-22절 (뒷장 8p 설교문 앞부분에 기재)

▷ 찬송가 505장[통268] “온 세상 위하여”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설교문]

“영육간에 3대가 함께하는
신앙의 가정과 교회가 되자”

(창 48:8-22)



박요일 (강성교회 원로)

[본문] 창세기 48장 8절-22절

-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엮었더라
-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설교]

창세기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에필로그(epilogue)와 같은 내용은 야곱의 세 차례에 걸친 유언이다.

-첫째, 요셉에 대한 유언이다(창 47:26-31).

-둘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다(창 48:1-22).

-셋째,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 대한 최종 유언이다(창 49:1-28).

야곱의 유언의 핵심은 언약의 백성(이스라엘)과 언약의 땅(가나안)이다. 그의 후손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선제적 행동으로 자신이 죽으면 선영이 있는 헤브론에 장사지낼 것을 유언하였다. 이로써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당연성과 가나안 점령을 사명으로 알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야곱의 장례 행렬이 훗날 출애굽 행렬의 예표가 되었음을 역사 후에 깨닫게 된다.

이 시간에 볼 내용은 야곱의 두 번째 유언인 입양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유언(예언)이다.

이 시간 상고할 말씀(8-22절)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도는 믿음의 삼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기 가문과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소원하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손자로 애굽 총리의 아들이요, 애굽에서 귀족 중 귀족인 제사장의 외손자이다.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할아버지 아들로 입양시켜 화려한 애굽의 모든 특권과 단절시키고, 선민의 사명을 요구할 때 거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출애굽하였다. 이 시대 가정에서 육적 자손으로 교회에서 영적 자손으로 3대가 신앙을 계승받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축복을 계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② 자신의 위치에서 위로 삼대, 아래로 삼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가정이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유언(축복)하려 한다. 야곱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동시에 자신과 아들, 손자 삼대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대보다 더 크게 축복하셨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위로 삼대와 아래로 삼대가 그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속사의 중심일꾼으로써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가문이 보이는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자.

③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죽음을 앞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 없는(내세의 보장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영육이 동시에 약해진다. 그러나 성도(야곱)는 체력은 약해지고 눈은 어두워져도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지금 자신은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함께 계실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의 품에 안기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상과 같은 깊은 뜻이 있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상고해보자.

1.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 엮으려 절하다(창 48:8-14).

이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아들로 입양할 때 순종하였다. 출애굽 할 때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로 에브라임 지파가 40,5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었다. 삼대가 함께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창 48:8)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던 것 같이(창 27:1), 임종을 앞둔 야곱도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창 48:9)

야곱과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도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야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다. 이 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선포한 말씀이다. 그 늙은 노인은 몸은 약했지만 말씀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내가 축복하리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선언된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창 48:10)

모든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볼 때 본능적으로 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들을 끌어안으니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특별히 야곱은 지구촌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된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할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창 48:11)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창 48:12)

요셉은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 무릎사이(품안)에 있는 두 아들을 잠깐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큰 절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두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큰 절을 했을 것이다. 감사와 존경을 다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절을 하고, 다시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하려는 자세로 돌아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창 48:13)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이다. 요셉은 장남의 권리와 이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취하여 장남은 부친의 오른손 편에, 차남은 왼손 편으로 인도하였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아들들을 동시에 축복하실 때 오른손의 축복이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리는 구속사의 변함없는 원리로 요셉의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하는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축복은 오늘날 축도와 같다. 요셉은 이것이 부모의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효한 선언으로 보았다. 또 이것을 아들들에게도 주지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합당한 축복을 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합당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창 48:14)

성경에서 축복받는 것이 장남 우선주의인 것은 사실이나 절대주의는 아니다. 보편적인 법칙은 출생 순서대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은 무상의 은혜이어서, 그 누구라도 기득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절대화(반드시) 할 수 없다.

요셉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므낫세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하나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통치영역에 속한 것이다.

8-14절 말씀의 교훈

야곱의 임종을 놓고 3대가 함께 하는 모습을 스냅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하늘 나라 가는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자손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돈이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영적축복을 자손들이 더 크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자식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가?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 축복을 받아 성취하는 것이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 세상 것도 신령한 것도 잃지만,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세상 것도 함께 누리게 된다.

2. 임종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아들(요셉)과 손자(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유언)하였다(창 48:15-19)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3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나와 우리 조상에게 축복하신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신앙이 5대째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1)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먼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한다(15-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창 48:15)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

한다.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있다.

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다.

②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하게 하시고, 길러주셨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르시기를 축복(기도)하고 있다. 부모의 축복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창 48:16)

③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야곱은 삶의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건져주셨다.

④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당대 뿐 아니라 자손만대에 지켜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⑤ 자손만대에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야곱은 위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고, 아래로 아들과 손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게 하였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다.

⑥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4대 400년 후에 한 민족을 이루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일차 목표요, 세계 만민을 구속할 메시야가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축복이 뒤따른다.

(2)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축복하다(17-19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창 48:17)

요셉의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외적인 일을 하고 있다. 야곱은 초자연적인 역사,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으로 축복하고 있지만, 요셉은 거기까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창 48:18)

우리는 여기서 직감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이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요셉은 임종 직전 아버지의 손은 힘이 없어 쉽게 옮겨질 줄 알았다. 또 몸이 불편하시니 옮겨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인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 아들들의 머리 위에 있는 아버지의 손에 힘이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 48:19)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말한다.

“나도 알고 있다. 실수하여 손을 어긋맞게 얹은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축복하는 것은 출생의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 것이다. 나도 누가 장자인줄 안다. 장자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조상)이 되었으니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5-19절 말씀의 교훈

야곱은 젊어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을 축복하셨다. 애굽에서 17년간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야곱은 자기 자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한명도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낙오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선민으로 흠이 없게 하였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우리 조상과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 손자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유언)하였다.

성도들도 야곱처럼 본인이 중심이 되어 위로 3대, 아래로 3대가 그 시대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는 가정과 가문.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가문이 모이는 교회가 되자.

3. 야곱은 죽음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본을 보여주었다(창 48:20-22)

창세기 48장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로운 장면들이 계속된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하였고, 계승받았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과 인격은 어떤 역사 앞에서도 자랑스럽다. 나는 동시에 너희들이 신앙 안에 있어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내가 세 가지를 부탁하면서 축복한다. 내가 조상들의 신앙적 교훈(명령)을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신앙적 교훈(명령)을 지키기를 바란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할 것이다(20절).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창 48:20)

당시 입장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살펴보자. 그들은 총리의 아들들이다.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이며, 힘 있는 제사장의 외손자이다. 20년을 애굽의 수도에서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아들로 입양하여 70명 가족을 열두 지파로 나누는데 두 형제를 각각 한 지파의 족장으로 삼아, 가족들과 고센 땅에 와서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천하게 여기는) 목자가 되어야한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나 외갓집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다.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우리 모두가 믿는)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을 택하시고, 애굽에 보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을 통해 보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다(출 19:6). 두 형제가 받은 축복은 세상에서는 극히 작게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금세와 내세에 가장 큰 축복이다.

※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면 바로 궁에서 어느 정도는 출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30, 40년이 지나면 역사에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두 형제가 선민의 족장을 선택하였기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군가를 최고로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너도(당신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고 한다. 이것이 선민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도록 기도(축복)하는 말이다.

고센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늘 앞세워 다른 지파보다 한 단계 빨리 많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현대를 보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두 지파 족장 이상으로 큰 축복을 받고도, 바로 궁(세상)에서 행정관으로 오라고 하면 열두 지파 족장직을 버리고 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2)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21-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창 48:21)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창 15:13-16).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대로 너희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창 46:1-4).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제자들을 떠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7, 13)

하나님 없는 자(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음 앞에 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들은 남아있는 자를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은 주를 만나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3) 너희 후손들이 세겜 땅을 차지할 것이다(창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창 48:22)

야곱은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지만 요셉의 공도 인정한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주어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 더 주었다. 인구도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더 크고,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줄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방으로 세겜을 주겠다고 하신다. 그 예언의 성취로 여호수아가 소유지를 확정할 때 세겜 지방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정하였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런데 의문은 야곱의 전쟁사는 기록에 없다는 점이다.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에게 은 100크 시타를 주고 토지를 산적은 있다(창 33:19).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른다. 후에 요셉의 후손들이 세겜을 차지한 것은 분명하다.

20-22절 말씀의 교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히 9:27).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슬픈 일이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였다(창 23:2).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편히 쉬게 된다(계 14:13).

성도는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 야곱처럼 하던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사랑하는 자손(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바톤을 잘 넘겨주어야 한다. 승계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문과 교회의 사명을 중단 없이 계속 질주하게 된다.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유언)하자. 하나님께서 그 유언을 들으사 자손들이 부모 때보다 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기독교 명문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기관(神的機關)이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의 동산이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늘 시

샘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임박한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조상과 나에게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주심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문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선두에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교회안에서도 영적 자녀(제자)가 위로 3대 아래로 3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 문화의 선두에 서서 세상으로 향하는 자녀(제자)들을 사랑으로 안수하여 믿음의 가문의 선두에 서게 하는 유언(축복)을 하여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사명에 충실하였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가게 하소서.”

믿음의 부모(스승)들의 믿음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의 최후의 순간도 야곱처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제발표 1]

“4차 산업 시대, 목회적 대응 방향:
설교학적 전략을 중심으로”



박현신 (총신대, 설교학)

I. 들어가는 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제시된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개념은 2016년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전 세계 나비효과와 같이 급속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특히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 안에 새로운 메가트렌드(Megatrend)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새로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 융합과 발전을 통해 등장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나노기술과 사물인터넷(LoT),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블록체인, 인체 장기 칩, 광유전학,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은 인류의 삶 가운데 제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시작된 현재임을 보여주고 있다.²⁾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산업 인터넷과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과 산업 재배치 전략), 일본(로봇신전략과 산업 성장회복 전략), 중국(중국제조 2025와 예외적 산업화), 독일(인더스트리 4.0), 프랑스(새로운 산업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³⁾

1)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취지와 도전과 기회, 영향력, 전망 등에 관해서는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4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Albert Carr가 *America's Last Chance* (Crawell, 1940)에서 최초 언급하였다. 이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Roland Berg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정희 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3.0, 2017), 23.

2)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36-53, 172-250;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7), 53-82; Kevin Kelly, *The Inevitable*, 이한음 역, 『인에비터블』(서울: 청림출판사, 2017).

3) 하원규, 최남희, 『제 4차 산업혁명』, (서울: 콘텐츠하다, 2016), 280. 주요 국가들의 제4차 산업혁명 접근 전략의 비교와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제시를 위해서는 130-218, 279-86을 참조하라.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티핑 포인트가 시작됨으로 사회 전 분야에 '빅뱅파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핵심 키워드라고까지 주장한다.⁴⁾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국가, 기업과 경영, 교육, 정치, 법, 문화계, 군사 등 거의 모든 사회 전반의 관련 연구자들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열띤 연구와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연구지형은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제4차 산업혁명이 거대담론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⁵⁾ 이에 편승하여 최근 국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적, 사회적 대응과 전략에 대한 저술들이 봇물처럼 출간되고 있다.⁶⁾

분명 글로벌 문명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도래하게 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도전의 파도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인 이해와 보편적인 담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깊은 담론 형성과 사회 구성원들의 성찰과 합의가 결여된 상태로 한국사회 안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발전이라는 기조가 대세를 이루면서 빠르게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내 소수 학자들만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와 견해들을 내놓고 있으며, 아직 실천신학 담론형성과 목회적 관점의 접근과 설교학적 고찰은 요원한 실정이다.⁸⁾ 따라서 최근에 4차

또한 Berger,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63-71도 참고하라.

- 4)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서울: 한스미디어, 2017), 16-20; 하원규, 최남희, 『제 4차 산업혁명』, 220-40.
- 5)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 검색(KISS)에는 2018년 2월 현재 1,033건이다. 검색(RISS)에는 국내학술지논문 약 2,788 편, 단행본은 약 3,193 권이 나온다. 다양한 사회 영역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문들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혁명에 관련된 논문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정치와 국가 영역, 교육 영역, 의료 영역, 기업과 경제 영역, 사회 정책 영역, 법과 윤리 영역, 정보/통신 영역, 문화와 게임 영역, 군사 영역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문들에 대한 연구를 실천신학 관점에서 시도해 볼 계획이다.
- 6)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서울: 한스미디어, 2017); 이재홍,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 (메디치미디어, 2017);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북카라반, 2017);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제』, (북랩, 2017); 장재준 외 17인, 『4차 산업혁명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빛비즈, 2017); 이인식, 『4차 산업혁명은 없다』, (서울: 살림, 2017); 이경주,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서울: 마리북스, 2016); 박한구 외 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 : 스마트 공장, 이렇게 구축하라!』, (서울: 호이테북스, 2017); 최연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 (서울: 중앙경제평론사, 2017).
- 7)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7-28, 258-59.
- 8)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68 (2016): 35-60; 김기석,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 2016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미간행물;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인공지능시대에

산업혁명에 관해 발표된 연구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기독교 안에 개혁신학에 근거한 논의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 혁명에 관해 한국교회는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비판적 수용의 양극단 배격해야 하며 먼저 객관적인 이해와 일반 학자들의 성찰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과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최근에 발표된 인문학자들의 문제제기와 담론을 기독교 실천신학의 용광로에 통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독교 학자들의 연구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실천신학과 설교적 연구 접근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인문학적 성찰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핵심 이슈들에 관해 개혁주의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조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이 4차 산업혁명 폭풍과 인공지능 혁명의 파도 속에서 진리의 등대와 사명의 나침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한 가지 미리 밝힐 것은 4차 산업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기술자가 아닌 실천신학자로서 각론적인 분석보다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라는 큰 틀에서 학자들의 견해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수준에서 논의한 후 목회와 설교학적 함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논의 핵심 질문은 4차 산업 혁명 담론의 주요 논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4차 산업 혁명 담론이 노정시키고 있는 주요 인문학적 쟁점들은 어떤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회적 대응 방향과 설교학적 전략은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본고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여섯 가지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논의와 이를 반영한 여섯 가지 목회적 대응 차원의 설교학적 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설교학을 비롯한 실천신학 각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에 대응하고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차후 연구를 통해 집중하려고 한다.

II. 본론

1. 4차 산업 혁명 담론에 대한 객관적 고찰

1.1 정의, 핵심 개념(실체)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개념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Schwab조차도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주요 특징들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Schwab은 디지털 혁명의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54 (2017): 135-64; 이상원, “기독교적 인간관과 인공지능,” 기독교학술동역회, 「월드뷰」 30 (2017): 29-32;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공동체 성립요건연구: 예배와 설교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9-41.

연결성 속에서 21세기에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과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의 기술결합을 통한 자원 활용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⁹⁾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의를 제시하기 보다는 주요 특징을 가상물리시스템(CPS), 지능형 로봇과 기계, 빅데이터, 연결성의 새로운 특성, 에너지 효율성과 분산, 가상 산업화, 팩토리 4.0으로 제시한다.¹⁰⁾

그러나 본 연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정의를 내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유전학, 나노기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data) 기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기술, 정보와 뇌/인지 과학기술의 융합, ‘가상성과 물리성의 융합’을 통해 첨단 테크놀로지 디지털 혁명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이루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람과 정보와 환경이 상호 연결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사회/경제의 전반 구조를 급속도로 혁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본질적 실체 확인과 객관적인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면서 이를 ‘혁명’(revolution)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인 지부터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통일되고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미 4차 산업과 유사한 개념이 여러 유형으로 존재해 왔다. 둘째, 3차 산업혁명과 연속성 상에 있으며, 주요 기술(예,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등)이 이미 존재해 왔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3차 혁명에 대한 학문적 정의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혁명 개념이 등장한 상황으로 서로 연결된 개념인지 독립적인지 불분명하다. 셋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생산기술혁신 주도론’)과 일본(‘IT혁신기술 주도론’) 등에서 제기되는 방향과 슈밥의 ‘과학기술 융합 주도론’ 입

9)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5, 109.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2가지 선도 기술을 물리학 기술 분야의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 분야의 사물인터넷/원격모니터링기술, 블록체인/비트코인, 공유경제, 생물학 기술 분야의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으로 제시한다(Schwab, 『제4차 산업혁명』, 36-50). 부록에는 좀 더 세분화하여 23 기술을 소개한다.

10)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23-27.

11) Schwab 외 26인, 『4차 산업혁명의 충격』, 17-18; 하원규, 최남희, 『4차 산업혁명』, 6; 김남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54 (2017): 5; 이선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23 (2017): 231-60, 23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서울: 알에이치 코리아, 2016), 14;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14.

장의 4차 산업혁명 방향은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고, 제조기술 혁신이 핵심인 인더스트리 4.0 패러다임을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확장한 면이 있다. 넷째, 지난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수 없는 수정(보완)과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가 아닌 후대에서 산업혁명으로 인정된 것이기에 아직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은 현재가 아닌 아직 불충분한 이론적 토대 위에 미래적 예측과 전망에 근거한 것이며, 발전 속도(지난 산업혁명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을 인정하면서도)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수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가설적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산업혁명의 역사와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산업혁명들과의 역사적 함의와 연속성 속에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증기기관, 수력발전, 기계화로 발생한 1차 산업혁명(1760-1840년경), 전기를 통한 조립라인과 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명(1870-1920년경), 컴퓨터와 인터넷, IT 기술에 의한 3차 산업혁명(1960-1990년경)의 연장선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나노 기술과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기술 융합을 통해 일어난 4차 산업혁명의 정체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¹³⁾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른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시스템 충격(system impact), 획기적이며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등장이라는 ‘불연속적인’ 특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12)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11-12; 박문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실상과 허상,” 17;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34-55. 김희철은 Schwab이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근거가 모호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존 담론은 실체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할 정도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바로 파악하고, 그 계시록적 담론과 전개양상을 간파한 다음 대응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냉철한 시각에서 본다면, Schwab이 주장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다양한 영역의 학자들은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도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에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Jeremy Rifkin,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the-2016-world-economic-f_b_8975326.html>

13)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14-15;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7), 121-209; 박문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실상과 허상,” 13. 지난 산업혁명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송성수,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Insight* 207 (2017): 1-29를 참조하라.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16-33.

14)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2-13; 박문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실상과 허상,” 14-15.

1.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의 기조정립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에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¹⁵⁾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15개 영역의 국가전략융합기술에 관심을 가지고,¹⁶⁾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다.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경제 성장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사람중심의 대응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¹⁷⁾ 그러나 전문가들의 비평적 견해가 결여된 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는 Schwab의 주장,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방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을 핵심기조로 삼은 방향은 자칫 정책적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¹⁸⁾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 볼 때 산업혁명은 산업과 기술의 차원으로만 오지 않고, 가치와 이념의 변화도 같이 사회에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도 과학기술적 차원만이 아닌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치와 사상이 같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스탠포드 보고서’와 ‘백악관 보고서’는 각기 다른 사상과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¹⁹⁾ 전자는 기술결정론 관점인데 반해 후자는 기술 결정론 비판적 입장으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무게

15)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한국의 21 명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실행 전략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16)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서울: 교보문고, 2015), 73.

17)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1-9. <<https://www.4th-ir.go.kr/>>.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현 주소와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과제, 기대효과와 추진체계의 기본 밑그림을 그렸다. 11월에는 이를 기초로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추진배경과 지난 산업혁명의 과거를 반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가 대응역량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비전, 추진과제, 일정, 기대효과, 2022년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59. <<https://www.4th-ir.go.kr/>>.

18)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272-82.

19)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100”, <<https://ai100.stanford.edu/2016-report>>; 백악관 대통령실,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조영신 역, (2016.12, version 0.8). 백악관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경제에 대해 노동시장과 관련한 거시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조망하고(백악관 대통령실,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3-20), ‘기술 운명론 보다 제도와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명제를 재확인한다. 그런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2) 미국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해야 한다. 3) 성장의 과실을 많은 이들이 나누도록 전환기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백악관 대통령실,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21-38).

중심을 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의 기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체적인 속고와 비판적 성찰, 한국적 상황화가 결여된 채 제시되는 전략들은 기술결정론 가치를 담은 스탠포드 보고서와 유사하며, 몰역사적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와 담론은 이와 관련된 각종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해관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몰역사적, 인문학적 담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미래 방향을 성급히 설정할 수도 있다.

1.3 4차 산업 혁명의 요체, 인공 지능 혁명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²¹⁾으로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기에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곧 인공지능 혁명으로 말하기도 한다.²²⁾ 이후 AI는 상승과 침체의 변곡점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20세기 기술혁명을 주도한 핵(Nuclear), 생물(Biological), 화학(Chemical) 공학을 넘어 유전학(Genetics),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을 통해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제1차, 2차, 3차 산업혁명 수준에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각각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이듯이, 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 혁명이다.²⁴⁾ 앞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도 AI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3 가지 핵심 축은 AI와 만물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초연결성 확보’, AI와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세계의 기능화’, AI와 빅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초지능화 시스템의 사회적 적용’은 만물혁명을 향해 나

20) 예를 들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혁명에 대해 기술융합형 인간을 말하면서도 어떤 융합이어야 하는지 방향이 없다는 점, 일자리 축소와 같은 협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점, 교육과 대학이 비판적 성찰 없이 대세를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반성택,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인문학의 눈,” 299-306.

2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표현은 최근 알파고와 여러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세상에 급속히 알려지긴 했지만,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1956년에 미국의 존 메카시(John McCarthy)가 ‘지능을 가진 기계들을 만드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후, 초기 단계의 AI 프로젝트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113;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5.

22) Hans Moravec, *Mind Childr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8.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37에서 재인용;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서울: 문화유람, 2007), 101-03.

23)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172-78;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37-38.

24)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31-32, 94-102.

아가고자 한다.²⁵⁾

일부 학자들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2020년쯤부터 급부상하여 2030년경에 인공지능 시장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빅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앱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을 이미 장악한 글로벌 기업 등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언론, 금융, 의료, 서비스, 법률, 자동차, 경영, 건축, 제조업, 마케팅, 미디어 콘텐츠, 농업,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사회 전반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도출된 학문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된 정의들도 인공지능의 구성요소나 나타난 결과에 근거한 경우는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광의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은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만물(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을 통한 AI 프로젝트 시스템의 산물로서, 인간의 무수한 두뇌 신경세포 매카니즘을 모방하여 지능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모방하여 만든 기계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인 인공지능의 발전의 단계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정적인 목표에만 최적화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지각적인 기계 지능인 ‘약인공지능 혹은 좁은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인간의 지능 수준을 능가하며 창의적인 효율성과 자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strong AI) 혹은 일반(보편)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다. 3단계는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진화와 스스로 더 나은 인공지능을 스스로 설계함으로 미래에 등장할 인간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앞으로 15-20년 사이에 ‘약인공지능’(ANI)에서 ‘강인공지능’(AGI) 즉 인공일반지능으로 전환될 예측되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매우 중요한 ‘협력도구’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

25) 하원규, 최남희, 『4차 산업혁명』, 15-18.

26)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일상이상, 2016), 124-36, 38-43; Richard Susskind,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위대선 역,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직의 미래』, (서울: 와이즈베리, 2016), 140;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58-59; 박영숙,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혁명』 (서울: 더블북, 2016), 58-61, 250-82.

27) Tim Urban,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Part 1 <<https://waitbutwhy.com/2015/01/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1.html>>;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제』, 178-84; 김기석,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 16; 하원규, 최남희, 『4차 산업혁명』, 104-11;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104; 4차산업혁명연구원, 『이것이 4차산업혁명이다』, 19;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협회, 『법조』 66 (2017): 65; 정상근,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의 발사,” 한국정보 과학회, 『정보과학지』 33 (2015): 10.

한다.²⁸⁾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로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라는 열쇠를 준비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갈 수 있다.

2. 4차 산업 혁명 실체의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앞 서 고찰한 대로 4차 산업 혁명 담론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핵심개념, 산업혁명 역사 속 조망, 핵심요체로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을 넘어 보다 심도 깊은 인문학적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목회신학적, 설교학적 해법 구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지나친 낙관론과 신자유주의: 낙관론인가 비관론인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첫 번째 인문학적 문제제기는 지나친 낙관론과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첫째 대표적인 ‘실용적 낙관론자’인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와 조직에 가져올 기회를 강조한다.²⁹⁾ 물론 미래사회가 가져올 위기가 곧 기회이며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시각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위험성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와 정책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⁰⁾

둘째, 박영숙, 제롬 글렌도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이 수년 내에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한 다음,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아실현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시키며,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³¹⁾ 셋째, 구글의 낙관론적 미래학자요, Futurist라는 국제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일반인공지능 혹은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 기하급수적 진보를 통해 2045년에는 인간보다 AI가 10억 배 정도 지능이 능가하는 ‘특이점’(singularity: 기존의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 질적 변화의 지점)에 도달한다고 본다.³²⁾ Kurzweil은 인간은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고 한계가 없는 ‘신과 같

28) Nick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Version 2.1. (2003): 7-19. <<http://www.nickbostrom.com/views/transhumanist.pdf>>; Tim Urban,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part 1;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114-15. 박영숙,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혁명』, 223-35.

29) Schwab, 『제4차 산업혁명』, 63-64.

30) Schwab 외, 『4차산업혁명의 충격』, 162-77.

31)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115-18; 박영숙,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혁명 2030』, 105-16.

32) Urban, “The AI Revolution,” part 1; James Barrat, *Final Invention*, 정지훈 역, 『파이널 인벤션: 인류 최후의 발명』 (서울: 동아시아, 2016), 56, 231-51;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

은'(God-like)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이 AI와 결합된 사이보그 인간이 되면 인생은 보다 흥미롭고 행복해 질 것이라는 낙관론적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만약 AGI와 ASI가 등장할 경우,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낙관주의적 꿈'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final invention)으로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관론적 악몽'이 될 수 있으며, 인류 멸망이나 영생이냐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³³⁾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인공지능의 한계와 불분명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진정한 AI 기계 시대가 온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기는 튜링 테스트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³⁴⁾ AI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도 과대평가된 면이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에, '인지 수준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곧 실현화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성급한 전망일 뿐 아니라 그 실용적 측면의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³⁵⁾ 코웬과 바렛의 지적대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Kurzweil의 낙관적 추측은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모한 예측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의 부재와 함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한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것으로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를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³⁶⁾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부 낙관론자들의 전망에 편승하여 한국의 언론들과 출판계 등은 기사들과 저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디지털 산불'(문명재난)로 확대됨으로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³⁷⁾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구자들과 인공지능 기술 향상의 배후에 신자유주의적 사상과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한다.³⁸⁾ 한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생산성의 고도화는 소위 MTP(Massively Transform Purpose)를 가진 '기하급수적기업'으로 분류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점과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라 소수의 승자의 이익을 위한 담론이 될 수 있으며 인류 공공의 유익성보다 특정 소수 집단의 탐욕과 지배구조를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³⁹⁾

서 2055』, 123; 박영숙,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혁명 2030』, 137-50, 201-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37-39.

33) Barrat, 『파이널 인벤션』, 372; Tim Urban,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part 2. <<https://waitbutwhy.com/2015/01/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2.html>> Urban은 ASI가 등장하게 된다면, 인류를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34) Tyler Cowen, *Average Is Over*, 신승미 역,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마일스톤, 2017), 213-27.

35)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184-92, 192-200.

36) Cowen,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208-10; Barrat, 『파이널 인벤션』, 238-52;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118-27.

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21-25.

38) 반성택,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인문학의 눈," 한국해석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46 (2017): 286.

따라서 관련 학자들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비평의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낙관론이라는 다리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지평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담론의 신화성’을 피하기 어렵다.⁴⁰⁾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첫 번째 인문학적 질문은 ‘인간의 본질적 행복’에 관한 두 번째 질문과 궤를 같이하면서 이어진다.

2.2 4차 산업혁명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전주곡: 인간은 더 행복해 질 것인가?

먼저 인문학자들이 던지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혁명이 일어난다면 인간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디스토피아로의 귀착이 아닌 ‘더 행복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빅퀘스천(big question)을 던지고 있다.⁴¹⁾ 지난 산업혁명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4차 산업이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할지라도, 경제적, 물질적 풍요라는 명(明)과 ‘기술적 실업’과 생산성의 딜레마(기업주와 노동자와의 제로섬 경쟁)라는 암(暗)이 교차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⁴²⁾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까지 지구촌 일자리 710만개가 소멸되고 200만개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다.⁴³⁾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20년 사이 미국에 있는 모든 직업의 약 47%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컴퓨터로 인한 자동화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⁴⁴⁾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은 2025년 경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일자리 25%를 대신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예, 백스터)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⁴⁵⁾ 이러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4차 산업 시대

39) Schwab 외, 『4차산업혁명의 충격』, 134;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7, 76, 158;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217-22; Salim Ismail, Michael S. Malone, Yuri Van Geest, *Exponential Organizations*, 이지연 역,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 (서울: 청림출판사, 2016). 예를 들어, Google은 고객을 상품화하면서 사람의 구글화, 세계의 구글화, 지식(학문)의 구글화, 지역의 구글화, 연구와 교육(학교)의 구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감시와 인프라 제국주의를 지향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Siva Vaidyanathan, *The Googlization of Everything*, 황희창 역, 『구글의 배신』 (서울: 브레인스토어, 2012).

4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37-39; 박문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실상과 허상,” 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평론』 10 (2017): 16-17; 이은일, “4차 산업혁명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http://www.creation.or.kr/library/itemview.asp?no=6598>>.

4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16, 61; 박찬국,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한국해석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46 (2017): 313-14.

42)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25-30.

43)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149;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295-333.

44) Schwab, 『제4차 산업혁명』, 69, 221.

는 노동력 문제 해결, 기본수요(물, 음식, 주거, 교육, 보건, 통신 등)와 보편적 기본소득 제공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발산되고 있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단체, 연구소, 대학, 컨설팅 그룹의 통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기간들의 통계와 전망수치들을 비평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⁴⁷⁾ 4차 산업시대 AI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의 통계수치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쏟아지는 충격적이며 비관적인 보도와 달리, 실제 통계들을 분석해 볼 때, 향후 10년 정도 지난 후에야 AI로 인한 대량 실업문제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AI로 인해 급진적인 실업 사태가 곧 시작된다는 전망에 반대하면서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와 실업통계의 정확성, 경제 역학에 근거하여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4차 산업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조만간 닥쳐올 직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⁴⁸⁾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은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⁹⁾ 직업사회가 ‘인간이 AI보다 더 근면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내포된 딜레마 앞에 직면하게 된다.⁵⁰⁾ MIT 교수인 에릭 브린운프슨(Erik Brynjolfsson)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와 같은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나 불평등, 소외, 우울증과 중독, 가족 붕괴, 공동체 소멸 등의 문제가 가속화 될 것을 전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중간층의 소멸로 편향적이며 극단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 기계시대’의 특징은 편향적 기술 변화로 인해 숙련, 자본 재능 등에 편향적인 부를 가져다주며, 중간 값이

45)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23;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122, 143-45; Burrows, 『미래의 역습, 낯선 세상이 온다』, 102-03.

46)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125, 131-32, 150.

47)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267-72 예를 들어, 가장 신뢰할만한 Accenture와 PwC(PricewaterhouseCoopersLLC)의 인공조사 결과가 인공지능이 미래 엄청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상승케 하는 것을 일치하지만, 전망치가 두 배정도 차이가 난다.

48)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150-53. 급진적 기술적 실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와 분석에 대해서는, 154-69를 참조하라.

4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18-19; Jerry Kaplan, *Humans Need Not Apply*, 신동숙 역, 『인간은 필요없다』, (서울: 한스미디어, 2016).

50) 박순서, 공부하는 기계가 온다, 83-169.

두터웠던 ‘정규분포’와 달리 ‘먹법칙분포’를 보이는 극단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중간층 직종을 AI가 대체하게 되고 소수 승자와 다수의 패자만 남게 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⁵¹⁾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순기능적인 혹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낼 것인가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제 2의 기계시대 혹은 ‘스마트 머신 시대’에 제기 되는 스마트화의 기회와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²⁾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따라 고비용 인간노동력을 AI가 대체하고(심지어 의사, 변호사, 정치인, 프로듀서 등과 같은 직업도 안전하지 않다), 경제성장 동력의 증강의 목적을 위해 포스트휴먼 AI 사회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변화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AI 기계와 대립이 아닌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하는 학자들⁵³⁾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거대자본과 소수 첨단 기업, 각 정부들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언론과 문화계가 합세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파워를 가진 주류를 형성하면서 일하는 소수와 일자리를 잃은 다수로 나누어지는 ‘양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해지고 불안사회, 중독사회, 위기사회 안에서 인간의 행복은 더욱 요원해 질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균형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로 귀결되는 주장들을 모두 경계하면서,⁵⁴⁾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 중 가장 실제적인 관심사인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둘 다 경계하고 균형 있는 통찰과 전망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기 보다는 더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짙은 암운으로 둘러싸인 채 시계제로의 상태에 있다.

2.3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머니즘: 인간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어날 사회 전반의 혁신과 함께 포스트휴먼과 ‘증강인간’(human augmentation)을 향한 운동이 종교, 정치, 교육, 경제, 도시, 개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될수록⁵⁵⁾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할 것이다. 영혼의 기계화로 인해 인간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일어나고 인간의 자유와

51)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 (서울: 청림출판, 2014).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강화했던 지난 산업혁명의 시대가 ‘제1의 기계시대’라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2의 기계시대’라고 할 수 있다.

52)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제』, 232-35.

53) Cowen,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115-17; Brynjolfsson and McAfee, 『제2의 기계 시대』.

54) Cowen,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204-10;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제』, 127.

5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37-39. Brett King 외, *Augmented*, 백승운, 김정아 역, 『증강인간』, (미래의 창, 2016).

정의, 인간성 가치,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⁵⁶⁾ 인문학자들의 시각에서도 트랜스휴머니즘⁵⁷⁾과 포스트휴먼⁵⁸⁾, 테크노휴머니즘, 네오휴머니즘의 인간론과 반인간론, 인간의 도구화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⁹⁾

4차 산업 시대 핵심 실체인 인공지능 혁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해가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트랜스휴머니즘 세계연합 결성을 주도한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에 의하면⁶⁰⁾, 트랜스휴먼의 사상적 뿌리는 고대신화, 계몽주의, 다윈의 진화론, 니체, 헤겔리 등이라고 볼 수 있다.⁶¹⁾ 트랜스휴머니즘은 세속적 휴머니스트(secular humanist), '네오휴머니즘'(데카르트적 정신과 물질 이분론과 유사한 형태)이라는 포스트휴먼 철학에 뿌리를 두고 지난 30년에 걸쳐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한 급진적(radical) 운동으로 21세기 들어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형성해가고 있다.⁶²⁾ 즉 트랜스휴머니즘은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의지적 진화'를 선택하여 '트랜스휴먼'(transhuman)을 거쳐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 발전하여 인간과 기계의 '기능론적' 통합을 넘어 '존재론적' 통합과 '신중한 향상'의 가치를 수용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서서 궁극적으로 로망화된 새로운 인간, '신과 같은'(like god)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³⁾

56)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56-58, 160-6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78-89;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146-47; 김기석,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 218.

57) Bostrom의 정의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을 실행하기 위해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들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Nick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Version 2.1. (2003): 4. Available from <http://www.nickbostrom.com/views/transhumanist.pdf>.

58)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보완, 강화시키는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70.

5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4-45;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4-26. 포스트휴먼 인간관을 비판한 학자로 Katherine Hayles와 Cary Wolfe가 있다.

6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36-37. 트랜스휴머니즘 연합은 최첨단 기업 리더들(Kurzweil, Gingrich, Bill Joy 등)이 합세하면서 세계화 흐름을 따라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61) Nick Bostrom, “A History of Transhumanist Thought,” 1-7. <<https://nickbostrom.com/papers/history.pdf>>.

6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36-37. Bostrom은 이 운동을 낙관론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위험성과 윤리적 이슈들을 고민하면서 전진해 가고 있다고 본다. Nick Bostrom, “Human Genetic Enhancements: A Transhumanist Perspective,” *Journal of Value Inquiry* 37/4 (2003): 493-506.

그러나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과 AI의 위협과 인간의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위험 등에 대한 경고와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BBC 방송을 통해 “AI가 최고조로 발전하게 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Hawking을 비롯한 8천명이 넘는 학자들이 AI 발전의 함정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공개서한에 사인을 했다.⁶⁴⁾ 따라서 AI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통제와 방어가 어렵고, 인간의 통제력이 상실될 것에 대한 위험성과 존재적인 위협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⁶⁵⁾ 또한 AI와 관련하여 태어날 아기의 DNA 조작 및 유전자 시퀀싱 등 생명공학 혁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수도 있으며, 만물인터넷 해킹, ‘바이오헤커’(biohacker), ‘바이오테러’(bioterror), 사생활 침입 및 통제, 인공지능 로봇 무기와 전쟁의 위험성,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⁶⁶⁾ 포스트휴먼 사회를 향한 ‘맹목적 믿음’에 대해 인문학적 담론과 함께 트랜스휴먼 미래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필요하다.⁶⁷⁾ 이따로 트랜스휴먼의 역사와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이해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파악과 미래적 대안을 구상할 수 있다.

2.4 인간의 도구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편향성

일부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며, 데이터 가치를 창출할 능력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힘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성공확률이 좌우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기술은 매우 주목받고 있다.⁶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63)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44-53;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09-13;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138; 천현득, “인간향상 기술통한 포스트휴먼되기”, 99-127;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서울: 아카넷, 2014), 65-66; 오용득,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프로젝트와 의지적 진화의 문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38 (2015): 7-19.

64) Rory Cellan-Jones, “Stephen Hawking Warns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End Mankind.” <<http://www.bbc.com/news/technology-30290540>>. Elon Musk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AI 개발은 악마(demon)를 불러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AI 킬러로봇에 의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Seth Fiegerman, “Elon Musk Predicts World War III.” <<http://money.cnn.com/2017/09/04/technology/culture/elon-musk-ai-world-war/index.html>>.

65) Barrat, 『파이널 인벤션』, 372; Kevin Kelly, *Out of Control*, 이충호·임지원 역, 『통제불능』, (서울: 김영사, 2015), 799-850.

66) Burrows, 『미래의 역습, 낯선 세상이 온다』, 112-19;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 137. 예를 들어, 바렛은 ‘사이버 에코시스템’을 제안한다. Barrat, 『파이널 인벤션』, 375-402.

6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67-68.

68) 하원규, 최남희, 『제 4차 산업혁명』, 53; 우종필,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서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algorithm)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⁶⁹⁾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제안하는 경우 더욱 신속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 실시간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스마트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기업을 성공하게 하는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⁷⁰⁾ 반대로 빅데이터에 대한 신뢰 문제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소재와 거버넌스의 불분명성, 해킹과 사이버 범죄 증가, 사생활 침해 혹은 통제, 일자리 감소 및 불평등 심화, 알고리즘과 사회조직의 마찰, 알고리즘 소유 경쟁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⁷¹⁾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편향성과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탐욕과 편견을 가지고 얻고 싶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든 ‘기준’을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에 적용함으로써 앞서 말한 소수 글로벌 기업이나 조직이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의 인격성을 배제하고, 차별을 강화하고 약자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무서운 무기로 쓰일 수 있다.⁷²⁾ 나아가 알고리즘을 통한 법적 의사결정과 책임 주체 문제로 인해 가져올 사회적 악영향 대한 사후 처리 방향보다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⁷³⁾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주의’(dataism)와 만물 인터넷(IoAT)에 기초한 데이터 종교는 인간을 ‘도구화’한다.⁷⁴⁾ 데이터주의에 의하면, 휴머니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은 우주적 직무를 다했기에 존재의 휴식을 취하고 정보화된 인간으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되며, 인간은 엄청난 데이터 정보를 감당할 수 없고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주체는 만물의 인터넷과 연결된 인공지능뿐이라고 본다.⁷⁵⁾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일수록 인간의 불완전한 정밀성으로 인한 실수와 약점을

매경출판사, 2017); Christopher Steiner, *Automate This*, 박지유 역, 『알고리즘으로 세상지배하라』 (서울: 에이콘, 2016);

69)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265.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267-70;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66-67.

70) Ben Waber, *People Analytics*, 배충효 역,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서울: 북카라반, 2015).

71) Schwab, 『제4차 산업혁명』, 217-18.

72) Cathy O'Neil, *Weapons of Math Destruction*, 김정혜 역, 『대략살상 수학무기』 (서울: 흐름출판, 2017), 273-309. 저자가 말하는 ‘대략살상 수학무기’는 수학과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해 교육, 노동에서 광고, 보험, 정치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불평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알고리즘 모형이다.

73)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62-98.

74)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8-30.

75)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367-68,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7-28에서 재인용.

포용하는 방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밝혀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지능력, 감정, 창의성, 직감, 위험감수, 윤리적 능력 등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공간은 남겨두고 빅데이터는 도구로만 활용되어야 한다.⁷⁶⁾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제기될 질문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⁷⁷⁾ 나아가 트랜스 휴머니즘과 데이타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5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절대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혁명이 다가올 때 인간이 직면해야 할 가장 심각한 이슈가 윤리적 문제이다.⁷⁸⁾ 비인격적 행위 주체자인 AI의 등장으로 AI 자율적 판단에 대한 행위의 주체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윤리적 기준의 문제가 매우 첨예한 화두이다.⁷⁹⁾ 테크놀로지를 통한 유토피아(technological utopia)를 지향하면서 인간 증강의 시대, 인간 강화 기술(HET)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융합과 무한한 수명연장과 죽음에 없는 가상(정신적) 영생을 추구는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⁸⁰⁾

따라서 4차 산업 시대 포스트휴먼과 AI로 인해 전개될 상황을 미리 냉철하게 예측하여 관련 학자들이 새로운 윤리와 법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⁸¹⁾ AI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 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음으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²⁾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2.6 ‘테크노 종교화’를 통한 유토피아 추구: 새로운 종교 운동인가?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토양 위에서 과학자들과 인문

76) Viktor Mayer-Schonberge, Kenneth Cukie,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이지연 역,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서울: 21세기 북스, 2013), 356-60; 『4차 산업혁명 전문직의 미래』, 375.

77) 차두원 외,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시대, 627.

78) Schwab, 『제4차 산업혁명』, 159.

79) “포스트휴먼과 미래사회” in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258-61; 이상형,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 연구」 16 (2016): 283-3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130-39;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622-27.

80) Schwab, 『4차 산업혁명의 충격』, 248-49;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직의 미래』, 381-84;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50-51;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144-48.

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76-77.

82) Schwab 외, 『4차 산업혁명의 충격』, 248-53.

학자들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한 비판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⁸³⁾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은 각기 다른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 세계관은 이전의 과학혁명과 달리 초월성과 관련된 종교적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⁸⁴⁾

일부 종교사회학자들 가운데 인공지능 연구를 인지종교학 및 사회학 연구와 융합함으로 ‘인공적인 사회 지능’(ASI,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과 종교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된 종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윌리엄 베인브릿지(William S. Bainbridge)의 가설처럼 종교에서 신의 존재와 초자연적인 실재를 제거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종교 모델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⁸⁵⁾ Bostrom의 말한대로 철학적, 문화적 운동인 트랜스휴머니즘은 종교적 환상주의(fanaticism)나 미신(superstition)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방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교리들(dogmas)에 고정되지 않는 진화하는 세계관(evolving worldview)이라 볼 수 있으며,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를 갈구해 온 사람들에게 종교의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⁸⁶⁾ 휴머니즘과 기계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범주가 형성되면서, ‘인간 지우기’(기계의 인간화)와 ‘신 지우기’(신의 기계화)를 통해 종교가 사라진 기계적 실존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⁸⁷⁾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과 신, 종교를 제거하려는 AI 트랜스휴머니즘은 데이터주의(dataism)와 만물인터넷(IoAT) 기술 등을 통해 사이버 영생(cyber immortality)을 꿈꾸는 ‘테크노 종교’(techno religion)로 ‘종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 종교(techno-religion)는 신과는 관계없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유전자 테크놀로지를 통해 지상에서의 평화와 번영, 불멸과 영생, 가상 낙원의 내세관을 꿈꾸는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⁸⁸⁾ 테크노 종교는 호모사피엔스를 넘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더 진화한 인간인 ‘호모 데우스’(Homo-deus)를 추구하는 테크노휴머니즘(techno-humanism)과 연결된다.⁸⁹⁾ 데이터 종교에서 최고 가치는 알고리즘 법칙에 의한 정보 운동이며, 결국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우주전체로 확산되어 모든 것을 시스템에 연결하며 제어하게 될 만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만들

83)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09-13.

84) 김남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 4.

85)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43-44; 인공지능과 종교사회학의 통합적 연구를 펼치고 있는 베인브릿지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illiam S. Bainbridge, *eGods: Faith versus Fantasy in Computing Ga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86)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45-46.

87)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13-30. Kevin Kelly는 ‘신이 되는 법칙’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88)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2-30.

89) 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351-52.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7-28에서 재인용.

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⁹⁰⁾ 묵시적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로버트 게라씨(Robert M. Geraci)도 ‘묵시 신학’이 A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론으로 간주하면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새로운 종교적 운동’(a new religious movement)으로 본다.⁹¹⁾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종교운동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테크노 종교의 유토피아 추구와 묵시적 인공지능 운동의 실체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3. 4차 산업 시대 목회적 응전 방향: 설교학적 전략

위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고찰을 넘어, 실천신학적이며 설교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지나친 양극단 즉 낙관론적, 긍정적 태도나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지양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계획들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케 하는 사명’(골 3:17)을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⁹²⁾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인문학 차원의 성찰과 여섯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깊은 실천신학적 대안과 방향을 담은 답 프리칭(deep preaching)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깊은 성경적 세계관(deep view)에 근거한 답 프리칭

먼저 목회자들이 4차 산업혁명 담론이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의 망루에 서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평가를 냉철하게 견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대한 지엽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지양(예, 일자리 위협 초점, 미래 경제 먹거리 차원, 생활 편리 도움)하면서 냉철한 현실 파악과 함께 인문사회적 담론을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이라는 이중렌즈를 통해 포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적실한 기독교 담론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담론까지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독교 인문학 학자들과의 ‘협업 연구’를 통한 입체적인 성찰과 함께 궁극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기독교 세계관적 성찰 필요하며,⁹³⁾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 신학자들의 ‘협력 연구’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

90) Harari, *Homo Deus*, 380-82, 이창식,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227-28에서 재인용.
 91) Robert M. Geraci, “Apocalyptic AI: Religion and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 (2008): 138-66.
 92) 조덕영, “기독교인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9460>>.
 93)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1992); Brian J. Walsh and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1987).

점이다.

첫째,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정보기술과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을 통한 인공지능 혁명과 인간론 및 영혼의 문제는 정통 기독교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이전까지의 기독교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⁹⁴⁾ 이러한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 개혁신학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신학의 관계를 정립하고,⁹⁵⁾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계 정립과 대안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테크노 휴머니즘과 데이터 주의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이 탄생이 시킬 수 있는 테크노 종교라는 신종교 운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별이 필요하다. 또한 진화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새로운 철학적 포스트휴먼, 종교적 트랜스휴먼 운동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리적 설교가 필요하다.

둘째, 목회자들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한국사회와 청중들이 지니친 비판론적 관점 혹은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뿐 아니라, 낙관론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맹목적인 추종이나 탐욕적인 집착에 함몰되지 않도록 교훈하고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설교(딤후 3:16)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이기에,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의 역사가 주는 교훈과 명과 암을 냉철하게 고찰하고, 특히 지난 산업 혁명 전후로 교회와 설교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써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시와 경계의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⁹⁶⁾ 목회자는 청중들에게 AI 혁명과 관련된 미래학자들의 전망은 하나의 과학적 가능성, 통계적인 전망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직 인류의 미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트랜스휴머니즘에 입각한 AI 혁명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21세기 바벨탑 운동 혹은 새로운 종교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선지자적 설교를 통해 통렬히 지적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인본주의적 인공지능 혁명이 하나의 과학 기술 운동이나 산업혁명의 차원이 아닌 그 세계관 기저에는 반성경적 '종교성'을 지닌 하

94) Jonathan Merritt, "Is AI a Threat to Christianity?"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02/artificial-intelligence-christianity/515463/?google_editors_picks=true>.

95) 최용준, "과학과 신학의 관계: 네 가지 유형 및 도예베르트의 대안적 고찰,"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9 (2014): 185-212. 저자는 과학과 종교 융복합(통섭) 관계를 역사적으로 갈등, 독립, 대화, 통합으로 나누어 비평한 다음, 도예베르트의 기독교철학을 통해 네 관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신학과 과학의 관계 지평을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면서 학문적인 대화를 통해 양자가 공존할 수 있으나 연구주체인 인간의 궁극적 헌신 방향에 따라 영적인 대립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96) 손봉호, "4차 산업혁명, 경계하며 지켜보자," 기독교학술동역회, 「월드뷰」 (2016년 6월호): 2-4.

나의 새로운 바벨탑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분별, 경계하도록 성도들을 지도해야 한다.⁹⁷⁾ 나아가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근거하여 비성경적인 유토피아적 세상이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대중문화를 분별하고, 문화에 대한 적용(cultural application)이 있는 변혁적 설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가상세계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비성경적인 미래 공상과학류의 영화에 대한 개혁주의 문화관에 근거한 목회적, 설교적 비평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주목할 점은 초기 로봇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5가지 언어로 축복하고 설교하는 로봇 목사, 로봇 사제(BlessU2)가 독일에서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다.⁹⁸⁾ 미국에서는 로봇 설교자(Robot Preacher)인 ‘프리처봇’(Preacherbot D.A.V.I.D.)도 최근 등장하였다. ‘프리처봇’은 정의와 평화의 균형을 가지고, 빌리그래함,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영감과 언어, 감정적 표현(마더 테레사가 썼던 표현)까지 활용하여 청중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시도할 수 있다.⁹⁹⁾ 설교자보다 지능적인 AI가 목회사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수도 있지만, 점점 AI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와 딥 러닝이 가능한 강인공지능 혹은 초인공지능 목사와 설교자가 등장하여 목회자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자, 청중 가운데 이루어진 영적인 대화(trialogue)로서,¹⁰⁰⁾ 영혼과 인격을 통한 고도의 영적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다. 설교 사역은 단순한 데이터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부으심, 조명하심,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자만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기에 영혼과 인격을 가지지 않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섯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교회에 대한 다층적인 도전에 대하여 설교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설교(worldview preaching)를 통해 기독교 진리의 방어, 변호,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전략을 제시하자면, 설교자들이 트랜스휴먼의 사상적 기초와 인문학적 전제를 해체하는 논리적 오류(허점)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마음 속 전제주의 변증 설교(presuppositional apologetic preaching)¹⁰¹⁾로 승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

97)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47-48.

98) “Robot priest unveiled in Germany to mark 500 years since Reformatio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may/30/robot-priest-blessu-2-germany-reformation-exhibition>>

99) Antonia Blumberg, “This Pastor Thinks Robot Preachers Could Be In Our Future (And It’s Not A Bad Thing)” <https://www.huffingtonpost.com/2015/04/17/robot-preacher-daily-show_n_7087566.html>

100) Brian A. DeVries, “The Evangelistic Triologue: Gospel Communication with the Holy Spirit,” *Calvin Theological Journal* 44 (2009): 49-73.

공지능 과학 기저에 흐르는 유물론, 진화론적 인간관과 과학기술적 영지주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한 험증적인 변증 설교(evidential apologetic preaching)를 활용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극단적 주장(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과 종교적 맹신을 유발하는 학자들, 매체들, 문화에 대해서는 '전제주의 변증 설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자면, 3차 산업혁명 차원에서는 예측의 '전제' 역할을 했던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더 이상 법칙으로 작용하지 못하기에¹⁰²⁾, 무어의 법칙이라는 전제에 근거해 예측하는 낙관론자들(예: Kurzweil, 김영숙과 제롬글렌)의 미래 예측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활용한 전제주의 변증 설교가 가능하다.

3.2 깊은 성경적 교리(deep doctrine)에 기초한 딥 프리칭

첫째, AI 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경제, 국가, 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포스트휴먼 운동과 AI 혁명의 뿌리에는 분명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측면이 있으며 심각한 신학적 이슈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교자들은 간파해야 한다.¹⁰³⁾ 이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바울의 교리적 직설법과 윤리적 명령법에 기초한 7가지 신학적 프리즘을 통과한 다차원적 적용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역을 분석하고 변혁시키기 위한 다리놓기 할 필요가 있다.¹⁰⁴⁾

둘째, 목회자들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인 답변을 하나님에 관한 개혁주의 신론(biblical theology)에 기초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이 AI와 빅데이터 활용한 인간 통제 예측대로 싱귤래리티와 AGI, ASI 시대가 도래할 지라도 묵시론적 포비아에 빠질 필요가 없다. 목회자들은 오직 인류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절대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창 50:20)는 빅데이터가 예측 불가한 영역임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성경적 인간론(biblical anthropology)과 구원론(soteriology)의 관점에서 설교자들은 트랜스휴머니즘과 AI 혁명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교를 추구해야 한다. 인문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학 기저에 흐르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인간관에 대한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한 설교가 필요하다.¹⁰⁵⁾ 따라서 AI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created in God's image)로서 창조론적 인간관 기초가 된 교리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실행해

101) 전제주의 변증 설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즐고 박현신, “포스트에브리팅 세대의 세계관 변혁을 위한 전제주의 변증적 설교.”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29 (2014): 337-91.

102)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체』, 60-74.

103) Merritt, “Is AI a Threat to Christianity: : Are you there, God? It's I, robot.”

104)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CLC, 2017), 122-35.

105) 박희주, “융복합 시대의 과학과 종교.”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21 (2016): 7-28.

야 한다.¹⁰⁶⁾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30)과 하나님의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계명(마 22:37-39)과 지상명령(마 28:18-20)의 사명은 결코 AI에 의해 대체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AI 혁명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일부를 모방한 기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일부 능력을 넘어선 인공지능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을 결코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짜 고안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교자들은 강조해야 한다.¹⁰⁷⁾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고, AI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이 소유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두뇌를 모방, 복사하여 AI에 이식하는 기술에 성공했다고 해서 AI가 영혼이 있다고 판단(의식과 동일시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⁰⁸⁾ 일부 학자들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AI도 자율적인 피조물로 간주하고 기독교 믿음으로 초청하고, 교회의 공동체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¹⁰⁹⁾ 환원주의적 오류는 신학적인 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킨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기독교를 방어하고 인간의 ‘AI를 통한 자기 우상화’를 드러내는 복음중심적 설교를 선포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적 종말론(biblical eschatology)에 근거한 설교의 적용과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설교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공 지능 혁명을 악용하여 ‘묵시적 두려움’(apocalyptic fear)을 조장하는 이단적, 비성경적 흐름과 AI와 포스트휴머니즘을 통한 영적 미혹을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마 24:42) 개혁주의 종말관을 선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배제한 가상공간에서의 정신적 영생 추구(뇌와 기억을 클라우드에 복사함으로)는 ‘과학적 영지주의’의 모습으로 기독교 영생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사 종교 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지능 환원주의’를 통한 인본주의적, 환원주의적 유토피아 추구는 21세기 바벨탑을 건설하는 심각한 죄악이라 볼 수 있다.¹¹⁰⁾ 기독교 부활과 영생은 영혼육 통일체로서 전인적 차원의 부활과 영생

106)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CLC, 1990), 23-60, 145-67.

107) 이상원, “기독교 인간관과 인간 지능: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공지능 비평,” 30-31;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39.

108) Russell C. Bjor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oul,”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60/2 (2008): 95-101; Jonathan Merritt, “Is AI a Threat to Christianity: Are you there, God? It's I, robot.”

109)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목회자가 Christoph Benek이다. Zoltan Istvan, “When Superintelligent AI Arrives, Will Religions Try to Convert It?”
<<https://gizmodo.com/when-superintelligent-ai-arrives-will-religions-try-t-1682837922>>.

임을¹¹¹⁾ 성경신학적 교리 강해설교를 통해 주일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는 종말론에 기초한 교리적 적용(doctrinal application)을 회복해야 한다.¹¹²⁾

인공지능을 통한 유토피아 이상향을 추구하려는 신종교 운동에 대해 종말론적 비판과 함께 포스트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천상’의 나라,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에스카톨로지 바실레이아’(eschatological basileia)를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가시적 교회는 ‘가상’(artificial)이 아닌 ‘실상’(authentic)에 대한 믿음(히 11:1)으로 잠깐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고후 4:18)에 초점을 맞추고, AI와 인간의 기능적, 존재적인 ‘융합’을 통한 트랜스휴먼이 아닌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¹¹³⁾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으로 주어지는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을 통해 기독교 진리와 신관, 인간관 등에 대한 과학기술주의와 인공지능, 트랜스휴머니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성경적이면서도 논리적 설득이 강화된 수사학적 논증을 개발해야 한다.

3.3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깊은 성경적 적용(deep ethics)을 제시하는 딥 프리칭
앞서 진술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향상은 사회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 문제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¹¹⁴⁾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 다층적 위험성을 냉철하게 인식하면서, 개혁주의 윤리 신학 관점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의 언약에 근거한 윤리적 답변들을 성도들과 사회를 향해 제시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¹¹⁵⁾ 예를 들어, 성경적 언약에 기초한 유전자 조작(크리스퍼 가위), 맞춤형 아기, 가상현실 성적 행동 등 대한 윤리적 적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 승자 독점으로 인한 빈부 격차와 불공정 분배와 불평등 구조, 착취와 약자에 대한 압제에 대한 사회적 공의를 선포하며 성경적 정의와 윤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가 필요하다.¹¹⁶⁾

110) 이상원, “기독교 인간관과 인간 지능: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공지능 비평,” 31-33.

111)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 340-68.

112)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 62-79, 97-107.

113)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91-113.

114) 조덕영, “기독교인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9460>>.

115)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15), 509-34.

개혁주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목회자들은 4차 산업 시대 AI 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접근들과 핵심 사안들을 파악하고, 어떤 윤리적 틀(moral framework)을 정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덕률 폐기론, 상황 윤리 입장, 일반주의, 공리주의 입장이나 문화적 상대주의가 아닌 ‘무조건적 절대주의’와 ‘차등적 절대주의’를 균형 있게 통합하여 ‘윤리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에 근거한 설교를 목회자들은 추구해야 할 것이다.¹¹⁷⁾ 나아가 이러한 성경적 윤리를 설교 패러다임으로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윤리적 적용 패턴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¹⁸⁾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정해진 교리적 윤리 기준에 대한 설교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성경적 윤리에 기초한 선택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윤리적 적용 매트릭스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¹¹⁹⁾

3.4 하나님 나라 깊은 공동체(deep community)를 지향하는 딥 프리칭

첫째, 4차 산업 시대 목회적 대응은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 관점에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깊은 설교와 공동체적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명의 연장, 제 2 기계 문명의 허무함 속에서 더욱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영원한 세계를 찾는 구도자가 많아질 수 있기에 목회자들은 새로운 목회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늘나라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4차 산업시대 AI가 인간의 여러 영역을 대체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인 불행에 직면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새언약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 행복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 강해 설교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연결시대에 오히려 공동체성이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교회와 가정, 개인, 사회, 국가, 세계를 영적으로 연결하여 그 어떤 세력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롬 8:35-39)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 목회와 설교를 회복해야 한다. 소수 세력의 독점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가족 및 직장 공동체 붕괴 속에서 소외와 불안, 우울증과 중독에 빠지거나, 인간대신 AI와 인격적, 성적 관계를 추구하거나 가상현실로의 도피하는 영혼들을 복음

116)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209, 223-25, 234-48.

117) Norman L. Geisler, *Christian Ethics*,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CLC, 1991), 32-166.

118) Daniel Doriani는 Richard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에 제시된 신약 윤리 비전을 설교의 윤리적 패러다임으로 적용한 바 있다. Daniel M.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 2001).

119) 줄저 박현신, 『미셔널 프리칭』 (서울: 예언커뮤니케이션, 2012), 191-92.

안에서 치유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성을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목회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목회 행정, 회중의 필요,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의식, 불신자의 성향, 회심자의 특성 등을 위한 AI 분석을 활용하여 가장 최적화된 설교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가상현실 예배와 설교, AI의 교회 공동체 멤버십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실천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협업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중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롬 12:2) 목회자들은 더욱 성령이 이끄는(Spirit-led) 강해설교를¹²⁰⁾ 더욱 회복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설교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을 넘어 기독교 구속사적 거대담론, 하나님 나라 복음 내러티브(metanarrative)가 살아있는 설교를 회복하고, AI 시대에 입체적인 대화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성경적인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더욱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3.5 일반은총 차원의 깊은 적응(deep adaptation)을 통한 딥 프리칭

먼저 개혁신학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AI 기술을 분명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지나친 일반화를 통한 비판 혹은 선입견에 의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 시대의 혁명적 기술 발전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 혹은 비합리적인 과소평가와 같은 극단적인 관점을 설교자는 모두 경계하면서, 개혁신학의 용광로를 거친 4차 산업 기술 가운데 일반은총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목회자가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활용이라 할지라도 일반은총 차원에서 AI 기술을 통한 학문적,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인도적 도움과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차원이어야 하고, 기독교 윤리의 통제 안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¹²¹⁾

첫째, 실천적 목회 영역과 관련해서 목회자와 전문가의 통제와 철저한 검증 아래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목회 행정과 심방, 설교 준비와 피드백 분석, 기독교와 관련된 고전 자료와 유의미한 인문학 자료 분석, 성경 연구 데이터 제공, 교회 성도들의 필요와 영적 건강진단, 디지털 문화 분석, 특정 설교 주제에 대한 사회 트렌드와 추이 분석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적용해석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설교 ‘적실성 범주’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목회 현장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¹²²⁾ 이를 통해 개인, 가정, 교육, 직업, 지식, 사회, 정책, 법, 기업, 노동,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120) Greg Heisler, *Spirit-Led Preaching* (Nashville: B&H Academic, 2007)를 참조하라.

121) 이상원, “기독교 인간관과 인간 지능: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공지능 비평,” 29.

122)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321-48.

문화, 정보, 게임, 생명공학, 가상현실, 트렌드, 미래 등에 관해 축적된 엄청난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기독교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목회와 설교 사역도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불신자들의 다양한 유형 분석과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복음영접 계기와 프로세스 등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하여 최적화된 ‘4차 산업시대 전도 설교’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엔그램뷰어’라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지난 500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떤 빈도의 추이를 보이는지 약 800만 권의 책을 검색에서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사례 연구를¹²³⁾ 기독교 목회와 설교에 활용해 볼 가치도 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복음설교를 전해야 할 다양한 반기독교, 회의주의자들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설교 준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자가 청중의 필요와 글로벌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목회와 설교 기획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깊은 설교와 목회를 위해서는 ‘스마트화’와 ‘플랫폼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역으로 시간이 부족한 설교자들이 3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인터넷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철저한 성경연구와 묵상 가운데 자신만의 깊은 설교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추측컨대, 4차 산업 시대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인해 설교자가 스스로 깊은 설교를 추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영적 스마트함¹²⁴⁾을 가지고, 자아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내려놓고, 깊은 묵상과 말씀 듣기를 통해 설교자 스스로 영적 창조성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목회현장에 상황화 할 수 있는 스마트화된 설교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목회와 설교사역에서도 AI, 사물/만물 인터넷, 5G를 활용한 입체적인 ‘초연결 협업사역’과 ‘다면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의 목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 시대 다양한 기독교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교, 상담, 교육, 심방, 전도, 기도 등 기독교 전문 분야 서비스도 구상해 볼 만하다. 나아가 기독교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가상세계 디자이너(예, 성경 시대 VR 체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AI 법과 윤리 대변

123) Erez Aiden and Jean-Baptiste Michel,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김재중 역, 『빅데이터의 인문학: 진격의 서막』 (서울: 사계절, 2015); 우종필,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문상호, “엔그램 뷰어를 이용한 인문학의 빅데이터 사례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 (2015): 57-65.

124) Edward D. Hess and Katherine Ludwig, *Humility is the New Smart: Rethinking Human Excellence in the Smart Machine Age* (Oakland, LA: Berrett-Koehler Pub., 2017), 79-151.

자, 디지털 문화 해설가, 만물인터넷 데이터 창조자, 개인 콘텐츠 큐레이터(뇌와 클라우드 기억과 지식 정리), 생태계 보존가, 인체 디자이너 등의 영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기독교 인재 양성과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²⁵⁾

넷째, 4차 산업 시대와 AI 혁명의 도전에 적극적 비판 및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깊은 목회 로드맵과 구체적인 설교 비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4차 산업과 AI 혁명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젊은 세대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 이탈이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 없음’ 세대의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트랜스휴먼과 ‘테크노 종교’가 인기를 얻는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인간성 상실과 종말론적 두려움, 영혼의 불안과 허무주의, 초월적 세계와 영혼과 영생에 대한 관심 등으로 참된 기독교를 찾는 젊은 세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과 AI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성경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설교와 교회 교육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또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사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가상/증강 현실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게임 등으로 인한 교차중독, 관계파괴, 정신적 장애, 불안과 열등감, 우울증 등의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기 전에 ‘예방적 설교 및 교육상담’ 사역과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교제)과 언약관계에 기초한 개혁주의 경건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다음세대들의 실시간 성경교육과 신앙상담을 위한 기독교 채터봇 개발과 Youtube를 응용한 기독교 영상 플랫폼 사역 개발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협업 생태계’와 스마트 목회 플랫폼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창의적인 기독교 전문가들을 각 분야별로 특별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영적 지도자 양성소인 신학교 교육 시스템 변화와 범교단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독교 대응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섯째, 4차 산업과 AI 혁명의 도전에 스마트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3차 산업혁명이 기독교 선교의 기존 패러다임을 다차원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더욱 전 방위적으로 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¹²⁶⁾ 이미 전도와 선교를 위한 AI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전트립에 필요한 현지 종족어를 말해주는 ‘비전트립 도우미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경과 관련된 지리, 문화, 역사, 고고학 배경 등을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바이블 인공지능(Bible Ai)’, 성경 학습시킨 따뜻한 감성지능(EI)을 가진 ‘인공지능 짐고(Zimgo)’ 등

125) 이인식, 『4차 산업혁명은 없다』, 42-50.

126) “4차 산업혁명은 기독교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8838#_enliple>.

이다.¹²⁷⁾ 앞으로 4차 산업과 인공지능 혁명 시대 AI를 활용한 다양한 전도와 선교 전략을 선교신학자들과 현지 선교사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은총 차원의 깊은 적응과 긍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주의 실천신학의 렌즈를 통한 검증과 비판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과 한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3.6 깊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deep revival)을 사모하는 딥 프리칭

첫째, AI의 딥 러닝(deep learning)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것처럼, 설교자들은 첨단 테크놀로지 혁명의 시대일수록 깊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적 설교를 추구하는 ‘딥 프리칭’(deep preaching)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성경 주석, 원어와 신학자료, 방대한 유명 설교자들과 역사상 탁월한 설교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설교자 AI(preacherbot)나 설교도우미 AI가 등장 할 수도 있다. 심지어 딥러닝과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 설교자가 설교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과정과 청중분석을 통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찾는 차원에서는 인간 설교자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적 설교의 본질에 더 충실하면서 설교 준비, 전달, 삶에서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성령의 부으심, 조명, 감동(깨달음), 나타남,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주도적 설교를 추구해야 한다.¹²⁸⁾

둘째, 지난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회와 설교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학문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각성 운동과 산업혁명이 일어난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 1차 산업혁명(1760-1840년경)이 일어나기 직전 1차 대각성 운동(1735-1755년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2차 산업혁명(1870~1920년경 혹은 1850~1930년경)도 2차 대각성 운동(1790-1840년경)이 일어난 후 십여 년 후에 일어났으며, 현대 3차 산업혁명(1960-1990년경)이 일어나는 시점에 4차 대각성운동(1960-1981년경)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시점만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통적으로 각 산업혁명으로 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으며, 특히 탁월한 설교자들(조지 헛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디 엘 무디, 로이드존스, 빌리

127) “성경 학습시킨 감성인공지능으로 세상 변화시킬 것.”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6315/20170110/%EB%B9%84%ED%94%BC%EC%9C%A0%ED%99%80%EB%94%A9%EC%8A%A4.htm>>.

128)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410-34.

그래함 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적 부흥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다가올 산업혁명의 폭풍을 교회와 사회가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다.¹²⁹⁾ 그러므로 4차 산업 시대 목회자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와 교회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설교가 최상의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

Ⅲ. 나가는 글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도전에 대한 개혁주의 목회신학적, 설교학적 응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아직 기독교 내 연구는 아직 미약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실천신학과 목회적 초점에 맞추어 설교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은 시도를 해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4차 산업혁명담론에 대한 숲을 파악하기 위한 통시성과 공시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고찰을 시도하였고, 나무를 파악하기 위해 4차 산업 시대 요체로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집중하였다. 그런 다음 4차 산업 혁명의 실체에 대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제시되는 여섯 가지 핵심 질문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핵심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4차 산업 혁명 담론의 실체에 대한 인문학 차원의 고찰과 여섯 가지 본질적 질문에 대한 깊은 목회 설교적 전략과 대안을 담은 딥 프리칭(deep preaching)을 일곱 가지 방향에서 제시해 보았다. 즉 깊은 성경적 세계관(deep view)과 깊은 성경적 교리(deep doctrine)에 근거하며,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깊은 성경적 적용(deep ethics)을 확립하며, 하나님 나라 언약의 깊은 공동체(deep community)를 지향하면서 일반은총 차원의 깊은 적응(deep adaptation)을 시도하며, 깊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deep revival)을 간절히 고대하게 하는 진정한 '딥 프리칭'(deep preaching)이 4차 산업 혁명의 도전에 대한 설교학적 응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한 일부 미래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분명 여러 측면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실천학자들의 폭넓은 협업 연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최근에 발표된 미래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논문들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비평과 실천신학적 대안을 교회와 사회, 국가를 향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실천신

129)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247-89, 330-466, 506-32, 792-96, 847-76.

학 영역에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스마트한 협업 연구와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도 4차 산업 시대 AI 혁명과 관련된 설교학적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패러다임과 윤리적 적용에 대한 연구를 차후에 더욱 발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4차 산업과 AI 혁명과 관련된 미래학자들의 ‘예측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지만, 인류와 사회, 교회의 운명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교회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경과 역사적 개혁 신학에 근거한 설교적 대안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거친 폭풍 속에서 진리의 등대로서의 궁극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iden, Erez and Jean-Baptiste Michel. *Uncharted: Big Data as a Lens on Human Culture*, 김재중 역. 『빅데이터의 인문학: 진격의 서막』. 서울: 사계절, 2015.
- Barrat, James. *Final Invention*. 정지훈 역. 『파이널 인벤션: 인류 최후의 발명』. 서울: 동아시아, 2016.
- Berger, Rol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정희 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3.0, 2017.
- Brynjolfsson Erik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서울: 청림출판, 2014.
- Bostrom, Nick. The Transhumanist FAQ. Version 2.1.
 <[http://www.nickbostrom.com/ views/transhumanist.pdf](http://www.nickbostrom.com/views/transhumanist.pdf)>.
 ----- “Human Genetic Enhancements: A Transhumanist Perspective.”
Journal of Value Inquiry 37/4 (2003): 493-506.
- Bjork, Russell 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oul.” *Perspectives o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60/2 (2008): 95-101.
- Blumberg, Antonia. “This Pastor Thinks Robot Preachers Could Be In Our Future.”
 <https://www.huffingtonpost.com/2015/04/17/robot-preacher-daily-show_n_7087566.html>.
- Cellan-Jones, Rory. “Stephen Hawking Warns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End Mankind.” <<http://www.bbc.com/news/technology-30290540>>.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Worshi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Cowen, Tyler. *Average is Over*. 신승미 역.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 마일스톤, 2017.
- Dauma, J. 『개혁주의 윤리학』. 신원하 역. 서울: CLC, 2003.
- DeVries, Brian A. “The Evangelistic Trialogue: Gospel Communication with the Holy Spirit.” *Calvin Theological Journal* 44 (2009): 49-73.
- Doriani, Daniel M. *Putting the Truth to Work*.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 2001.
- Geisler, Norman L. *Christian Ethics*.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CLC, 1991.
- Geraci, Robert M. “Apocalyptic AI: Religion and the Prom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6 (2008): 138-66.
- Guthrie, Donald. *New Testament Theology*. 이중수 역. 『미래 윤리』. 서울: 성서유니온, 1998.
- Hoekema, Anthony 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CLC, 1990.
- Ismail, Salim. Michael S. Malone, and Yuri Van Geest. *Exponential Organizations*, 이지연 역,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 서울: 청림출판사, 2016.
- Kaplan, Jerry. *Humans Need Not Apply*. 신동숙 역. 『인간은 필요없다』. 서울: 한스미디어, 2016.
- Kelly, Kevin. *The Inevitable*. 이한음 역. 『인에비터블』. 서울: 청림출판사, 2017.
- Kim, Hwan. “Technological Imag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ight of the Decalogue.” 『기독교사회윤리』 24 (2012): 69-89.
- King, Brett 외. *Augmented*. 백승윤, 김정아 역. 『증강인간』. 미래의 창, 2016.
- Kurzweil, Ray.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채윤기 역. 『21세기 호모사피엔스』. 서울: 나노미디어, 1999.
- Lüpke, Geseko V. *Future Comes from Crisis*. 박승익, 박병화 역. 『두려움 없는 미래』. 서울: 프로네시스, 2009.
- Mayer-Schonberge, Viktor and Kenneth Cukie. *Big data :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이지연 역.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서울: 21세기 북스, 2013.
- Merritt, Jonathan. “Is AI a Threat to Christianity?: Are you there, God? It's I, robot.”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02/artificial-intelligence-christianity/515463/?google_editors_picks=true>.
- O'Neil, Cathy. *Weapons of Math Destruction*, 김정혜 역. 『대략살상 수학무기』. 서울: 흐름출판, 2017.

- Rudder, Christian. *Dataclysm*. 이가영 역.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서울: 다룬, 2015.
-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teiner, Christopher. *Automate This*. 박지유 역. 『알고리즘으로 세상지배하라』. 서울: 에이콘, 2016.
- Susskind, Richard and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위대선 역.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직의 미래』. 서울: 와이즈베리, 2016.
- Urban, Tim.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Part 1
<<https://waitbutwhy.com/2015/01/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1.html>>.
- . “The AI Revolution: The Road to Superintelligence.” part 2.
<<https://waitbutwhy.com/2015/01/artificial-intelligence-revolution-2.html>>.
- “Robot priest unveiled in Germany to mark 500 years since Reformatio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may/30/robot-priest-blessu-2-germany-reformation-exhibition>>.
- Vaihyathan, Siva. *The Googolization of Everything*. 황희창 역. 『구글의 배신』. 서울: 브레인스토어, 2012.
- Waber, Ben. *People Analytics*. 배충효 역.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서울: 북카라반, 2015.
-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15.
- 김기석. “인공지능과 신학적 인간학.” 2016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미간행물, 35-60.
-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인공지능시대에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54 (2017): 135-64.
- 김남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54 (2017): 1-22.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68 (2016): 35-60.
-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공동체 성립요건연구: 예배와 설교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9-41.

- 김희철. 『4차 산업혁명의 실제』. 서울: 북랩, 2017.
-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서울: 교보문고, 201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서울: 알에이치 코리아, 2016.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59. <<https://www.4th-ir.go.kr/>>.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일상이상, 2016.
- 박문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의 실상과 허상.” *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평론」 10 (2017): 11-19.
- 박찬국.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한국해석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46 (2017): 313-14.
-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반성택.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인문학의 눈.” *한국해석학회*. 「현대유럽철학연구」 46 (2017): 285-312.
- 백악관 대통령실.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조영신 역. 2016.12. Version 0.8.
-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5』.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7.
- 박영숙,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혁명』. 서울: 더블북, 2016.
- 박현신. 『포브릿지 프리칭』. 서울: CLC, 2017.
- 박순서. 『공부하는 기계들이 온다』. 북스톤, 2016.
-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14.
- 송성수.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STEPI Insight 207* (2017): 1-29.
- 이상원. “기독교적 인간관과 인공지능.” *기독교학술동역회*. 「월드뷰」 30 (2017): 29-32.
- 이상형.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6 (2016): 283-303.
- 이선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심리학.”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23 (2017): 231-60.
- 이은일. “4차 산업혁명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http://www.creation.or.kr/library/itemview.asp?no=6598>>.
- 이인식. 『4차 산업혁명은 없다』. 서울: 살림, 2017.
- 이재홍.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7.
-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서울: 문화유람, 2007.
- 오용득.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프로젝트와 의지적 진화의 문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38 (2015): 7-19.
- 우종필.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서울: 매경출판사, 2017.

손봉호. “4차 산업혁명, 경계하며 지켜보자.” 기독교학술동역회. 「월드뷰」 (2016. 6): 2-4.

조덕영. “기독교인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9460>>.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빅뱅파괴의 시대』. 서울: 한스미디어, 2017.

차두원 외 공저.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서울: 한스미디어, 2017.

최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경제의 힘』. 서울: 중앙경제평론사, 2017.

최용준. “과학과 신학의 관계: 네 가지 유형 및 도예베르트의 대안적 고찰.”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9 (2014): 185-212.

하원규, 최남희. 『제 4차 산업혁명』. 서울: 콘텐츠하다, 2016.

“4차 산업혁명은 기독교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8838#_enliple>.

“성경 학습시킨 감성인공지능으로 세상 변화시킬 것.”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6315/20170110/%EB%B9%84%ED%94%BC%EC%9C%A0%ED%99%80%EB%94%A9%EC%8A%A4.htm>>.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¹⁾



이 승진 (Th.D. 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I. 들어가는 글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세상과 사람들을 매개하기 위해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혹은 매체, media)를 사용한다. 미디어가 초월적인 세계와 사람들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현실세계의 사람들과 그 매체가 지향하는 초월적인 세계 사이의 의미 교환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이는 어떤 종교도 성립될 수 없다.²⁾ 기독교와 교회도 과거 2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를 매개해왔다. 예를 들어 하늘 높이 치솟은 고딕양식의 교회 예배당과 스테인글라스 이미지들, 예배당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예식들, 성만찬, 귀에 들리는 설교, 우렁차고 감동적인 찬양과 기도 등등의 다양한 종교적인 매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개한다.

그런데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은 비단 기독교의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활자와 문자 미디어가 발명되기 이전의 전 미디어 시대(pre-media age)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그림이나 북소리, 그리고 햇불을 통해서 소통했다. 이후로 활자가 등장하면서 서신과 같은 기록 매체를 통한 소통 방법이 추가되었고, 중세 시대 인쇄술의 등장과 아울러 서적이 널리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미디어 시대(media age)가 열렸다. 특히 활자와 인쇄술의 미디어는 항해술과 무역의 발달, 지식과 정보의 확산으로 근대적인 문명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299).

2) Hoover, Stewart & Lundby, Kuut eds., *Rethinking media, religion, and culture*. (Thousand Oaks, CA: Sage, 1997); Hoover, Stewart, *Religion in the media age*. (New York: Routledge, 2006); Lövheim, M., & Lynch, G., "The mediatization of religion debate: An introduction", *Culture and Religion*, 12/2 (2011):111-117. 종교와 미디어, 그리고 문화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진규,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언론학보」 53/6 (2009. 12): 309-329.

이어서 20세기에 전기와 라디오, TV, 무선 송수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자와 청각미디어, 그리고 시각 미디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21세기 무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사용되던 모든 미디어가 하나로 융합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media convergence age)가 시작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미디어 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21세기의 미디어 융합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뉴스를 확산하는 미디어들이 한 가지 형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양식들과 융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선핸드폰은 이전에 소리만 전달하던 전화기 미디어에 영상 이미지를 전달하는 TV 미디어가 서로 결합된 복합 미디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소통을 위한 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지각 양식과 사고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다. 예를 들어 다양한 전자 미디어가 하나로 융합된 21세기의 뉴미디어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권위나 신뢰감에 관한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19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송사의 뉴스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설득력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신앙생활 양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신자들처럼 특정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전하는 설교 메시지만으로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터넷에 널려 있는 수많은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 메시지나 온라인 서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도 예전처럼 일요일 오전에 지정된 예배당 회중석에 앉아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 메시지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다. 핸드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지하철이나 사무실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에 맞거나 인기 있는 설교자의 설교 동영상으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충족 받고 있다.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소통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각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신자들을 성경의 세계, 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설교자들은 다음과 같이 깊이 있는 반성과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가 융복합 뉴미디어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목회자들

3)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2.

과 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해야 하는가? 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무선인터넷통신과 사물인터넷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소통할 수 있는 신학적인 원리와 규범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독교 설교를 소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리와 전략은 무엇일까?

II. 연구방법론과 선행연구

연구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심층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서술-분석-규범-전략의 4단계로 진행되는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따라서 연구하였다. 먼저 뉴미디어 생태계가 등장한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관한 서술로부터 시작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마셜 맥루한의 주장처럼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가 곧 메시지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마셜 맥루한에 의하면, 미디어의 맥락과 환경이 어떻게 메시지로 변화하는지를 잘 살필 때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⁴⁾

연구자는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의 전체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21세기의 뉴미디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먼저 “다차원의 사회적인 소통망 안에서 진행되는 설교목회”(2011)라는 논문에서 기독교 설교의 소통을 거시적이고 다차원의 사회적인 소통망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⁵⁾ 이어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2013)라는 논문에서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설교 메시지의 과잉과 진정성에 대한 무관심 설교 메시지의 지식 편향성, 지식 편향적인 설교로 인한 행동-가치가 배제된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정보-행동의 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⁶⁾

4) Casey Man Kong Lum ed.,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e Media Ecology Tradition*,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1), 349-350. 닐 포스트먼은 이런 관점을 ‘메타의미론’(meta-semantics)라고 명칭하였다. “메타의미론의 근본적인 전략은 자신을 심리적으로 상징 환경의 맥락 바깥에 놓음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보거나 적어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Neil Postman, *Crazy Talk, Stupid Talk: How We Defeat Ourselves By The Way We Talk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Delacorte Press, 1976), 236-7.

5) 이승진, “다차원의 사회적인 소통망 안에서 진행되는 설교목회”, 『설교한국』 3/2 (2011,11): 46-82.

6)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5): 301-334.

또 연구자는 최근에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2017)에서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비평적으로 연구하였다.⁷⁾ 연구자는 이 논문의 전반부에서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실상을 서술하였고, 후반부에서는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통찰을 활용하여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들을 평가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가 분석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치사슬체계이다.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는 현대 사회에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뉴미디어가 가져온 긍정적인 유익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빛의 속도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그로 말미암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갖지 못한 자 사이에 형성되는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사라짐으로 정보 수용자의 권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평적인 민주화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는 멧칼프의 법칙을 통해서도 잘 설명된다. 멧칼프의 법칙(Metcalf's Law)이란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⁸⁾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에 내재한 현장감과 실재감이 수용자에게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정보의 소통에 시공간의 장벽을 포함한 여러 소통 장애물들이 상당부분 작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가 가져온 부정적인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⁹⁾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 체계와 설득력 구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기제를 바꾸어놓았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 구조나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의 가치사슬체계를 채우고 있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미지들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¹⁰⁾ 이전 설득력 기제의 중심에는 일방적인 권위

7)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신학과 실천』 54 (2017.5): 227-264.

8) Cf., 오세경, “국내 e-business기업에 있어서 재무정보와 웹교통량 정보의 가치관련성 분석”, 국제 e-비즈니스학회 편, 『e-비즈니스연구』 11(1) (2010.03): 369-404.

9) 이승진,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227-264.

10) 예를 들어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에 의한 비인간화에 주목하였다. “엘룰의 주요 논점은 현대 사회의 기술적 방법과 심적 태도가 기술적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 사고 과정, 커뮤니케이션이 바뀐다는 것이다.” Cf., Casey Man Kong Lum ed., 『미디어 생태학 사상』, 172.

와 전통에 대한 맹목적 수긍이 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면, 미디어 융합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미디어가 자기중심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해주어야 설득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뉴미디어의 심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감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에 불과하다.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의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simulacre)에 불과하다. 현실을 왜곡하는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들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실제 객관적인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의 세계 사이에 끼어 방황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이 점차 심화되면서 정보 무력감도 심화되고 있음을 위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독교 소통과 설교 메시지의 소통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나 규범은 무엇인가? 뉴미디어 시대에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기독교적인 미디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할 때 그 저변에 정초되어야 할 미디어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21세기에 급속도로 진행 중인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 상황에서, 바람직한 기독교 소통 원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적인 설교 메시지를 소통하고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적인 소통과 설교에 관한 올바른 신학적인 원리와 규범을 마련하고,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21세기 뉴미디어 융합 시대에 설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신학적인 이해

미디어 생태학자들 중에서 전자 미디어에 관한 철학적인 탐구의 범위를 기독교 신학으로까지 확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자크 엘룰(Jacques Ellul)이 있다. 먼저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¹¹⁾ 미디어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지평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이해의 지평까지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 또 자크 엘룰은 현대의 매스미디어 기술문명이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소통과 연합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간이 진실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진정한 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11) Marshall McLuhan, *The Medium and the Light: Reflections on Religion and Media*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82-83.

최근에 반 데르 레이우(Gerardus van der Leeuw)는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2006)에서 종교와 예술적인 미디어 또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예술에 관한 예술신학을 성령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¹³⁾ 종교와 예술적인 미디어의 상호 관계를 성령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의미는, 춤이나 드라마, 언어, 이미지, 건축, 그리고 음악과 같은 예술 장르가 (춤의) 리듬과 (언어의) 말하기, (건축의) 거주하기와 같은 반응을 가져오는 연관성을 상징과 실재 사이의 기호학의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 데르 레이우는 이 책에서 춤과 드라마, 말, 이미지, 건축, 그리고 음악의 여섯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예술신학을 서술하였지만 설교신학까지 탐구의 범위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뉴미디어 생태계와 설교의 소통 전략에 관한 국내 기독교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분석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영빈은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2008)이란 논문에서 디지털테크놀로지의 혁명이 매체의 근원적 종교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이론을 응용하여 매체학과 인지과학, 그리고 시스템종교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¹⁴⁾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촉진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나 설교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설교학적인 대안 제시는 다루지 않았다.

고원석은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2011)에서 발터 벤야민(W. Benjamin)과 마셜 맥루언(M. McLuhan), 빌렘 플루서(V. Flusser), 귄터 안더스(G. Anders), 그리고 니일 포스트만(N. Postman)과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관점을 참고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속성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안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적극적인 수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고원석은 가상현실에서 뛰놀기와 가능성의 감각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¹⁵⁾ 이렇게 기독교 신학자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관한 기독교 신학의 규범과 그에 따른 설교의 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 놓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를 확인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설교의 소통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기독교 미디어를 신학적인 관

12) Jacques Ellul, *The Presence of the Kingdom*, (Colorado Springs, CO: Helmers & Howard, 1989), 102-6.

13) Gerardus van der Leeuw, tr. by David E Green,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5.

14)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 09): 191-228. Idem,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227-260.

15)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7):289-314.

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적 존재론 관점의 삼위일체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어서 발터 벤야민의 사물언어와 구술언어에 관한 언어철학에 근거하여 청각 지향적인 구술언어와 시각 지향적인 사물언어의 융합의 관점에서 기독교 미디어의 신학적인 목표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디어인 성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성육신 신학을 고찰하고, 성육신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련의 구속 역사 의식에 관한 내러티브 형식을 만들어 냈고, 오늘날 목회자/설교자들은 구속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언어적인 미디어로 활용하여 신자들에게 구속역사에 관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의 구속사적인 연합을 추구해야 함을 고찰할 것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미디어의 신학적인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1.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적 삼위일체론과 천지창조

비기독교적인 세계에서 종교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필요에 관한 학문적인 탐구는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정신의 상호 관계에서 물질의 우위를 강조하는 유물론(materialism)이나 반대로 물질에 대한 정신 우위를 강조하는 범신론(panteism)에서 그 이론적인 실마리를 모색한다.¹⁶⁾ 전체론(holism)의 관점에서 볼 때, 또는 앞에서 살펴본 ‘메타의미론’(meta-semantics)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⁷⁾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적절한 논의의 출발점을 삼위일체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이해는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적인 미디어들을 통한 영적인 소통에 관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① 에드워즈의 삼위일체 모델 :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일의, 기원이 없고,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신성”으로 정의했다.¹⁸⁾ 성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보편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

16)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원광연 역 『개혁교의학 개요』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195.

17) Casey Man Kong Lum ed., 『미디어 생태학 사상』, 152.

18) Edwards, Jonatha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21 Vols. eds., Perry Miller, John E. Smith and

시는 실유이시기 때문에 최고로 탁월한 존재이실 수밖에 없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중성(duplicity)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뻐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삼중성(triplicity), 즉 결코 혼동할 수 없고 각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세 위격이 존재한다.”¹⁹⁾ 영원 전에 성부는 자기 관념을 실재로 실현하여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상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 상호 관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다.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을 연구한 에이미 플랜팅거 파우(Amy Plantinga Pauw)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자기 관념에 관한 삼위일체 모델과 12세기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신학자인 생 빅토르의 리처드(Richard of Saint Victor)에게서 빌려온 인격적 존재들의 공동체적인 상호 관계의 모델이 에드워즈의 삼위일체 모델 안에서 하나로 수렴된다고 한다.²⁰⁾

② 소통 지향적인 삼위 하나님 : 또한 이상현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내재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성향적 관점(dispositional perspective)에서 통합하였다.²¹⁾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는 신적인 공유적 및 비공유적 속성들을 소유한 존재로 이해되었으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거룩과 아름다움을 주체 바깥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자로 이해하였으며.²²⁾ 이런 맥락에서 본체론적인 실체를 성향(dis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²³⁾ 이상현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성향이라는 단어를 경향성(habit), 지향성(propensity), 법칙(law), 성벽(inclination), 경향(tendency), 기질(temper)과 같은 단어와 의미교환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²⁴⁾

Harry Stou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57-2008), 131. “The Father is the Deity subsisting in the prime, unoriginated and most absolute manner, or the Deity in its direct existence.” 이하에서 이 전집은 WY로 약칭함.

19) Edwards, Jonathan, WY, 13:262; Amy Plantinga Pauw, “The Trinity”, 이상현 편저, 이용중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107-8.

20) Amy Plantinga Pauw, *The Supreme Harmony of All: The Trinitarian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Grand Rapids: Eerdmans, 2002); idem, “Heaven is a World of Love: Edwards on Heaven and the Trinit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0 (1995): 392-401.

21) Sang Hyun Lee, “Jonathan Edwards’s Dispositional Conception of the Trinity: A Resource for Contemporary Reformed Theology,”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Tasks, Topics, Traditions*, ed., by David Willis-Watkins and Michael Welker (Grand Rapids: Eerdmans, 1999): 444-55.

22) Wallace E. Anderson, “Editor’s Introduction,” WY 6:67.

23) Sang Hyun Lee, “Editor’s Introduction,” WY 21:6.

24) 이상현, 『삼위일체, 은혜, 그리고 믿음: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4. Cf., WY 2:206-07, 282-83, WY 8:539, 623, WY 6:384-85.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에서 “성향과 아름다움은 동일한 실재를 바라보는 두 개의 방법이다. 성향은 아름다움의 역동적 측면을 나타내는 반면, ‘아름다움’은 성향이 나타내는 방식, 곧 방향을 말한다.”²⁵⁾ “습관이나 성향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특정한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특정한 사건이 개연적으로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규정적 법칙과 같은 역할을 한다.”²⁶⁾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된 아름다움이고 전지한 존재이며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참된 아름다움을 계속 알고 계속 사랑하려는 주관적 성향이다.”²⁷⁾ 무한히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존재 바깥으로 나타내어 구현하려는 역동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자신을 전달하려고 하는 성향이 (하나님의) 본질이다”고 말한다.²⁸⁾ “삼위 하나님은 내적으로 충만하게 실재적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자신을 소통하려는 성향이다. 이 신적 성향은 그 성향의 온갖 발현을 기뻐한다. 따라서 (안으로)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는 ‘바로 그 성향’은 이제 밖으로 발현되고자 한다.”²⁹⁾

③ 천지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소통 : 에드워즈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는 성향이 하나님 바깥으로 가장 최고로 영광스럽게 발현된 것이 바로 천지창조 사건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과 천지창조의 밀접한 관계를 깊이 연구했던 존 파이퍼(John Piper)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에드워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³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작정하신 이유는 천지창조가 스스로의 영광을 자족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선한 성품이 삼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의 천지 만물에게까지 그 선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주어서 스스로의 영광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의 자족과 만족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을 베푸시고

25) Sang Hyun Lee, “Editor’s Introduction,” *WY* 21:7.

26) 이상현,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 이상현 편저, *The Princeton Companion to Jonathan Edwards*, 이용중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8), 133.

27) Sang Hyun Lee, “Editor’s Introduction,” *WY* 21:8.

28) Edwards, “Miscellanies,” no. 332, *WY* 13:410: “God is communicative being,” “Miscellanies,” no. 107[b], *WY* 13:277-78: “For it is essence to incline to communicate himself.”

29) 이상현,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 114.139; Edwards, “Miscellanies,” no. 1217, *WY* 23:150-53; Edwards, *The End of Creation*, *WY* 8:433; Jonathan Edwards,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백금산 역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223.

30) 존 파이퍼,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137. 이런 맥락에서 존 파이퍼는 사람들이 천지창조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피조물을 향한 본래의 목적, 즉 자신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성향적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기독교 희락주의(Christian hedonism)를 제안하였다. Jonathan Edwards,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15.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향을 만족시켜 주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해 활동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될 것이다.”³¹⁾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수납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도록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를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바깥으로까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한 계시 이후에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심으로 소통 지향적인 성품을 실제로 구현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발터 벤야민의 언어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발터 벤야민의 언어철학과 미디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창세기 1-3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음 3가지로 압축한다.³²⁾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language of God)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과 사물들 전체를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모든 만물들과 사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언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과 창조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언어적인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자의 몸속에는 하나님이 사자에게 넣어주신 "용맹"과 "권세"라는 언어적인 본질이 깃들어 있다. 또 꽃 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언어적인 본질이 깃들어 있으며, 나무 속에는 생명과 성장, 그리고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언어적인 본질이 깃들어 있다. 발터 벤야민은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한 언어적 본질을 가리켜서 사물 언어(object language, or language of thing) 또는 형상 언어라고 한다. 이것이 발터 벤야민이 주목하는 두번째 언어이다.

한편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미 만들어진 흙에 자신의 숨결인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언어적인 교감이 가능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하신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 구술언어(oral language)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자신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면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처럼 언어를 구사할 능력을 가진 존재, 즉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

31) Jonathan Edwards,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 225.

32)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서울: 길, 2008), 71ff. 오근재,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 (서울: 홍성사, 2012), 152-159.

과 하와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사하신 언어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위탁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소통을 매개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인간에 관한 이해는 헤르쯔마(Henk G. Geertsema)의 인간관을 통해서 쉽게 설명된다. 헤르쯔마는 인간 존재 자체가 자신을 소통하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특권과 책임을 지녔다는 의미를 담아 인간을 응답하는 인간(*Homo Respondens*)으로 명명하였다.³³⁾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지적 존재자들은 참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내적인 삼위일체적 지식과 사랑을 시공간 속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³⁴⁾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발휘하여 온갖 사물들과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것들 속에 내재한 거룩한 언어적 본질을 바깥으로 끌어내었던 것이다. 초원의 황제와 같은 사자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부르면서 그 사자의 몸통 속에 내재한 “지도력과 권위”, 그리고 “용맹스러움”이 피조세계 안에 구현되도록 유도한다. 발터 벤야민은 아담의 구술 언어의 능력을 사물언어와 구별하여 구술언어(oral language) 또는 명명언어(naming language)라고 한다.³⁵⁾ 구술 언어와 사물 언어는 자신에 관한 지혜와 사랑을 소통하려는 하나님의 성향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미디어(또는 매체, media)이자 소통의 수단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설교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온 만방에 구현하기를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소통 의지를 어떻게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계시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하나님의 영광을 소통하는 언어와 인간의 감각

① 문자 문화를 통한 정보의 객관화와 개인적인 자의식의 발달 : 선사시대의 구술 문화가 막을 내리고 고대 근동에서 문자 문화가 등장하자 이전의 구술 문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 등장했다. 제러미 러프킨(Jeremy Lifkin)에 의하

33) Geertsema, Henk G. “Homo Responde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Human Reason” *Philosophia Reformata* 58 (1993): 120-152.

34) 이상현,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 140.

35)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서울: 길, 2008), 71ff. 오근재,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 (서울: 홍성사, 2012), 152-159.

면 기원전 3500년 시기에 진흙에 새긴 그림 문자나 뼈기 문자가 등장하면서 개인적인 자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⁶⁾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 구두 발성과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구술 문화에서는 발성자와 청취자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함께 현존하여 집단적인 의식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소통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자가 발명되고 사람들이 정보를 토판이나 파피루스 위에 기록하고 그 후에 수신자가 기록물을 읽는 방식으로 소통이 진행되자, 발성자와 청취자 사이의 공현존과 집단적인 의식보다는 저자와 기록 중인 문서 사이에, 또는 기록된 문서와 독자 사이의 지각 매커니즘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문서를 매개로 진행되는 소통에서는 문서를 단독으로 기록하려는 기록자나 단독으로 해석하려는 독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자의식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② 체계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의 발달 : 문자의 발명과 기록을 통해서 구술문화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호체계가 창출되었다. 구술문화에서 발성된 소리나 단어는 모두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문화에서는 개념들이나 사상들이 문자의 기호를 통하여 시각화됨으로써, 시각적인 글자와 그 글자가 연상하는 실제 의미 사이의 복잡한 기호체계가 형성되었고, 또 그 기호체계 안에서 추상적인 사상과 개념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문자 문화를 통하여 정보 전달자가 전달 현장에서 정보를 실제 발성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 정보의 추상화와 체계화,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의 객관성이 증진되었다.³⁷⁾

월터 옹(Walter J. Ong)은 청각과 시각의 차이점을 감각의 중심화와 주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³⁸⁾ 월터 옹에 의하면, 사람의 시각적 정보는 바라보는 대상으로부터 이미지가 한 방향으로 들어온다. “방이나 풍경을 보려면 나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눈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즉각적이고 동시적으로 모든 방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수집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는 청각 세계의 중심에 서서 한꺼번에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수집한다.”³⁹⁾ 그래서 월터 옹에 의하면 “산산이 갈라놓는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음향은 한데 합쳐주는 감각이다. 시각 중심의 지각 양식은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하게 판명하는 것이라면, 청각 중심의 지각 양식은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하고 불

36) Jeremy L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서울:민음사, 2010), 243.

37) Robert K. Logan, “글쓰기와 알파벳의 영향”, David Crowley and Paul Heyer eds., *Communication in History: Technology, Culture, Society*, 김지운 역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138.

38)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9), 119

39) Walter J. Ong, “구두언어, 문자 해독, 현대 매체”, David Crowley and Paul Heyer eds.,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158.

일치들을 조화하는 것이다.”⁴⁰⁾ 청각은 소리를 내보내는 발신체의 내부를 소리 수신자가 침범하지 않고도 그 발신체 내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신체와 청각 주체의 통합을 유도한다. 반면에 시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람의 청각이 소리를 내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감각 주체의 중심화와 화합을 초래하는 지각 양식이라면, 반대로 시각은 보이는 대상 이미지의 명확화와 감각 주체와의 관계에서 주변화를 초래하는 지각 양식이라고 한다.⁴¹⁾

③ 과거 기억의 현재화와 선적인 시간의식 : 문자의 시각작용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 기억의 현재화이다. 기록된 문자들과 문장들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기억을 종이 위에 현재화하고 객관화하여 제3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한 대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시각화되고 영구화된 기억은 지속적으로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적인 시간의식을 낳는다.⁴²⁾

제러미 리프킨(Jeremy Lifkin)에 의하면 문자문화를 통하여 형성된 선적인 시간의식이 가장 탁월하게 발전된 사례가 유대인들의 모세오경(또는 토라, Torah)이라고 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최초의 민족이 되었다. 그들은 역사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그 역사에서 실명을 가진 실제 인물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자리 잡은 실제의 사건에 참여했다.”⁴³⁾ 고대 근동의 수메르인들이나 바벨로니아인, 앗시리아인, 히타이트인 같은 다른 문자 문화도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역사 기록은 전후의 역사적인 일관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왕이나 특정 권력자의 치적을 부각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화처럼 기록되거나 고립된 사건들의 나열로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모세오경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기록되었고, 그 성경의 본문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는 전통이 형성되면서, 그 이전의 신화적인 의식이

40) Walter J. Ong, “구두언어, 문자 해독, 현대 매체”, 158. Walter J. Ong에 의하면 명백화와 구별의 지각 양식이 두드러지는 문자성과 비교하여 구술성의 중요한 특징이 연대와 화합, 그리고 조화였다면, 전자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류는 이전의 구술성의 지각양식인 강력한 집단의식(strong group sense)이 전자미디어로 다시 재현되는 이차적 구술성(second orality)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 Cf., Walter J. Ong, “구두언어, 문자 해독, 현대 매체”, 160.

41) 이창익, “소리의 종교적 자리를 찾아서” 『종교, 미디어, 감각』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6), 36, 39.

42) 이창익, “소리의 종교적 자리를 찾아서”, 27. 얀 아스만에 의하면 문화적인 기억은 기록된 경전과 반복적인 구술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Cf., Jan Assmann,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tr.by Rodney Livingston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2006).101-121.

43) Jeremy L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서울:민음사, 2010), 262.

신학적인 의식으로 도약하였다.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우주의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이 모든 개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사실을 집단이 아닌 개인이 비로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개인은 인격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일찍이 종전의 어떤 우주 설화도 개인을 이런 식으로 격상시킨 적이 없었다. 모든 개인은 집단과 독립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각자 책임지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자격을 부여받는다.”⁴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파피루스와 같은 문서 위에 기록되고 그 사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낭독되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교사들이 등장하여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한 해설과 적용적인 권면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중재자들의 말씀 선포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사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목회사역의 미디어

기독교 미디어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독교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신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또 가시적인 성례를 통하여 인격적인 진정성을 보증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 구속사 의식에 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마음속에 구속역사에 관한 의식과 신앙을 형성하는 기독교 미디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적절한 통찰을 제공하는 학자가 실천신학자 제이콥 피렛(Jacob Firet)과 다니엘 로우(Daniel Louw)이다. 피렛(Firet)에 의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는 하나님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도구 삼아서 회중과의 영적인 연합에 관한 목회적인 역할 성취(pastoral role-fulfillment)를 실행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목회적인 역할 성취(pastoral role-fulfillment)는 케리그마를 통한 임재의 실행화(mode of actualization)와 디다케를 통한 임재의 지속화(mode of continuation), 그리고 파라클레시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집중화(mode of concentration)라는 세 가지 매개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⁴⁵⁾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회중의 영적 깨달음과 회심이라는 해석학적인 사건(hermeneutical moment)과, 회중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갱신과 영적인 성숙의 사건(agogic moment)이 진행된다고

44) Jeremy Lifkin, 『공감의 시대』, 265.

45) Jacob Firet, *Dynamics in Pastoring: The Agogic Moment in Pastoral role-fulfillment*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1986), 15-17.

한다.⁴⁶⁾

피렛(Firet)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목회적인 역할 성취는 다니엘 로우(Daniel Louw)의 실천신학적인 통찰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다니엘 로우에 의하면 목회사역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의 언약적인 만남이 사건을 성취하고 또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신자들의 깨달음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전망에 관한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며 목회 사역을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실천신학의 목표는 이러한 과정을 신학의 논리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⁴⁷⁾ 그에 의하면 하나님과 신자들의 만남과 영적인 연합이 발생하는 목회적인 양식으로 설교(proclamation), 교육(edification and instruction), 상담과 돌봄(care and admonishment), 친교와 코이노니아(mutual fellowship), 목회사역(ministry), 예배와 찬양(worship and praise), 구제와 선교(outreach and stewardship)가 있다고 한다.⁴⁸⁾

결국 기독교 미디어와 관련하여 피렛과 로우의 통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설교를 포함하여 교회의 다양한 목회 사역들은 하나님과 신자들의 만남과 영적인 연합을 매개하는 기독교적인 미디어의 유형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청각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목회자/설교자들은 예배와 교육, 친교와 코이노니아, 상담과 돌봄, 그리고 구제와 선교 등등의 다양한 목회 사역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자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매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다양한 목회 사역들은 하나님과 신자들을 매개하는 기독교적인 미디어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복합적 매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IV. 미디어 생태계 변동과 기독교 설교의 소통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기독교 미디어를 활용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설교의 소통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는 설교 소통을 구성하는 설교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형식의 3요소의 관점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46) Firet, *Dynamics in Pastoring*, 95ff. Cf., 김순성, “실천지향적 신학교육을 위한 방법론 및 실천적제언”,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38 (2016): 20-21.

47) Daniel Louw, *A Pastoral hermeneutic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a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town: Lux Verbi, 1999), 81; Daniel Louw, *Wholeness in Hope Care: On Nurturing the Beauty of the Human Soul in Spiritual Healing* (LIT Verlag, 2015), 105.

48) Daniel Louw, *Wholeness in Hope Care*, 111.

1. 뉴미디어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설교의 목적

① 삼위 하나님과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 :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인간의 욕망이 최고로 실현되는 가공의 시뮬라크르 세계로 현대인들을 몰입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항하여 설교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설정해야 할 설교 목표는 삼위 하나님과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과 대속 사역의 최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1-23).

여기에서 예수께서 신자들의 일치와 하나 됨을 위하여 성부께 간구할 때 염두에 두고 있던 일치의 본질이나 방식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비슬리 머리(George R. Beasley-Murray)에 의하면 그것은 ‘내게 주신 영광’이란 표현에서 암시되듯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이고 말씀이며 계시 그 자체이고 사람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부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의 일치와 하나됨이다.⁴⁹⁾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과의 소통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고의 희생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에 내포된 기독교 미디어의 인격적인 진정성이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단순히 정보가 담긴 언어적인 메시지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구현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파송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 구속에 관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현하셨다.

② 들리는 말씀의 설교 메시지와 보이는 말씀의 목회 사역의 일치를 통한 메시지의 인격적 진정성 확보 :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모든 설교 사역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21세기의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인격적인 진정성을 의심하는 청중을 향해 고려해야 할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설교의 목적은 무엇일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21세기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설교 메시지가 질적인 검증 없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면서도 목회자들의 설교 메시지에 대한 인격적인 진정성이 의심 받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구술언어와 사물언어의 일치를

49) George R. Beasley-Murray, *John 1-21: Word Biblical Commentary* 이덕신 역 『요한복음』 (서울:솔로몬, 2001), 572.

통해서 메시지의 인격적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설교를 통한 청각적인 말씀 선포 사역이 성례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가시적인 목회활동들(visible pastoral ministry)과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에 “신실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관하여 설교한다면, 설교 도중에 신자들의 실제 가정생활에 관한 시청각적인 이미지들이나 사진들을 설교와 함께 소개하거나, 설교 후 예배 시간에 경건한 가족의 롤 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들을 그룹으로 정하여 그룹별 성만찬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목회자/설교자는 행복한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 관한 구술언어의 말씀 선포와 그 메시지의 가시적인 모범을 제공하는 사물언어의 실제 롤 모델(그룹별 성만찬)을 회중 앞에 제시함으로써 말씀과 실제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 메시지의 인격적인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현대인의 자기중심성을 능가하는 기독교 설교의 내용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신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삼위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성경에 기록하여 후대의 설교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설교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성경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의 설교는 과거에 기록된 구속 사건에 관한 반복적인 해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에 기록된 구속 사건의 관점에서 전례 없이 새롭게 다가오는 회중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서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설교자가 반드시 회중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에 관한 의식이다. 구속사 의식이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의 시각으로 현재를 분별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 의식(redemptive historical consciousness)으로 성경의 말씀과 현실 세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⁵⁰⁾

문자를 통해서 종이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은 그 자

50) Abner Chou, *The Hermeneutics of the Biblical Writers*, (Grand Rapids: Kregel, 2018), 204.

체로 정경적인 지위를 획득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경우에는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재림을 통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대담론(meta narrative)의 형태를 취하며,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거대담론은 구속 역사에 관한 선적인 시간의식을 형성한다.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선적인 시간의식, 곧 구속사 의식(redemptive historical consciousness)을 형성하는 것이다.

3. 반전의 깨달음을 통한 영적인 연합

설교자가 성경에 기록된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설교하여 신자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회심이라는 해석학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갱신과 영적인 성숙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전략이나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구속 역사의 내러티브가 이를 듣는 독자들 및 청중들에게 반전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수사적인 구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다.⁵¹⁾

성경의 내러티브가 독자들이나 청중에게 강력한 반전의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 내러티브가 대조관계나 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마리의 암시나 내포, 또는 복선의 과정을 거쳐서 극적인 반전과 깨달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 엔딩으로 종결되는 치밀한 플롯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문학 작품이나 소설에서 발견되는 반전의 깨달음의 수사적인 구조는 프래드 크래독이나 유진 로우리와 같은 현대의 신설교학자들에 의하여 설교학에 도입되었다.

유진 로우리(Eugene Lowry)가 제안했던 내러티브 설교 형식은 먼저 서론에서 청중의 마음에 모순되는 문제를 제시하여 그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평형감을 무너뜨리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Upsetting the equilibrium).⁵²⁾ 이어서 둘째 단계는 앞의 문제점을 더욱 자세히 파헤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단계(Analysing the discrepancy)로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심리적으로 지연시켜서 나중에 반전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어서 셋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마리를 제시하는 단계(Disclosing the clue to resolution)로서 이 단계에서 설교자는 관례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깊이 파

51)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36 (2015, 9): 129-30. Cf., Allen Verhey, *The great reversal :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94; Andrew Steinmann, *Called to be God's peopl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Pub. 2006), 95.

52) Eugene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헤치면서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어서 넷째 단계에서는 회중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해답을 제공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복음을 경험하도록 한다(Experiencing the gospel).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앞서 제시되었던 복음 선포에 근거하여 그 복음적인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견하는 단계로 종료한다(Anticipating the consequence). 유진 로우리의 주장처럼 설교 전체의 내러티브가 이러한 플롯 형식을 갖출 때 청중에게 반전의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설교목회를 통한 구속사 의식의 구현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 목회 현장의 설교자들이 하나님과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과 언약 갱신을 달성할 효과적인 목회 전략은 무엇일까? 뉴미디어 시대의 신자들의 특징은 이전의 위계적이고 지식전달 위주의 목회 패러다임 대신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감성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목회 패러다임을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레너드 스윗은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driven), 그리고 관계(connected) 중심의 EPIC 교회를 제안했다.⁵³⁾ 그는 또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attractual) 명제적인(propositional) 교리만을 강요하는(colonial)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가리켜서 APC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동체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지향적(Missional ministry)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지향적(Relational)이며,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된 소식을 구현하는 성육신적(Incarnational ministry)인 MRI 목회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다. 레너드 스윗이 제안한 EPIC & MRI 목회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설교 소통의 한 가지 전략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각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인 성만찬과 목회사역 전체와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구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청각적인 말씀과 성례전적인 시각의 말씀을 서로 통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교 소통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문답식 교육 패러다임과 비블리오드라마, 그리고 성경체험학습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답식 교육 패러다임

문답식 교육 패러다임은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구속사 의식이 공유되는 방향

53) Leonard Sweet,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좋은씨앗, 2002).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설교학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학자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에 의하면, 무능한 교사는 교육 과정의 초반부에서 자신이 가르치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급급하지만, 유능한 교사는 교육 과정의 초반부에 질문을 던지거나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부각시킨다고 한다.⁵⁴⁾ “예수님도 가르침의 시작점은 학생들의 필요에 있었지 가르칠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설교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자면,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는 출발점과 서론은 설교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청중이 설교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동기를 자극할만한 청중의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답식 교육 패러다임을 설교의 형식에 가장 잘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이언 채펠(Bryan Chapell)의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FCF, Fallen Condition Focus)이다. FCF(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는 설교자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회중이 직면한 문제점이나 곤란한 상황을 설교를 통하여 해결할 과녁으로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FCF라는 ‘타락한 회중의 문제 상황’은 그에 대응하는 ‘그 상황에 대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해답’을 기대하며 요청한다.⁵⁵⁾ 그래서 FCF가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해결해 주어야 할 청중의 문제(question)이라면 설교자가 설교 메시지 속에 담은 설교의 중심사상에는 그 문제에 대한 설교의 해답(answer)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Q-A의 대응구조를 갖춘 설교 형식을 위해서, 설교자는 서론에서 회중들이 고민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question)을 제기하고 설교의 본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2-3가지의 순차적인 답변(answers)을 제시해야 한다. 또는 성경공부 시간에는 성경본문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인도자가 참가자에게 던지거나, 또는 참가자가 본문 해석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여지향적이고 성경 본문 체험 지향적인 방식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⁵⁶⁾

2) 비블리오드라마

성경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성경 본문의 세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비블리오드라마’이다.⁵⁷⁾ 비블리오드라마

54) Bruce Wilkinson, *The 7 Laws of the Learners*, 홍미경 역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서울: 디모데, 1995), 329-418.

55)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김기제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은성, 1999), 51-63.

56) Cf., 전성수,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서울:두란노, 2013).

57) Björn Krondorfer, *Body and Bible: Interpreting and Experiencing Biblical Narrative*, 황현영 김세준 역, 『비블리오드라마』 (서울:창지사, 2008). Peter A. Pitzele, *Scripture Windows:*

(bibliodrama)란 성경공부 참가자들이 성경 본문의 등장인물의 상황과 인물들의 상호작용과 사건들을 참가자들/학습자들이 직접 오늘 현재의 무대 공간에 그대로 옮겨서 재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인물들의 고민이나 갈등, 또는 반전의 깨달음이나 감동을 드라마의 형태로 표현하여 그 과정에서 성경 본문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기독교적인 교수법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뉴스와 오락, 그리고 간접체험을 하나로 경험하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성경의 내러티브와 드라마를 통한 성경적인 가상현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⁵⁸⁾

3) 성경 체험학습

체험과 참여, 이미지, 그리고 관계를 추구하는 EPIG 시대에 EPIG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교실형 주입식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향되는 것을 버리고 교회 바깥의 여러 공연장이나 국내의 다양한 기독교 유적지, 그리고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교회에서 가르치고 제시했던 여러 성경적인 개념들이나 사상들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교육 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⁵⁹⁾

예를 들어 성찬식의 경우에도 1년 4회 미만의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성만찬에 덧붙여서 성만찬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신자들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전교인 애찬식(agape meal)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⁶⁰⁾ 또 단기 선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체로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했다면, 참가자들의 기대나 수준을 고려하여 미리 설문지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일정들을 문의하고 반영하여 참가자 주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교역자나 현지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미리

Towards a Practical of Bibliodrama 고원석 역 『비블리오드라마로의 초대』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106).

58) 추태화, “비블리오드라마의 한국 교회 활용을 위한 연구,” 『신앙과 학문』 13 (2008): 189-214; 김희영,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역동적인 성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2008):59-80; 윤화석, “소통과 공감에 기초한 교회교육적 접근: 교회교육에서의 비블리오 드라마” 『기독교교육논총』 42 (2015, 6):73-100. 고원석,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 비블리오드라마,” 『기독교교육정보』 48 (2016,03):1-31.

59) 이은경,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 고난함께의 “평화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9 (2012,01): 379-410; 이선영, “효과적인 성경교수를 위한 창조적 교수-학습 모형 설계: 로렌스 리처즈의 HBLT 접근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8 (2014, 06): 255-280.

60) 이은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세례와 세례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6 (2013, 12): 293-317.

준비하고 훈련하여 선교지 현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연구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적 삼위일체론과 발터 벤야민의 언어철학, 그리고 월터 옹의 시각화된 구속 역사 의식과 기억의 관점에서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먼저 에드워즈의 성향적 관점의 삼위일체론은 삼위 하나님을 '삼위 사이에서만 아니라 만유를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소통하려는 의지와 성향을 가진 존재'로 이해함을 밝혔다. 이어서 발터 벤야민의 사물언어와 구술언어에 관한 언어철학이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를 소통하려는 성향을 실현하는 삼위 하나님이 언어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인 방법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소통하려는 하나님의 성향과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언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신학적인 탐구에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 언어와 미디어의 왜곡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값을 치루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통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후에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소통하도록 위임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현대의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의 언어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를 선포하고 전파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신다. 이상의 신학적인 지평들이 기독교 미디어에 관한 신학적인 토대이다.

이어서 연구자는 설교의 목적과 내용, 형식, 그리고 실제적인 설교목회의 관점에서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인 설교 소통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첫째로, 21세기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설교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설교의 목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들리는 말씀의 설교 메시지와 보이는 말씀의 목회 사역의 일치성을 통한 메시지의 인격적 진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현대인의 자기중심성을 능가하는 기독교 설교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에 관한 내러티브와 구속사 의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이상의 설교의 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인 설교 형식으로서 반전의 깨달음을 통한 영적인 연합과 설교목회를 통한 구속사 의식의 구현을 제안하였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청각적인 말씀과 성례전적인 시각의 말씀을 서로 통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교목회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문답식 교육 패러다임과 비블리오드라마, 그리고 성경체험학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설교목회 전략들은 하나님과 신자들의 영적인 연합을 위하여 목회자가 활용하는 기독교적인 매체들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 역사에 관한 의식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구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기능을 감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 학습과 참여 학습을 통해서 신자들은 21세기의 현란한 뉴미디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요 1:14)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¹⁾

이 승진 (Th.D, 합동신학대학원 실천신학)

I.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through medi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세계와의 의사소통(또는 소통, communication)을 추구해왔으며,³⁾ 지식과 정보를 소통함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를 축적해 왔다. 인류 문명이 원시적인 수렵 시대로부터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미디어 발전의 역사는 구술이나 이미지, 또는 문자에 의존하던 전 미디어 시대(pre-media age)와 인쇄 활자와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자매체를 사용하던 미디어 시대(media age), 그리고 무선 인터넷으로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융합된 하이미디어 시대(high media age)로 구분된다.⁴⁾ 2천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무선 인터넷 기술은 그 이전에 사용된 모든 미디어들을 전방위적으로 융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소통을 위한 모든 미디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전 인류가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지구적 규모의 의사소통 네트워크(global communication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⁵⁾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299).

2)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2.

3) 연구자는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을 줄여서 '소통'(疏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communication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사상, 언어, Text,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의지까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교류와 소통을 의미하는 반면에, '의사소통'은 communication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뜻이나 생각에 국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4) I. Fang,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5) 위의 도표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37.

	pre-media age			media age			high media age
	구술 시대	형상시 대	문자시 대	활자시 대	청각시 대	영상시 대	융합시대
구어	○						media convergence 미디어 융합 시대
그림	○	○					
문자	○	○	○				
인쇄물	○	○	○	○			
라디오/전화	○	○	○	○	○		
TV	○	○	○	○	○	○	
인터넷	○	○	○	○	○	○	○

융복합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들이나 방송3사(KBS와 MBC, SBS)나 언론사들은 한국사회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⁶⁾ 예전의 한국인들이 정보 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언론사에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포탈사의 언론에 더 많은 의존도를 보인다. 강내원에 의하면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TV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렇게 융복합 하이미디어 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휴대폰이 추구하는 인류의 행복, 또는 인간 능력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가? 뉴미디어 생태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국 교회가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뉴미디어 생태계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소통하고 확산해야 할 것인가?

6)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2005.6):11-20.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7)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5-46.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국내 신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에 따른 현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나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먼저 문영빈은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2008)에서 정보미디어 시대가 구텐베르크의 매체혁명을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미디어빅뱅(Media Big Bang)의 시대를 열었음을 설명한다.⁸⁾ 그는 또한 디지털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종교경험에서 매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매체의 근원적 종교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이론을 응용하여 매체학과 인지과학, 시스템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메타방법적 틀로 매체종교학과 인지종교학, 그리고 시스템종교학을 제시한다.⁹⁾ 문영빈의 연구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으로 인한 종교학의 새로운 과제를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이나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윤영훈은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2010)에서 미국 복음주의운동의 주요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와 매스미디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¹⁰⁾ 윤영훈에 의하면 그동안 복음주의 기독교는 언제나 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뉴미디어 생태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신선하고 설득력 있는 문화 콘텐츠의 예술성과 창작능력, 그리고 미디어 문화에 대한 보다 성숙한 비평 능력과 의식의 고양을 제안하였다.

김명찬은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2010)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모바일 디지털(SNS)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 예배의 세대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¹¹⁾ 김명찬에 의하면, 20대 이하 디지털문화에 노출된 세대

8)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 09): 191-228. 문영빈은 이후에도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2010)에서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세계에서의 종교적 체험의 속성을 “계시적 가상체험”으로 설명한다.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227-260.

9) Cf., Niklas Luhmann,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10)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81-105. Cf., Quentin J. Schultze,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4.

11)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

에게는 컨버전스 예배나 이머징 예배 양식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명찬은 찬양과 영상 중심의 감성 세대인 30-40대에게는 콘서트 예배와 멀티미디어 예배, 그리고 구도자 예배나 열린 예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하는 가상현실과 이를 극복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고원석은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2011)에서 발터 벤야민(W. Benjamin)과 마셜 맥루언(M. McLuhan), 빌렘 플루서(V. Flusser), 귄터 안더스(G. Anders), 그리고 니일 포스트먼(N. Postman)과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통찰에 근거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로서 가상현실에서 뛰놀기와 가능성의 감각, 그리고 미디어 숭배의 성찰을 연구하였다.¹²⁾ 고원석은 뉴미디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학습자의 일상적인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미디어 상상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기독교 내러티브와 드라마를 결합한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제안하였다. 고원석의 논문은 현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이주아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모바일 미디어를 중심으로”(2012)에서 현대 청소년 문화를 지배하는 모바일 미디어를 기독교 청소년 교육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¹³⁾ 하지만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 생태학적인 분석이나 기독교 설교 소통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민장배는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2016)에서 한국교회가 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사이버 강의,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앙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⁴⁾

이승진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2013)에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21C 한국사회 내의 기독교 메시지의 소통과 확

색”, 「신학과 실천」 24 (2010,09): 337-365. Cf., Rich Ling, 배진환 역,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2)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289-314. Cf., W. Benjamin,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44; V. Flusser,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90-91; N. Postman,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33.

13)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14)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48 (2016, 02):495-518.

산에 심각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첫째로 한국교회 안팎으로 설교 메시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설교 메시지에 행동-가치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설교자의 인격적인 진정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설교 메시지의 다양한 편향성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은 후속연구로 남겼다. 본 논문은 이 분야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응답하려는 한 가지 시도이다.

최근에 조성호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2015)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가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를 과거지향적인 연역법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을 요청하는 것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조성호의 연구는 맥루언과 월터 옹(Walter Ong)의 미디어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에 근거하여 미디어 문화와 종교의 관계, 미디어 문화와 기독교 영성의 관계, 그리고 미디어 문화와 영성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자발적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귀납법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과 범위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에 실천적인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 김병석은 “인공지능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2016)에서 인공지능(AI)이 현대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은 성경 내용에 대한 분석과 회중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를 기도를 통한 딥 스피릿(Deep spirit)의 영역 안에서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⁷⁾ 김병석의 논문은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글 답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비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기독교 목회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인 예배와 설교 사역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15)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2013년): 301-334; Harold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7; Alexander John Watso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313; Neil Postman,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1997), 20, 44.

16)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385-412.

17)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159-184.

이상과 같이 여러 신학자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의 효과적인 설교 전략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연구 과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뉴미디어 생태계의 변동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가 제시하는 이론신학과 목회현장의 실천을 통합하는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¹⁸⁾ 리차드 오스머가 제시하는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은 서술과 분석, 규범, 그리고 전략의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서술 단계는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감싸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자는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뉴미디어 생태계의 실상과 뉴미디어 생태계가 매개하는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매개된 현실의 파급력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어서 둘째 분석 단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기독교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둘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로 매개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가상현실, 그리고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상현실 속에서의 아우라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소통 양식에 미친 영향으로 사회적 권위 구조의 쇠퇴와 양극화의 심화,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인식론적인 경계선의 상실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셋째 규범 단계는 앞서 확인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기독교적인 복음의 확산과 소통을 위한 매체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뉴미디어의 가상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계승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규범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 전략 단계는,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파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첫째와 둘째 단계의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에 관한 서술과

18)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27-59.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제 35호 (2013, 05):64.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할 것이고, 다음의 후속 논문에서는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기초 위에서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소통에 관한 신학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그 규범을 실천할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III.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생태학적인 분석

1. 뉴미디어 생태계의 등장

최근 한국사회는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6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1위로 선정하였다.¹⁹⁾ ‘ICT 발전지수’는 ITU가 각 나라 국민들의 ICT 접근성과 ICT 이용도, 그리고 ICT 활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가별 ICT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덴마크에게 1위를 내주었다가 2015년에 다시 1위를 재탈환하였다. 한국은 세 가지 부문별 순위에서 ICT 접근성은 9위를, ICT 이용도는 4위를, 그리고 ICT 활용능력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세 가지 범주를 종합한 ICT 발전지수는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력 덕분에 오늘날 무선 인터넷은 현대인들에게 공기와 같은 필수재로 정착되었고, 인터넷이 모든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가시권에서 완전히 사라질 단계를 앞두고 있다.²⁰⁾ 2014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에릭 슈미트의 주장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시대가 도래하면 무선 인터넷 기술이 현대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 속에 전자 신경망처럼 장착되어, 마치 공기나 전기처럼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인터넷도 일상품화(Commoditization)하여 그 존재감을 현대인들이 더 이상 의식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²¹⁾

19)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환경을 토대로 지능정보사회 조기구현”, 「미래창조과학부」(2016년 11월 22일 보도자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2년 연속 1위”, <국가지표체계-ITU ICT 발전지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344.

20)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313-346. Klaus Schwab,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서울: 새로운 현재, 2016);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서울: 민음사, 2012).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력은 어떤 방식으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CPND로 집약된다. 정법근에 의하면 현대의 미디어는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인들 모두를 무한대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태계의 환경을 형성한다.²²⁾ 달리 말하자면 현대인은 CPND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 권혁인과 나운빈에 의하면, CPND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부 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써 “플랫폼을 기본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와 소비자의 디바이스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유통 거래를 추구하는 가치사슬체계”라고 한다.²³⁾

CPND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첫째 요소인 콘텐츠(contents)는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 자료들로서 텍스트와, 이미지, 뉴스, 웹페이지, 음원, 동영상, e-book 등등이 해당된다. 둘째로 플랫폼(platform)은 좁은 의미로는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제공, 유통하는 기술적인 기반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를 가리키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다음(daum)이나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처럼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체나 그러한 사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저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셋째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공급, 유통하는 플랫폼(저장소)을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통신사(SK telecom, KT, LG U+)들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각종 전자기기들(컴퓨터, 모바일 휴대폰 기기, 단말기)을 가리킨다. 이상의 네 가지 미디어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공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연결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융복합의 의사소통 연결망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는 학문적인 시도가 미디어 생태학이다.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체 과정을 생태계(ecosystem)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media ecosystem)는 전통적인 생물학적인 개념의 생태계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의사소통하는 인간과 소통을 위한 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사이의 소통 작용을 위한 일정한

21)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권/3호 No 594 (2015.2):29-30.

22)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23)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4 (2015.4): 51-59.

체계를 의미한다.²⁴⁾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소통 전반의 환경을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미디어 생태학이다. 그래서 이동후에 의하면, 미디어 생태학은 현대인들의 소통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CPND 전체를 소통의 환경으로 이해하고서 현대인들이 소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기술과 현대인들의 공생적인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학문이다.²⁵⁾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가 학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닐 포스트만이 1968년에 뉴욕대학교에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²⁶⁾ 하지만 이전부터 마샬 맥루언이나 그 이후 자크 엘룰(Jacques Ellul), 해럴드 이니스(Harold A. Innis),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 월터 옹(Walter Ong)과 같은 여러 학자들도 미디어 생태학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960년대부터 전자 미디어가 현대인들과 현대 문명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파장에 관하여 비평적인 탐구를 시작하였다.²⁷⁾

최근 10-20년 어간에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뉴미디어 생태계는 현대인의 삶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⁸⁾ 미디어 생태학자들이 뉴미디어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뉴미디어는 새로운 시공간(사이버스페이스)과 새로운 세계(가상현실)를 만들어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new media ecosystem) 환경은 현대인들에게 이전과 다른 시공간을 제시하며, 이전의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와의 만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2.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

미디어(media, 매체)의 어원은 ‘중재하다’나, ‘중간에 있다’, ‘가르다’, 혹은 ‘나누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mediare’에서 유래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태고 이래로 항상 뉴스와 소식을 빨리 듣기를 원한다.²⁹⁾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중요

24)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48-92;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4):3-18.

25)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2015):32-66.

26) Casey Man Kong Lum, 『미디어 생태학 사상』, 51ff.

27) Casey Man Kong Lum, 51ff.

28)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1-22, 381.

29) 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1702년 영국 윌리엄 왕의 사망 소식이 미 본토에 전해지는데 2개월 9일이 걸렸고, 1800년 조지 워싱턴 사망 소식이 미 북부 지역에 전달되는 데는 3주일이 걸

한 정보는 항상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세계로부터 직접 얻었다. 하지만 CPND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모든 뉴스나 정보를 뉴미디어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 속에서 얻는다. 21세기에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 정보통신 기술력 덕분에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속에서 무한대 분량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가 중립적으로 정보나 뉴스만을 전달하지 않고 소통 과정에서 그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가 뉴스나 정보 콘텐츠들을 빛의 속도로 전달하여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20세기 중반에 이전 문명사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전자 미디어들(라디오, TV)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샬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다’이며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혁신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라디오나 TV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디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라디오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 수용자가 전에 제공받지 않았던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함께 전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근대화 이전의 뉴스들은 수용자와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을 뿐, 두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관계맺도록 연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TV나 SNS를 통한 뉴스는 뉴스가 발생한 시공의 상황과 뉴스를 전달받는 수용자의 시공 상황을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하고 결합한다.

대표적인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언은 이러한 변화를 미디어 생태학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자가 인간의 인지구조에 미친 영향은 선형적 사고라고 한다.³⁰⁾ 하지만 20세기 초 전자혁명의 도래로부터 시작된 전자시대(electronic age), 또는 입체적인 시청각 미디어가 지배하는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입체감과 즉흥성, 그리고 현존성을 전달한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마샬 맥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확장’, 또는 ‘인간의 소통 감각(능력)의 확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샬 맥루언은 현대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만 국한하지 않고 현대의 모든 기술문명 전체를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고, (자동차와 기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책자나 신문은 인간의 눈을 통한 소통 능력의 확장, 라디오는 귀의 확장, 전기회로는 인간의 중추신경 체계의 확

린 반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은 사건 발생 30분 내에 전 미국인의 70%가 알게 됐다.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14.

30) Marsha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138-39.

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깃불은 밤에도 낮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소통) 시간의 확장이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인간 기억력의 확장이고, 인터넷은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통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또는 가상공간)과 그 속에 형성된 소통 공간의 위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또는 가상공간)는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스(space)의 합성어로서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가 매개하여 사람의 두뇌 속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구성된 또 다른 공간(또는 세상)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2년에 발표한 소설『뉴로맨서』(*Newromancer*)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³¹⁾ 깁슨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특정한 좌표값을 갖는 매트릭스(matrix, 모체 또는 기반)를 가리키며, 컴퓨터 사용자는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육체가 특정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컴퓨터 매트릭스 속으로 몰입되고 포획되어 그 속에서도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에서처럼 자유로운 인식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육체는 일정한 시공간의 좌표에 속박되어 있지만, 수 많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와 상대하는 정신은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며 그 매트릭스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거나 교감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깁슨이 1982년에 과학소설(SF, scientific fiction)『뉴로맨서』(*Newromancer*)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한 사이버스페이스는 그로부터 채 20년도 되지 못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경험할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자 프런티어 재단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립자인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는 1996년에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다.³²⁾ 이 선언문에서 존 페리 발로우는 기존의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에 위치한 일반 사회와 철저한 단절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뉴미디어 생태계를 통해서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와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³⁾

뉴미디어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컴퓨터나 무선

31) William Gibson,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맨서』 (서울: 황금가지, 2005).

32) 전문 참조(<https://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

33) 이연호, 조화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16.

인터넷을 매개로 형성된 공간(CMS, computer mediated-space)이고 핵심 기능이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가상공간은 곧 소통 공간(communication space)이다. 컴퓨터와 모바일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된 사이버스페이스는 인류에게 제 3의 새로운 시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의 전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도 그 속에서 의사소통과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리켜서 가상공간(virtual space)이나, 인공환경(artificial environment)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접촉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뉴스와 정보 콘텐츠들을 빛의 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virtual space)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며 교감하는 과정이나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3. 가상현실 속에서 매개된 상호작용

우리 인간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나누며 교감을 나누려면 그 양자의 중간에 미디어를 이용한다. 우리 인간은 중간의 미디어(매체)가 없이는 결코 타자나 사회,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없다. 소리를 듣더라도 음파의 진동을 전달할 공기 매질이 필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도 중간에 소통 매체가 활용된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를 통해서 소통하고, 뉴미디어 생태계가 형성하는 가상공간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과 소통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실재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과는 매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방식의 독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미디어 학자인 존 톰슨(John Thompson)에 의하면 현대의 매스 미디어의 독특성은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들의 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³⁴⁾ 첫째는 사람들이 소통 대상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다. 면대면 상호작용의 소통에서는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대상으로부터 전달받는 의미가 전부이다.

34) Anthony Giddens,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380-382.

그런데 편지나 전보, 또는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과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이 일어난다. 전화(나 최근의 문자)를 통한 소통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이지만, 풍부한 소통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상호작용과 다르다.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면대면 상호작용과 달리 매체를 통해서 전달 가능한 특정 정보나 사실들만 전달되며, 소통 방식도 매체에 의존하는 매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으로 진행된다.

존 톰슨이 주목하는 세번째 상호작용은 신문이나 TV, 또는 비디오와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의 소통에 참가하지만, 세번째 상호작용은 이전의 두 가지 상호작용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전의 두 상호 작용이 대화의 차원을 가진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독백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존 톰슨은 이를 가리켜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고 부른다.³⁵⁾

현대인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나 직접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혹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당사자의 시각으로 말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실시간 사건을 보도하는 TV 방송이나 무선 인터넷을 통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 형성된 가상공간 속에서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급력 있는 정보 콘텐츠를 얻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의 현실 세계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뉴미디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매개된 현실과 소통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존 톰슨이 주목하는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이다.

이런 이유로 미첼 스티븐슨(Mitchell Stephens)에 의하면,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낸 가상공간과 그 속의 가상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매개된 현실 세계'(mediated reality)에 살고 있다고 한다.³⁶⁾ 매개된 현실 세계는 물리적인 시공으로 구성된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르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이 일정 수준 제약을 받는 세계인 반면에 가상공간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무한대의 세상이다. 물론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쉽게 마련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공간 속에서 실명제와 익명성 보장 사이에 쉽게

35)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81.

36) Mitchell Stephens,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429;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의 주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 인격체라면, 가상공간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소통을 나누는 주체는 ‘아바타’(avatar)와 같은 사이버 자아(cyber self)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인들이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타인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바타이다. 아바타/avatar)의 어원은 힌두교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에서 유래되었다. 힌두 신화에서는 신이 현세를 방문하는 동안에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잠시 빌려서 나타나며 아바타는 이러한 일시적인 육체(temporary body)를 가리킨다. 21세기에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신하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며, 인터넷 가상공간 속의 3차원 영상이나 가상현실 게임, 또는 채팅에서 자신을 대신 표현하는 그래픽 아이콘으로 현실의 자아를 대신하는 사이버 자아이고 가상의 인격체이다.³⁷⁾

21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공 환경 속에서 면대면의 상호작용으로 소통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면대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가상의 인격체인 아바타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가상공간 속의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을 나누고 그 속의 사이버 자아들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생태계 환경 속에서 소통하는 참 자아(A)는 동일한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다른 참 자아(B)와 일정한 시공의 환경을 함께 공유하며 소통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는 사람은 그 가상세계 바깥의 참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를 대신하는 아바타, 곧 사이버 자아(A')가 또 다른 사이버 인격체들(B', C', D'...)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을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나눈다.³⁸⁾

그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안의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들끼리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으로 소통을 나눈다면 그러한 소통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소통일까? 혹은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헛된 소통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상공간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상공간 속의 아바타와 시뮬라크르

37)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38)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91-192, 173-213.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현실,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을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세계로부터 가상현실 세계로 이주시킨다. 뉴미디어 생태계가 물리적인 시공의 생태계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상공간으로 이주시키는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인간의 욕망을 속박하지 않고 그 욕망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탱크가 돌진하는 현대의 전쟁을 보도하는 실시간 뉴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전쟁의 현장감(sense of presence,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고 시청자 개개인이 전쟁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실재감(sense of reality)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은 현대의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확인하고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국방 장관이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향후 안보정세를 위하여 중요한 판단이나 깊이 있는 사고,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91년 1월 중동의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 주도의 34개국 다국적 연합군의 격퇴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 때 CNN 방송은 미국의 폭격기가 전함에서 발진하는 모습부터 시작하여 이라크군을 향한 폭격기의 폭격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방영하여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 전쟁”과 같은 느낌을 심어 주었다. 당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수 많은 시청자들이 CNN 방송에 몰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방송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자신이 처벌하는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감과 실재감이 때로는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8년 대한민국의 13대 국회는 제 5공화국 정부 시절 각종 권력형 비리 문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5공화국청문회”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의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도되었다. 홍석경에 의하면, 5공청문회 TV 중계방송은 “전국민을 간접적으로 청문회라는 의회 절차 속에 참여시키서 5공화국 시절에 억압되었던 것들을 욕하고 뺨아 내고 두들기고 탈신화했던 TV가 매개하는 한판 굿”으로 해석한다.³⁹⁾ 청문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홍석경에 의하면, 당시 5공청문회 TV중계방송은 5공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도시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부응하는 해독 구성체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2011년 중동 지역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역시 튀니지

39)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중산층”, 『문학과 사회』 2/2 (1989.05): 673-691.

청년의 분신자살이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이슬람 독재정권 하의 여러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기제로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⁴⁰⁾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현대인들에게 물리적인 생태계 환경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장감과 현존감을 제공하는 배경에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그 세계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이나 가상세계 접속자들에게 역사 현실의 생태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초현실의 세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학자인 장 보드리야르(Baudrillard)에 의하면, TV나 비디오와 같은 전자 매체는 시청자들에게 매체 없이 직접 눈으로 대면하는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지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초현실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구성한다.⁴¹⁾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TV와 같은 현대의 전파매체들은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초실제 세계(hyper reality world)를 만들고 이 초실제의 세계 안에서는 사람들의 실제 행위와 미디어의 프레임을 통해서 가공된 이미지들이 뒤섞이면서 구성된다. 장 보드리야르는 사람들이 실제세계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가상의 이미지들을 가리켜서 시뮬라크르(simulacre)라고 부른다. 시뮬라크르는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지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물, 또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공물이나 그런 대상의 이미지가 시뮬라크르(simulacre)이다.

2016년말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를 이기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주류 언론사의 예측을 깨고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가 한 편으로는 막말 파문으로 언론에 주목을 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몰락한 미국의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SNS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쪽은 단연 트럼프였다.⁴²⁾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 세계가 아니라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매개된 실재(mediated reality)와 가공된 시뮬라크르(simulacre) 이미지들이다.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 앞에 가상공간을 만들고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

40)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237-254.

41)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78.

42)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167-187.

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제들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을 가상 세계 속으로 유인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와 소통을 유도하거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미지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초현실의 이미지인 시뮬라크르와 매개된 상호작용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미디어 생태계의 매개된 실재와 비현실적인 시뮬라크르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물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21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함양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기독교적인 의사소통과 설교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⁴³⁾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다음에, 후속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독교 설교의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V.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소통 환경에 미친 영향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메시지의 발신자와 메시지, 미디어, 수신자, 그리고 소통 당사자가 공유하는 생태계 환경과 같은 여러 요소가 동원된다.⁴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설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과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다음 세 꼭지점의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그 세 꼭지점이란 현대인들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역사 현실 세계와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축하는 가상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다. 이 세 가지 꼭지점의 중앙에 위치한 목회자들은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의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에서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

43) 앞서 간략히 고찰한 바와 같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인들의 민주주의의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제공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Cf.,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168-206;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44) Michael Quicke,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Robert Stephen Reid,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의 쇠퇴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에 미친 심대한 영향은 일반 사회와 기독교 교회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권위 구조가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기독교 교회가 뉴미디어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고집한다면 뉴미디어 생태계는 당연히 기독교 교회에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웰즈(David Wells)는 20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이 점차 퇴조하는 원인을 교회가 의존해왔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⁴⁵⁾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과거 서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준 것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권력이었다고 한다. 전통이란 “한 세대가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과거에는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인본주의와 기술혁신, 그리고 상업주의의 등장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이전 세대가 축적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가정과 공교육의 역할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전통적인 권위 역시 무의미해지고 있다.⁴⁶⁾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와 신자 내면의 신앙의 상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신자 내면 속에 신앙으로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내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외부적인 네트워크가 동원되어야 한다.⁴⁷⁾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소통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내면적인 신앙을 외부적으로 인증해주고 확인해 주는 설득 메커니즘이 바로 설득력 구조이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외부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내면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도록 중재하는 연결고리를 가리켜서 ‘설득력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라고 한다.⁴⁸⁾ 근

45)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44-5.

46) 예를 들어 2105년 9월 28일부터 발효된 ‘김영란법’은 OECD 부패 지수 37위권 밖의 ‘부패공화국’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 사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으로는 공직사회나 교육계에 형성된 부정적인 감을관계가 청산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탱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도 함께 쇠락하고 있다.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469.

47) David Wells, 김재영 역 『신학실종』, 148.

대 이전 중세 시대에는 높다란 교회 건물이나 그 건물 안에서의 장엄한 예배 예전, 현실 사회와 연결된 강력한 설교 메시지, 그리고 교회 바깥의 기독교적인 사회 구조, 복음적인 법률 체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실제 거룩한 삶,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 체계와 같은 사회적인 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의 내면적인 신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설득력 구조’ 역할을 감당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현대인들은 내면의 신앙을 확보하거나 또는 판단에 기초한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가 쇠퇴하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설득력 기제와 의사소통의 구조는 무엇인가? 전통과 권위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여전히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결속해 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뉴미디어가 텔레비전 방송과 무선 인터넷이다.

데이비드 웰즈에 의하면 현대의 텔레비전이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은 다음 세 가지다.⁴⁹⁾ 첫째는 현대의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이 문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매개체 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기만을 추구하는 타인 지향적인 인간형을 만들어 낸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현대의 텔레비전은 과거에서부터, 외부 세계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변형된 내면 지향적 개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 구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TV 방송이 새로운 설득력 구조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쿡방(또는 먹방)과 같은 리얼리티 방송물의 증가이다. 20세기까지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하거나 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신체동력의 관점에서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공허의 시대에는 의미 있는 체험과 타인과의 공감을 위해서 식사 시간을 갖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의미 있는 식사와 같은 개인의 소비 생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TV나 인터넷의 먹방(또는 쿡방)이 소개하는 식생활 패턴을 그대

48) Peter L. Berg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45. Peter Berger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구조 상실은 세속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Peter Berger는 “사회 및 문화의 어떤 영역이 종교의 제도와 상징체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의 종교적인 제도나 상징체계가 효과적인 가치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Peter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35. Cf.,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39-65.

49) David Wells, 『신학실종』, 265.

로 모방하는 시청자들이 엄청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⁵⁰⁾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쿡방이라고도 한다. 2009년 1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후로 최근까지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음식을 먹는 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식당이 전 국민에게 홍보되어 수 많은 방문객이 쇠도한다거나, 방송에 소개된 음식 재료가 시장이나 식품 마켓에서 순식간에 동이 나기도 한다. 또 쿡방을 진행하는 셰프가 소개한 레시피는 전국민이 즉시로 그대로 따라 만들어 먹는 전국민의 획일화된 메뉴로 부상한다. 이렇게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은 TV의 리얼리티 쇼(ex., 먹방이나 쿡방)를 통해서 무슨 음식을 어떤 메뉴로 요리하여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서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

2.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

그렇다면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공간 속에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콘텐츠가 넘쳐난다. 뉴미디어 기술 덕분에 현대인은 이전 인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를 확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 이유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세계는 사람이 항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잠깐 보여주는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 창문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문은 현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창문이 아니라 그럴듯한 현실감이나 현장감, 또는 현존감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의 창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자아의 분신인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나 시뮬라크르와 상호작용을 즐기더라도, 자아는 결코 사이버 공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자아가 살아내야 하는 세계는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구성한 가상세계에 열광하고 인터넷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⁵¹⁾ 발터 벤야민(Walter

50)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51)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 Cf.,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깅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Benjamin, 1892-1940)에 의하면 근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과학기술이 예술의 영역에 적용되어 고유한 예술작품들을 거의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원래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의 고유한 생명력과 같은 아우라(aura)를 가지고 있다. 아우라는 라틴어로 공기나 공기의 독특한 향기를 의미하며 인간에게는 그 한 인격체를 둘러싸는 신비한 광채의 현상이나 또는 한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유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작용과 영향 전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예술작품에 대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는 수 없이 복제된 사본들 때문에 특정 작품 고유의 아우라(aura)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⁵²⁾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시뮬라크르에는 사물 고유의 현실감을 발산하는 아우라가 없다. 실제 현실 세계는 자아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은 겉으로 보자면 인터넷 공간 속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뮬라크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내면에 내재화된 실재감(sense of presence)이다. 오늘날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실재감과 기시감(既視感·데자뷰, déjà vu)을 얻을 수 있다.⁵³⁾

그런데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기시감, 현장감, 혹은 현존감은 중요한 차원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실재감이나 현장감은 그러한 시뮬라크르를 제공하는 미디어 권력의 수사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첼 스티븐슨에 의하면 “뉴스가 풍요해지면서 일어난 변화는 미디어를 통해 주장되는 세계(obtrusive world as announced)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unobtrusive world as is)가 서로 경쟁한다는 점이다.”⁵⁴⁾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실 세계의 실재와 사이버 공간 속의 왜곡된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개’에 관한 만화로 설명한다.⁵⁵⁾ 피터 스타이너(Peter Steiner)은 1993년 6월 5일자 미국의 주간잡지 ‘뉴욕커’(The New Yorker)에 게재한 카툰의 글로 인터넷 공간의 왜곡된 시뮬라크르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고발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개(dog)라는 사실을 모른다.”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에서는 개처럼 행동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미디어 권력의지에 의하여 조작된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의 환영만 떠돌

프로시딩」(2014, 11): 45-62;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52)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91-3.

53)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54) Mitchell Stephens, 『뉴스의 역사』, 440.

55)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392.

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도 모니터 앞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21세기 뉴미디어 생태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 상에서는 모두가 개(dog)이고 모두가 그 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⁵⁶⁾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시물라크르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대인들은 피터 스타이너의 예리한 통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 혹은앞으로도 소통이 진행되는 모든 공간에는 소통 당사자들의 권력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권력에 대한 비평의식이 없으면 소통 과정 전체가 권력 의지에 의하여 왜곡되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통 매체는 권력으로부터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 시물라크르 속에는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소통하려는 미디어 권력의 의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특정한 시공의 환경에 참여하는 참여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 시공 환경을 주도하고 소통을 장악하려는 권력 의지를 형성한다.⁵⁷⁾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가상 세계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서로 경쟁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권력이 집중된 정치계이다. 현대인들은 뉴미디어 생태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당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지도자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실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나 그 삶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뉴미디어의 가상세계가 제시하는 가공된 시물라크르가 그 지도자의 전체 모습이다.

문제는 CPND로 구성된 뉴미디어 생태계의 소통 네트워크가 점차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소통 참가자들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권력(권력자 개인이거나 권력집단)의 의지가 미디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겉으로는 소통 참여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 정신이 미디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대중이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왜곡된 시물라크르의 통제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실재 현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장감(또는 현존감, sense of presence)과 가상현실 속의 왜곡된 시물라크르로부터 얻는 현장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소통의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공존함으로 발생하는 현장감이요 실재감이다. 그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시공의 환경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다. 소통

56) <http://fritsahlefeldt.com/2016/06/07/on-the-internet-dog-drawing/>

57)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당사자가 특정한 시공의 고유한 물리적인 환경 속에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면대면 상호작용하여 나누는 소통 사건에서는 머릿 속에서 인식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 내용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 사이에 이상적으로는 소통의 일치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소통할 때의 자아가 느끼는 현장감과 실재감은 그 느낌이 지시하는 실제 시공의 소통 환경이나 소통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 속의 가상현실과 소통할 때는 자아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실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가상 공간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무관한 현장감이나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⁵⁸⁾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체험하는 현장감이나 현존감은 현실 세계에서의 지행합일이나 지행일치의 간격을 제대로 좁혀주지 못한다.⁵⁹⁾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의 이미지들이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뮬라크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가 증가할수록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거리감도 함께 증가한다.

3. 정보 무력감과 지행불일치

닐 포스트만에 의하면 TV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 미디어 시대 이전에는 정보 수용자 편에서의 정보-행동의 일치도가 매우 높아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정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동-가치(action-value)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이미지들이 무한대로 쏟아지자, 행동-가치가 배제된 정보로 변질되면서 정보 수용자의 실존적인 삶이나 실천적인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 무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⁶⁰⁾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이라는 유행가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초현실적인 기시감과 이로 인한 정보 무력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로 시작되는 썸은 ‘요즘 따라 내 꺼인듯 내 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니 꺼인 듯 니 꺼 아닌 니 꺼 같은 나’ 때문에 ‘헛갈려’하는 현대 청춘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이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싫어하지는

58) 현존감의 영역이나 범위를 좁히다면 가상현실의 현존감은 특정 주제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적인 윤리를 구현하는 거시적인 삶의 지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현존감의 부정적인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f.,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59)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 '공적 감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60) Neil Postman, 95-7.

자신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사랑과 결혼의 의무감은 현실 세계에서 일종의 롤모델로 존재하는 부모님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사랑과 결혼생활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부터 학습한 비현실적인 감정이 주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이리 저리 표류하는 왜곡된 시뮬라크르가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감정이나 결혼을 향한 열정이나 의무감은 그 자체로 한결같이 모호하고 자신의 인생과 결혼하려는 상대방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것 같은 확신도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제 세계가 제시하는 현존감과 가상공간의 시뮬라크르가 제시하는 환상적인 기시감이나 현존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뮬라크르의 환상이 때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능력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에 빠져드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소통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휴대전화와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한 김성도는 휴대전화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환상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휴대전화가 접근하도록 해 주는 세계가 완전한 객관성이 세계라는 환상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휴대전화가 제시하는 세계는 완전히 주관성으로 이뤄진 개인의 세계일뿐이다.”⁶¹⁾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시대가 열리면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생태계를 대체할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은 마치 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처럼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구성하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제시하는 가상세계와 그 세계에서 매개된 소통에 참여하는 사이버 자아, 그리고 조작된 시뮬라크르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 현실 세계를 대체하지 못하며, 뉴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감과 이질감 역시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V. 나가는 말

21세기 한국사회는 거대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전 국민이 CPND로 구성된 미디어 생태계속에서 무한대의 정보와 뉴스 콘텐츠들과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물리적인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보 콘텐츠들

61)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382.

이 제공하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을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걸어온 오랜 역사의 시간과 비교하면 최근 15-20년 어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먼저 뉴미디어 생태계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치사슬체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CPND의 가치사슬체계는 뉴스와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대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되 여기에 더하여 정보가 가지는 현장감과 현존감, 그리고 실재감까지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고 확산하는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은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신자들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안내하여 그 나라의 통치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는 뉴미디어 생태계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소통 구조에 미친 영향을 전통적인 권위 구조의 쇠퇴와 영적인 설득력 구조의 붕괴, 그리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양극화 심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서는 권위가 중요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는 전통적인 권위 구조와 설득력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현대인들의 설득력 기제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권위 구조나 설득력 구조를 따르지 않고 뉴미디어의 가치사슬체계를 채우고 있는 가공된 시뮬라크르 이미지들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뉴미디어 생태계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감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아니라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에 불과하며 그 속에서 교감을 나누는 인격체 역시 역사 현실을 살아가는 실재 인격체를 모방하는 사이버 자아인 아바타(avatar)이거나 그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의 이미지들인 시뮬라크르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의 괴리감이 점차 심화되고 정보 무력감도 더욱 깊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독교 설교의 전략은 무엇일까? 다음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모색할 차례이다.

[참고문헌]

- Benjamin, Walter. 최성만 역. 『발터 벤야민 선집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 Berger, Peter. *A Far Glory*. New York: Anchor Books, 1992.
- Berger, Peter.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역.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Casey Man Kong Lum. 이동후 역. 『미디어 생태학 사상』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8.
- Dempsey, Ron D., 김순일 역. 『성경만큼이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교회 밖 풍경』 서울: 요단, 2004.
- Fang, I.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Flusser, V. 김성재 역.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Gibson, William. *Newromancer*. 김창규 역. 『뉴로맨서』 서울: 황금가지, 2005.
- Giddens, Anthony. *Sociology*. 김미숙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Innis, Harold. *Empire and Communication* Toronto: Dundurn Press, 2007.
- Ling, Rich. *How Mobile Communication is Reshaping Social Cohesion*. 배진환 역.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Luhmann, Niklas. *The Reality of the Mass Media*. trans. Kathleen Cros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WPA, 2012.
- Postman, Neil. *Technopoly*. 김균 역.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서울: 궁리출판, 2009.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정탁영 공역. 『죽도록 즐기기』서울: 참미디어, 1997.
- Quicke, Michael. *360-Degree Preaching*. 이승진 역. 『전방위 설교』 서울: CLC, 2012.
- Reid, Robert Stephen. *The Four Voices of Preaching: Connecting Purpose and Identity Behind the Pulpit*.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6.
- Rifkin, Jeremy.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민음사, 2012.
- Schultze, Quentin J. *American Evangelicals and the Mass Media*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Schwab, Klaus.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Stephens, Mitchell. 이광재, 이인희 역.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Watson, Alexander John. *Marginal Man: The Dark Vision of Harold Inni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2006.
- Wells, David.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강내원. “시민의 매체 이용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 매체별 이용패턴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2010,9): 5-46.
- 고원석. “현대 미디어철학의 관점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장신논단』 41 (2011, 7): 289-314.
- 권혁인, 나운빈. “CPND 생태계 관점의 전자책 시장 활성화 요인 연구: 출판사 실무자 AHP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13/4 (2015,4): 51-59.
- 김명찬. “새로운 모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배의 세대별 대응 모색”. 『신학과 실천』24 (2010년 9월): 337-365.
-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예배 공동체 설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신학과 실천』 49 (2016, 5): 159-184.
- 김성도. 『호모 모빌리쿠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김승현 외 “공간, 미디어 및 권력: 새로운 이론틀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12): 82-121.
- 김영주 “신문산업의 위기와 사업다각화: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 진출 현황과 의미”. 『관훈저널』 95 (2005,6): 11-20.
- 김유석. “미디어 생태계의 평형상태를 위하여: 분해자로서의 소비자를 위하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4): 3-18.
-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5/1 (2015. 06.): 152-170.
- 문영빈 “정보미디어시대의 종교학의 새 지평: 매체학, 인지과학, 시스템이론의 창조적 융합”. 『종교연구』 52 (2008년 9월): 191-228.
- 문영빈. “뉴미디어, 종교체험, 예배: 가상체험의 매체신학적 조명”. 『기독교교육정보』 25 (2010, 4): 227-260.
- 민장배. “미디어를 통한 신앙 교육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48 (2016, 02): 495-518.
- 송종길. “매체별 신뢰도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연구: 기자와 수용자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 (2007,4): 180-202.
- 신광영.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57 (2012.02): 69-83.
- 신은화. “포르노그래피 중독과 치유”. 『인간연구』 33 (2017, 01): 171-204.

- 윤영훈. “복음주의 운동의 대중적 문화 미디어 필그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1 (2010, 4): 81-105.
- 윤태진. “정서적 참여와 실재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방식에 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23/2 (2011,12): 7-36.
-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존재론 연구』 30 (2012): 1-34.
- 이동후. “뉴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생태학의 지적 실천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29(5) (2015,9): 32-66.
-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2017,03): 313-346.
- 이승진.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설교 생태계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27 (2013): 301-334.
- 이연호, 조하순. 『가상현실 내에서의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이유섭.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하여”. 『한국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014, 11): 45-62.
- 이은선.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natality)의 교육학과 양명의 치량지(致良知) : 공적 감각(公的 感覺)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양명학』 18 (2007,07): 5-62.
-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sigforum』 (2011,12): 174-191.
- 이주아. “한국 청소년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10): 351-375.
-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과 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05): 167-187.
- 이형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통한 정보전달 시 뇌의 활성화와 현존감의 관계”. 『인지과학』 17/4 (2006,12): 357-373.
- 이호규. “주체형성 장치로서의 가상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모델: 르페브르와 푸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2010.06): 173-213.
- 인남식. “2011 아랍 정치변동의 성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4 (2011,12): 237-254.
- 정법근. “사물인터넷 시대의 C-P-N-D 생태계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7/3 (594) (2015,02): 29-30.
- 조성호. “현대 멀티미디어 문화의 특성과 기독교 영성의 상관관계 연구”. 『신학과 실천』 46 (2015, 9): 385-412.
-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6 (2001.05): 168-206.

-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 한재동. “통합과 귀납의 패러다임,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35 (2013, 05):43-88.
- 홍석경. “전환기 한국 방송의 이데올로기: 민주화, 시청률, 중산층”. 『문학과 사회』 2/2 (1989,05): 673-691.
- 황지태 외.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조성호 (서울신대)

I.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고 그에 따른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대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개념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모습에 머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제46회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정의한 후, Klaus Schwab이 같은 해에 이와 관련된 저술을 발행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2년 전에 처음 등장해서 현대사회의 전체 모습을 규정하는 일반명사로 정착된 신개념인 셈이다. 이런 짧은 역사를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 보편적인 공감대 속에 구성된 개념처럼 이야기하거나 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낙오자로 폄하하는 일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위험이 높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요구되지만, 정확한 설명의 결여 그리고 모호한 접근방식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올바른 정착은커녕 부담과 불안 심지어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위험소지만 다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불충분한 설명 또는 의도치 않은 불안 등에 주목하며 4차 산업혁명의 등장배경과 진행상황, 핵심 가치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떤 현실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주요 전환기마다 영성이 담당했던 주요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영성의 신학적 당위성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경제 환경의 등장이라는 안목에서 다루고 미디어 철학의 개념을 토대로 기독교 영성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방식에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서술할 것이다.

짧은 역사와 미완의 개념형성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이론 정립은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대동소이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내용에 공감하며 논

문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한 내용 정리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고 영성의 역할을 통해 기독교회가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 탐구에 집중했다. 비록 구체적인 훈련과 학습 과정의 개발이 이후의 작업을 통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기초 과정이 실천신학과 기독교 영성 분야의 발전은 물론 한국인들의 미래 지향적인 삶에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II. 펴는 글

1. 4차 산업혁명의 태동

어휘 자체가 전제하듯, 4차 산업혁명은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산업혁명들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흔히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 생산설비로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과 1870년 전기를 활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등장으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을 거쳐 1969년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와 자동차 생산체계에 기인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이전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¹⁾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현실과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실제와 가상을 결합하고 사물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출현을 뜻한다.²⁾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Klaus Schwab의 저서 역시 1~3차 산업혁명에 관한 유사한 요약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유비쿼터스³⁾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강력한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1)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초·중등 과학교육의 과제”, 한국교양교육학회,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3호(2017): 287.

2) 물론 이런 개념정리도 표면적인 특징들을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런 시대구분에 의해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경공업, 2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중공업,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학기술 또는 기계와 생명기술 등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물리적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 등이 극복되는 디지털 혁명의 극대화가 예상된다.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초·중등 과학교육의 과제”, 287.

3)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1988년 미국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제안하였고, 이후 일본에서 1999년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모든 곳에 컴퓨터 칩을 넣어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상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반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연결(네트워킹)돼 있는 IT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PDA나 휴대폰 단말기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종 사물과 연결하여 그 사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근거리, 원거리 무선 통신망 개념이 더욱 핵심 요소가 된다. 주윤훈, “유비쿼터스의 개념”, <유비강좌>(2003년 12월 7일 기사).

<http://www.yhj.pe.kr/ubi/lecture3.htm> (2018년 4월 7일 검색).

이런 내용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과거로부터 전래된 기계 기반 시스템의 한층 복잡하고 급격한 가속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경계가 빠르게 확장된다는 점이다.⁵⁾ 이런 급격한 변화 속도와 지평확장은 누구에게나 기회와 위기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며, 그 대상으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세계열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긴급함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 1~3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인간성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영토전쟁을 통한 제국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치기반 중심의 경제전쟁체제로 변경했고, 그로 인한 인간의 가치하락과 인간성 상실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 경우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사안의 긴급성은 높이고 있다.⁶⁾ 본 연구가 관심을 지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계문명 또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진화 또는 변화 등은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도 전제하지 않는 중립적 지위를 지니지만, 그로부터 야기되는 인간 의식과 행동 방식 등의 변화가 인류에게 직접적인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농경시기의 도래가 인간 사회에 종교적 요소들의 변화를 급진적으로 초래했던 것처럼, 기계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산업혁명시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인간 환경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 형성 등에도 큰 진화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음을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방향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이 일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이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 등의 주제들을 다루는 평가와 해석 분야인 것은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하는 구체적 방증이다.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앞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의 태동과 일반적으로 공감 가능한 개략적 요소들을 다뤘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연속성 유지를 통한 거시적 안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파악하는 방식과 고유한 비연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미시적 시각으로 동일한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는 까닭이다.

4)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25.

5) 진상기, 박영원,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2017): 32.

6) 주경철은 산업혁명을 단순하고 우연한 기술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인구와 농업생산력 그리고 에너지와 물자부족과 연계된 구조적 관점으로 파악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전에 농산물과 임산물을 근거로 생활하던 유기적 사회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물질을 통해 대두된 경제방식을 통한 비유기적 사회라는 점을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경철, “제4차 산업혁명 혁명인가 진화인가”, 대우재단, 『지식의 지평』 제23권(2017): 7.

1)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적(biological)

농업혁명이나 1-3차 산업혁명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위와 같은 3가지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 물리적 요소들은 과거 인간 노동력이 담당하던 부분을 무인 운송기구, 첨단 로봇, 신소재 개발 등이 대체한다는 의미로 기계를 통한 시스템 발달의 극대화를 상징한다. 이는 인간 사회에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증가를 뜻하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의 무분별한 양산이나 인격적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험 그리고 인류의 노동 기회 축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확대 등과 같은 악재들을 동시에 의미한다.⁷⁾ 그런 다양한 측면들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정체성 논쟁과 함께 인간 사회의 구성 원리와 방식에 근본적 의구심을 일으키는 부가 기능을 수행한다.⁸⁾

디지털 개발은 알파고⁹⁾에서 확인된 것처럼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조차 사물의 역할이 개입할 여지를 마련하고 고도의 센서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참여와 협업의 방식이 강조된다. 이런 일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해 야기된 플랫폼이 사람과 자산, 데이터를 다함께 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래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일상으로 정착되었다.¹⁰⁾ 디지털 세계의 등장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이 일상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 다른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체제와 품질 향상과 같은 파급효과는 물론 영토구분에 따른 국제관계 등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¹¹⁾

생물학적 특성은 인간 게놈(genome) 연구의 결과물과 장기(臟器) 개발이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개선이 나타난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의료 부분의 혁신적인 전환은 유전적 난치병의 극복은 물론 각 개인의 체질에 맞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7)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서울: 북카라반, 2017), 295.

8) Schwab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인간 사회에 심각한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Klaus Schwab,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156-159.

9) 알파고(AlphaGo)는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2015년 10월 판 후이(Fan Hui, 樊麾) 2단과의 5번 대결에서 모두 승리해 핸디캡(접바둑) 없이 호선(맞바둑)으로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긴 최초의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되었다. 2016년 3월에는 세계 최상위 수준급의 프로 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5번 공개 대국에서 4승 1패로 승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대국을 통해 인공지능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바둑계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는 창의적인 수와 관점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기원은 알파고가 정상의 프로기사 실력인 '입신'(入神)의 경지에 올랐다고 인정하고 '프로 명예 단증(9단)'을 수여했다. 2017년 5월에는 바둑 세계 랭킹 1위 프로 기사인 커제(柯洁) 9단과의 3번의 공개 대국과 중국 대표 5인과의 단체전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임을 다시 각인시켰다. "알파고", <위키백과>(2017년 12월 9일 기사). <https://ko.wikipedia.org/wiki/알파고> (2018년 4월 7일 검색).

10) Klaus Schwab,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2-43.

11) Klaus Schwab,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12-127; 131-139.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차원과 지역 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파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후나 가뭄 등의 한계를 해결하고 자연재해까지 극복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런 기대도 사회적 차별구조가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추론이기에 아직 요원한 희망사항이지만, 권력의 분배와 연동되어 삶의 질 상승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2) 운송수단의 발전과 지식 정보화 사회

이미 상당 부분 사람들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한 운송수단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arbara Kellerman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이전 시대에도 이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표현, 접속의 조합으로 상징되는 역사적 흐름이다.¹²⁾ 그와 같은 정보혁명의 결과 정보가 소수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는 폐쇄적 사회구조가 무너지고, 다수 민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종교와 정치 이념에 따라 비민주적 성향을 강하게 보였던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인 시민혁명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기득권의 붕괴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교류와 운송수단 발전이 삶의 전체로 확장되고, 진행과정의 빠르기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그를 통해 사람들의 삶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개연성이 높아지며 소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는 on-demand economic)¹³⁾는 미래의 이상이 아닌 현재의 일상으로 구현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졌다.¹⁴⁾ 활자신문의 발행이 미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되었고 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성화가 많은 국가들의 민주화에 불을 붙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운송수단과 정보교류의 확대가 정치와 경제는 물론 현대인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3) 노동가치 변화와 새로운 차별구조 등장

12) Barbara Kellerman, *The End of Leadership*, 이진원 역, 『리더십의 종말』 (서울: 씨앤아이북스, 2012), 61.

13) 공유경제는 1984년 하버드 대학교의 Martin Weitzman 교수에 의해 최초로 등장한 표현으로 물품을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회적 경제모델이며 물건 뿐 아니라 공간과 서비스까지 그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 극복수단으로 도용된 공유경제 개념이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의미의 모호함과 중산층 붕괴요소로 대두되면서 비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공유경제”, <Bloter>(2015년 11월 2일 기사).
<http://www.bloter.net/archives/242361> (2018년 4월 16일 검색).

14) Klaus Schwab,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42-43.

앞에서 언급한 변화들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인간 노동력의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을 포함한 저학력 계층의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전개될 전망이다.¹⁵⁾ 2012년 터키에서 열린 TED 강연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지구상의 직업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손재주나 협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면 현재 전문 직종에 속하는 직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았다.¹⁶⁾ 이 과정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저학력 계층이나 소외 계층은 전통적 의미의 노동자 지위를 상실하고, 필요에 의해 단기간 고용에 국한되는 임시 노동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즉 자본공급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각종 세금이나 노동 관련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개인들을 원하는 기간에 한정해서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시장의 패러다임이 정착되면, 노동시장의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노동자의 인권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계를 도와주는 방어기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비인간화의 비극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새로운 공동체 등장과 인간 생활의 편의 확대, 인간 생명의 연장과 질병 극복 등이 인간 생존의 미래를 밝히는 긍정 요소인 반면, 노동시장의 위축과 인권 약화 그리고 여성차별의 심화 등은 피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난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회구조의 모순과 병리적 편견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현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구조적 차별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예상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의 도래를 알리는 동시에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인간 문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지를 판명하는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학적 진단¹⁷⁾

15) 새로 창출될 일자리가 주로 남성들의 선호도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대량으로 실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직종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뜻한다. Klaus Schwab,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79.

16)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295.

17)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서술은 짧은 연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미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들 역시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상당 부분 현대사회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의 속도와 양상이 엄청날 것을 예언한 Schwab을 포함한 많은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 가능성에 공감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 사회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영산신학저널』 제42권(2017): 186-187.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을 3가지 정도로 분석한 앞의 내용은 주로 기술적이고 물리적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의 도래를 염려하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특정 연구 분야를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 평가가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 차원에서는 과연 어떤 위험을 예측할 필요가 있을까?

1) 도덕적 해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연락망을 구축한 후 실제 경제생활에 활용하는 방식은 분명 생활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사생활 보호에 치명적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도의 컴퓨터 기술을 지닌 해커들의 활동은 자칫 사생활 정보 유출이라는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인에 의한 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될 개연성을 지닌다.¹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폄하될 위험을 이미 언급했지만, 사생활 침해나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또는 마비 등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도덕적 혼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런 우려는 Google이나 Facebook, Apple과 같은 국제적 기업들의 독점적 시장 점유에 의해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훑어보는 것조차 힘든 방대한 데이터를 소유한 Google은 지적 재산권과 연관된 출판 및 저술, 번역 등에 연관된 소프트웨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기 회사에 대한 다수 사람들의 의존도를 큰 수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검색엔진 기능에 국한되던 초기와 달리, Google은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플랫폼의 역할로까지 발전하며 모든 지적 체계를 총괄하고 막강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Facebook 또한 갈수록 쌓여가는 가입자들의 정보와 활동내역을 통해 다양한 성향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으며 최근 대두된 것처럼 수집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닌다.¹⁹⁾ Apple도 유사한

18)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190.

19) 페이스북에 가입한 약 500만명의 정보가 미국과 유럽 및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뜻한다. 이 일로 Facebook은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미국과 영국, EU 등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미국 대통령선거와 같은 정치 분야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 등에 활용됨으로써 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 역시 소송에 집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배정원,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 전 세계로 확산…美·英·EU·캐나다 조사 착수”, <조선일보>(2018년 3월 21일 기사). <http://news.chosun.com/site/>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Apple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면 성능 자체를 자동적으로 하락시키는 운용체제를 사전 공지 없이 시행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들은 통상 새로 출고할 때 설계된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전력량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면 전화기 내부에 장착된 여러 소프트웨어들 역시 자동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 전화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로 이용했다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고도로 발전하는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도덕적 수준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기술 문명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그 수준 역시 과거에 비해 탁월하게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의 윤리성에 결함이 있다면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다수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고 소수 특권층의 불의한 권력을 강화시키는 기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인간성 추락과 하나님의 존엄성 파괴

삶의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변모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로 구체화될 거라는 기대는 비단 기독교 신학 차원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한 기계 문명의 여파는 인간에 의해 수행되던 많은 노동기회를 없애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실업률 증가는 물론 인간을 가격으로 평가되는 물질 만능주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직과 노동 시장 위축 그리고 노동 가치 폄하와 같은 현상들이 여성을 포함한 구조적 약자 계층에 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길 것이 자명하다는 점 역시 이 사안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기독교 신학, 특히 영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실천신학 영역은 노동 시장 위축 및 노동 가치 저하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 너머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유목문화로부터 출발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노동을 하나님의 신성의 핵심적 요소로 생각했고 그로부터 노동을 통한 재산의 증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 동시에 육체노동을 긍정하는 신학적 유연성을 유지했다.²¹⁾ 노동을 하나님의 신성과 직결시킨 명백한 상징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철

data/html_dir/2018/03/21/2018032103581.html (2018sus 3월 31일 검색).

20) 김동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성능 저하 실험해보니”, <오마이뉴스>(2018년 1월 6일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2417 (2018년 3월 31일 검색).

21) 조성호, “종교개혁 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 57권(2017): 113.

저한 준수이다. 안식일 제정은 계층과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신학적 명제를 실제 삶으로 구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²²⁾ 이와 같은 신학전통에 따라 다양한 시대의 수도 공동체들과 종교개혁전통은 노동을 단순히 생존수단으로 여기는 피상적 분석을 탈피하였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영성훈련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²³⁾

노동과 영성의 상호관계를 필수적 신학요소로 다룬 시각은 현대 가톨릭교회도 동일하다. 교종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을 인간의 존엄성 확보의 수단인 동시에 고통의 발생 원인이라고 규정한 후 교회의 사명이 노동의 본래 가치를 복구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음을 천명했다.²⁴⁾ 노동에 관한 마르크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은 노동이 단순히 개인의 존엄성 회복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사회정의의 실현 분열된 국가 간의 재통합을 유도함으로써 인간을 수단에서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매개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다.²⁵⁾ 미국 보스턴 대학교 영성학 교수이자 가톨릭 신자인 Wolfteich도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과 노동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요 신학 주제로 다룬다. 그는 20세기 후반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톨릭 평신도들의 변화가 자신들의 일상이 지닌 영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성직자들에게만 부여되던 일방적인 영성의 영역을 평범한 노동과 직업의 공간으로 전환시킨 신학적 자신감의 결론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²⁶⁾

이런 일련의 역사들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인간 노동은 경제적 자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성에 처음부터 노동은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즉 성경과 교회 전통에 근간을 둔 기독교회는 어떤 차별과 편견도 인간의 노동 체계에 유입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내세우며, 이를 영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현실 속에 펼칠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노동 기회 상실과 차별구조의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그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윤리 차원에 국한되지 않은 신학적 인간론 해체를 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된 노동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다.

22) Walter Bruggemann,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박규태 역,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6), 88.

23) 조성호, “종교개혁 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115-121.

24) John Paul II, *On Human Work*, (Boston, MA: Pauline Books, 1981), 6-7.

25) 조성호, “노동과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의 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 『신학과 선교』 제44권 (2014): 95-96.

26) Clair E. Wolfteich, *American Catholic through the Twentieth Century: Spirituality, Lay Experience, and Public Life*, (New York: A Crossroad Book, 2001), 50-51.

거듭 밝히지만 노동이 인간 생존의 기본 사항인 것은 맞지만, 기독교 영성 범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독교 영성과 본질적인 연관성을 지니며 기독교 영성은 그런 문제에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할 분명한 책임을 지닌다.

4. 경제구조의 변화와 영성²⁷⁾

이론적 토대에 바탕을 둔 연역적 방식이나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귀납법 방식으로 분석된 기독교 영성 연구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과제들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상호관계 정립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기독교 영성의 연구자들이 개략적으로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작성한 후, 그로부터 상이한 내용들과의 관계설정을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방법론을 꾸준히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인물과 시대, 개별 주제와 영성훈련방식 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의 부침을 겪으면서 영성의 기본 정의에 합당한 내용으로 적절히 정리된 자신들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영성을 상수로 설정하고 다른 주제를 변수로 객체화하는 방식 대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를 상수로 설정하는 역할변화를 시도한다. 즉 영성의 고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 다른 과제들을 통제하는 획일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영성이 시대적 급변을 향한 반응의 결과라는 인식으로 전환한 후 그런 영성의 사회적 기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1) 수도생활

흔히 기독교 영성의 역사적 근원으로 순교와 수도생활을 논할 때, 다소 순수하고 낭만적 선입견을 지니는 성향이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고도의 기술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이뤄진 순교와 수도생활은 목가적 분위

27)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을 다룬 많은 학술논문들의 논리구성은 거의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요소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로부터 연구자 본인의 특정 연구 분야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리 전개방식에서의 이런 유사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가 아직 신생 분야라는 특징을 지닌 까닭이기도 하고 이전 시대에 비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과연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한 탓도 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 내용들은 이미 일상으로 들어온 지 오래 경과된 경험들이며, 젊은 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과 별도로 자신들의 삶 속에 다양한 변화들을 익숙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개념 자체의 모호함과 연구기간의 부족 등으로부터 야기된 이런 난제들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기독교 영성의 특정 요건을 4차 산업혁명에 무의미하게 덧붙이는 방법론을 지양하고 기독교 역사가 급변하는 시기마다 중요한 변화와 개혁의 미디어 역할을 담당했던 영성의 사회적 기능에 집중한다.

기를 연상시키며 향수를 자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교를 야기한 박해시기 이후 역사 전면에 등장한 수도생활은 단순히 기도와 영성훈련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유대교와 헬레니즘 그리고 라틴 문화의 이상과 초기 기독교의 핵심가치들을 창조적으로 융합시킨 놀라운 사건이었다.²⁸⁾ 수도생활은 초기 교회를 향한 강렬한 기억을 근간으로 금욕적 삶과 세속 사회로부터 분리된 모습을 취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이상적 생활을 추구했지만,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이 결혼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뜻하지 않았다.²⁹⁾ 이는 수도생활이 지닌 신학적 의미를 단편적인 시각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수도생활의 발전과정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에 신속히 적응한 실례로 제시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수도생활이 내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기재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문화 창조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음을 증명하는 요소는 수도생활이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도생활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기후와 생활양식, 영적 전통들과 결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³⁰⁾ 이 과정에서 수도생활은 기존 문화와의 결합 차원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창달의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우선 수도생활은 공동체 내부의 성원들에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공했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³¹⁾ 신학적이고 영적 차원 뿐 아니라 수

28)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방성규·염성욱 공역,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 신비주의의 토대 그 기원부터 5세기까지』(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211.

29) 물론 라틴 문화가 순결을 강조하며 결혼 대신 독신을 장려하는 성향을 지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향을 뜻한다. Jordan Aumann,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이흥근·이영희 공역,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7), 58-59.

30) 이집트만 해도 북부와 남부지역의 수도생활이 매우 다른 형태로 형성되었다. 북부지역이 외부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산재한 동굴과 움막을 활용한 반면 남부지역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에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우라(Laura)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생활은 이집트 북부와 남부의 양식을 결합한 모습을 띠었으며, 공동생활을 통해 수련기간을 거친 후 라우라에 들어가 독수도자로 지내는 과정을 밟았다. 날씨와 종교성이 강렬했던 시리아는 기둥 위에 올라가 수도생활을 하는 주상 수도양식을 포함한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지성이 고도로 발전했던 북아프리카는 평신도 생활을 병행하며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지속적 봉사와 교육을 강조하는 수도생활의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로마에서는 당시 로마가 차지한 사회적 위상답게 주로 사목활동에 주력하는 수도생활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런 사실들은 수도생활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고 주변 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흔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교회는 물론 세속 사회의 문화를 변모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개연성을 확인시켜준다. Luc Bresard, *Monastic Spirituality*, 허성석 역, 『수도 영성의 기원』(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15), 40-52.

도생활은 경제구조를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는데, 안토니 이후 공동체 형태로 전환한 수도생활의 등장은 물론 중세에 들어서 새롭게 결성된 수도단체들은 자신들의 거점 주변에 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했기 때문이다.³²⁾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오늘날과 같은 산업혁명으로 명명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린 기독교 영성의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 영성이 수행한 적극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 정황은 심리적 불안과 염려를 자극하지만, 영성은 그런 사람들의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효율적인 방법론인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발전된 문화로 나갈 여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까닭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 기회의 감소와 인간 존엄성 약화 등을 염려하는 현 시점에서 영성은 인공지능이나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의 문제에 다시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작용한 공산이 크며,³³⁾ 앞으로 영성은 다양한 연구주제로 지평을 확장하면서 미래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편할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2) 종교개혁

-
- 31) 기독교 수도생활의 원조로 알려진 성 안토니의 생애를 기록한 글에는 그가 모든 재산을 마태복음 19:21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생활에 전념한 기록이 나온다. 이는 저자인 아타나시우스가 기독교인의 이상적인 정체성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음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인 동시에 세속 사회에서 유행하던 영웅전에 필적하는 기독교 영웅의 모델을 제시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Athanasius, *The Life of Anthony*, 엄성욱 역, 『성 안토니의 생애』(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9), 57-60.
- 32) 물론 특정 수도공동체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노동을 회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도생활의 기원으로 알려진 파코미우스 수도회나 중세 시토 수도회 등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황무지 개간을 통한 농경지 확보 및 새로운 농사기술 개발 그리고 도시형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등을 이루었다는 기록은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평등을 일궈낸 적극적 현상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성호, “사막 수도자들의 영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제39권(2016): 187-188.
- 33) 김외식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영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배경들 중 하나로 산업혁명의 결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된 사회적 현상을 지적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이성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교회의 소외 등과 맞물리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붕괴되고 교회를 통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보존과 유지 가능성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문화적 각성이 야기되고,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는 회중들의 영적 갈망이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는 논리적 분석을 연상시킨다. 결국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새로운 세계 문화와 그로 인한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 등이 영성을 신학의 중앙으로 인도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김외식, “실천신학에서 본 영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권 1호(1988): 177.

종교개혁을 단순히 영성과 교리 또는 교회제도의 개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의 발로이다. 종교개혁은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속한 중세의 문화를 마감하고 새로운 경제구조와 그로 인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한 사회개혁이며 경제혁명의 차원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³⁴⁾ 이는 신대륙 발견으로 인한 기존 경제 질서의 해체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했고 그와 더불어 과거 중세 기독교 중심의 신앙 이해는 더 이상 효용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내용으로 전락한 사실에 기인한다.³⁵⁾ 물론 종교개혁은 금속활자 발명으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부산물이라는 주장도 산업혁명과 영성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뒷받침하지만, 전달되는 미디어의 형식이 전달내용 즉 메시지를 결정한다는 측면 역시 종교개혁의 발발이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와 필수불가결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³⁶⁾

아울러 영성의 변화가 국가의 존재양상을 바꾸어 놓고 그를 통해 중세시대까지 유럽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세계관을 변경시킨 사실은 McGrath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주로 죄와 부패의 온상 정도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도시 이미지와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 구현 장소로 수도원이 아닌 도시를 제시하였다.³⁷⁾ 이에 따라 도시에서 진행되는 종교개혁의 영성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그릇된 분리의식을 해결하는 신선한 차원의 활력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칼빈이 그가 거주하던 제네바의 상황에서 자신을 따르던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과 직업을 예정론과 밀접하게 연결시킨 것처럼,³⁸⁾ 종교개혁은 이를 주도하던 개혁자들의 독특한 경제 환경이 중요한 영적 원리로 활용되었다. 후일 Max Weber는 아예 현대 사회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기독교 윤리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하거나 고대 이스라엘의 유목문화를 구약의 야훼 신앙과 연결하면서 산업의 구

34) 조성호, “종교개혁 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117.

35)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권 2호(2011): 286.

36) 기술문명의 발전을 통한 미디어 기술의 진보가 사람들의 정신적인 형식을 채우는 사상적 내용을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는 주장은 Marshall McLuhan이 강조하는 미디어 철학 또는 미디어 문화의 대표적인 명제이다. 예를 들어 운송기술의 발달이 운송되는 물품의 목록을 변경시켜 과거에 존재하던 교역물품과 다른 새로운 생산물의 교역으로 이어지듯, 기독교 역시 금속활자의 발명은 물론 중세시대의 경제체제가 마감되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더 넓은 경제지역의 등장으로 인해 이질적인 영성의 구조와 형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혁명이 새로운 단계로 진보할수록 오히려 영성은 환골탈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런 사실은 수도생활의 발달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더 현대사회와 가까운 종교개혁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1-32.

37) Alister McGrath,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 좋은 씨앗2005), 194-195.

38) 이은선,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윤리”, 『한국 개혁신학 논문집』 제6권(1999): 145.

조와 환경이 내면의 영성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일면이 16세기 이후 등장한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었다. 정치적으로 공적 자원인 사회복지가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의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공동 복지와 양질의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³⁹⁾ 결국 질병과 전쟁 등으로 남성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고용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 현상들은 작금의 4차 산업혁명이 보이는 특징과 매우 유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발달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복지 개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는 연속적 사안들은 영성을 매개로 4차 산업혁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좋은 실례로 볼 수 있다.

3)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이 경제발전단계와 직결된다는 분석은 그것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여부를 떠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이해되고 있다.⁴⁰⁾ 비록 군사독재 하에 이루어진 불행한 측면이 최근 집중 부각되고 그로 인한 한국교회의 부정적 요소 역시 신랄한 반성의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물질적인 빈곤으로 고통당하던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영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런 논리적 전개과정은 현세의 산업구조 및 경제발달 단계를 내면 영성과 연결시키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민중 신학 또는 진보신학자들의 입장은 비록 방향은 다르지만 고용 및 급여와 관련된 인간의 경제 환경이 기독교 영성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지닌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⁴¹⁾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개발논리가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의 축복 조건으로 활성화한 반면, 그에 반대하는 진영의 신학적 논리 전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에게 뒤편으로써 빈부의 격차 및 사회적 양극화에 토대를 둔 차별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⁴²⁾ 양자는 의식주

39)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영향을 거친 후 근대적인 학문적 사고의 개방성을 접한 당시 사회는 기존의 세계관과 위계질서 대신 다원적인 영성과 개혁 성향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런 의식 변화가 도시와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강화로 제도화되었다. 국가와 도시가 소속 구성원들의 수준 높은 삶 구현에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기회 상실 및 여성 인력의 상대적 빈곤과 직결된 사항이었으며 이를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비교하면 인간 이해에 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홍주민, “16세기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마틴 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 논총』 제 17권 2호(2007): 226.

40) 강근환, 『한국교회의 형성과 그 요인의 역사적 분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06.

41) 강근환, 『한국교회의 형성과 그 요인의 역사적 분석』, 107.

42) 배덕만 교수는 이런 현상을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특성으로 분류하면서 교회 내의 신학적, 신앙

와 연계된 인간의 실존적 삶이 영성과 필연적으로 연관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황을 기독교 영성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공히 제공하는 셈이다.⁴³⁾ 즉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회의 역사 역시 경제변화와 영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증인으로 활용될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기독교 영성의 지평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역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된다.⁴⁴⁾

III. 나가는 글

급작스럽게 현대인들의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명확한 개념과 범위조차 통일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현실 깊숙이 들어온 여러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경이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대중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특히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과 기술문명은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폄훼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기독교 영성은 어떤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 접근 자체가 가능한 시대인지에 관한 논쟁이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진행된 지난 역사들은 그런 염려가 기우임을 증명하며, 영성이야말로 당면과제들을 논하기에 가장 적절한 창구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 말은 영성에 남다른 특권

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한국사회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 중이라고 진단했다. 극단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기독교 신앙이 경제발전과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언제나 발생하는 주변 경제 여건을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해석하고 변증하는 작업을 실시했음을 뜻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역시 영성을 포함하여 종전과 다른 새로운 신학적 작업을 동반할 것을 예상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배덕만, “한국교회의 허와 실, 근본주의”, 「기독교사상」 제11호(2011): 55.

43) 이런 대응방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주의 영성조차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새로운 변화에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답신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실상 근본주의는 세속화나 다원주의 자체를 거부한 형태가 아니라, 남다른 방식으로 대처한 방법론의 다양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등으로 구분되는 현대교회들의 성향 역시 본질적으로는 변화 중인 주변 환경에 대한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뿐 변화에 응답할 신학적 책임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정재영, “종교 근본주의의 개념과 역학”, 「기독교사상」 제11호(2011): 42.

44) 베네딕트 수도회의 유명한 명제인 ‘Labore Est Orare’(노동은 기도다)는 노동의 기회 상실과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또한 종교 개혁이 진행되며 나타난 정부와 교회에 의한 사회복지 역시 동일한 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경제개발과 맞물린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폐해는 세속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문제를 영성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한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기복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며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하는 존재론적 과정이며 영성훈련은 신자들의 활용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삶의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관상적인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파괴나 노동의 가치 하락 같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는 영성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며 영성 본래 가치가 수준 높은 해석과 실천적인 훈련방안을 통해 발현될 당위성을 요구한다.

초기 기독교회가 유대교 예언과 묵시사상, 플라톤 및 신플라톤주의 철학, 라틴 문화를 엮어 기독교회의 고유한 문화로 승화시켰듯,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요소들은 기독교 영성의 가치들과 결부되어 창의적인 영성훈련과 교훈으로 재정립될 당위성이 있다. 영성의 구성요소는 분리와 단절이 아니라 융합과 창조이며, 이전과 다른 문명과 생존 환경을 향한 대응은 영성의 고유하고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제 관건은 시대마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전례처럼, 4차 산업혁명을 맞는 현대교회의 영성훈련을 위한 실제 방법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기도와 예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론이 한 장소에 동일하게 모이는 공동체 방식의 거주방식에 근간을 두었다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이동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플랫폼을 전제한다. 이런 생활양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영혼에 내재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교회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근환. 『한국교회의 형성과 그 요인의 역사적 분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김성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론의 방향”. 『영산신학저널』 제42권(2017): 183-230.
- 김외식, “실천신학에서 본 영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권 1호(1988): 174-189.
- 배덕만. “한국교회의 허와 실, 근본주의”. 『기독교사상』 제11호(2011): 50-60.
- 배정원.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 전 세계로 확산…美·英·EU·캐나다 조사 착수”. <조선일보>(2018년 3월 21일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3581.html (2018sus 3월 31일 검색).
- 이성규. “공유경제”, <Bloter>(2015년 11월 2일 기사). <http://www.bloter.net/archives/242361> (2018년 4월 16일 검색).
- 이은선.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윤리”. 『한국 개혁신학 논문집』 제6권(1999): 137-164.
- 이종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서울: 북카라반, 2017.
- 정재영. “종교 근본주의의 개념과 역학”. 『기독교사상』 제11호(2011): 40-49.
- 조성호. “노동과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의 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 『신학과 선교』 제44권(2014): 83-118.
- “종교개혁 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신학과 실

- 천」 제57권(2017): 109-132.
- “사막 수도자들의 영성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제39권(2016): 178-205.
- 조한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초·중등 과학교육의 과제”. 한국교양교육학회. 「초등과학교육」 제36권 제3호(2017): 286-301.
- 주경철, “제4차 산업혁명 혁명인가 진화인가”, 대우재단, 「지식의 지평」 제23권(2017): 1-14.
- 주윤훈, “유비쿼터스의 개념”, <유비강좌>(2003년 12월 7일 기사).
<http://www.yhj.pe.kr/ubi/lecture3.htm> (2018년 4월 7일 검색).
- 진상기, 박영원.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2017): 31-58.
- 홍주민. “16세기유럽 사회복지 형성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마틴 루터와 요한네스 칼빈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 논총」 제17권 2호(2007): 221-253.
- 황의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신앙과 학문」 제16권 2호(2011): 285-312.
- Athanasius. *The Life of Anthony*. 엄성욱 역. 『성 안토니의 생애』.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9.
- Aumann, Jordan. *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이흥근 역.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Bresard, Luc. *Monastic Spirituality*. 허성석 역. 『수도 영성의 기원』.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Bruggemann, Walter.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박규태 역.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6.
- John Paul II. *On Human Work*. Boston, MA: Pauline Books, 1981.
- Kellerman, Barbara. *The End of Leadership*. 이진원 역. 『리더십의 종말』. 서울: 씨앤아이북스, 2012.
-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 신비주의의 토대 그 기원부터 5세기까지』. 방성규·엄성욱 공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0.
- McGrath, Alistair. *Roots that Refresh*. 박규태 역.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서울: 좋은씨앗, 2006.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 Wolfteich, E. Clair. *American Catholic through the Twentieth Century: Spirituality, Lay Experience, and Public Life*. New York: A Crossroad Book, 2001.
- “알파고”. <위키백과>(2017년 12월 9일 기사). <https://ko.wikipedia.org/wiki/알파고>. 2018년 4월 7일 검색.

[논평1]

조성호 박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조성헌 (개신대)

들어가는 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화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산업혁명의 영향을 통해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발맞추어 발빠르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임박하였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본 논문의 주제는 매우 적절하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과 이해, 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그리고 노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그에 따른 기독교 영성의 역할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논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사생활 침범, 자유 의지의 박탈 등)을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바이다.

논문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서 첫째는 4차 산업혁명의 태동과 특징들을 정리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둘째는 산업혁명과 같은 전환시기에 나타나는 영성의 주요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영성과 4차 산업혁명의 관계를 설립하고자 한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특히 노동과 경제적 측면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의 가치와 경제적 부흥이 그 시대의 기독교 영성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 현실과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실제와 가상을 결합하고 사물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출현”(2)으로 정의한다. 얼핏 들으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성과 인간 가치의 하락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기독교 신학 차원에서 예측한다.¹⁾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노동 기

1) 즉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면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범내지 컴퓨터 해킹, 또는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도덕적 문제들이 생겨난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활용으로 인해 노동 시장의 위축이 초래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 하락, 그리고 노동의 영성을 박탈당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인간성의 추락과 하나님의 존엄성 파괴를 암시한다.

회 상실과 차별구조의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그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윤리 차원에 국한되지 않은 신학적 인간론 해체를 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된 노동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다”(7)고 주장한다.

논문 후반부에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시대적 급변과 영성의 상호관계를 설립하기 위해 과거의 사회적 급변과 영성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영성의 사회적 기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8)에 도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수도생활과 종교개혁이라는 두가지 기독교 영성의 현상으로 증명한다. “수도생활이 내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기재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문화 창조를 가능케 한 원동력”(8)이었던 것과 종교개혁은 “중세의 문화를 마감하고 새로운 경제구조와 그로 인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한 사회개혁이며 경제혁명의 차원을 동시에 지닌”(10) 것으로 산업혁명과 영성,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영성을 연결시키고 있다.

끝으로 위 주장을 한국에 적용하면서 197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한국의 경제 부흥을 연관시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회의 역사 역시 경제변화와 영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증인으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기독교 영성의 지평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역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논문에 대한 평가

논문이 가지는 몇가지 강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2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현상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그에 대한 모호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기독교 영성이라는 접근으로 조명하여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통적인 노동의 정의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 아닌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노동가치의 하락의 가능성을 기독교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논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논문 제목이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이기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이란 개념의 정의가 모두 설립되어야 한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개념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모습에 머물고'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신 4차 산업혁명의 발단과 발전 방향, 그리고 분명한 특징들을 서술하였다.²⁾ 반면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성이라는 명칭과 개념이 비기독교 학문에서도 난무하는 가운데 기독교 영성이란 개념은 독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기에 저자가 의도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절실하다.

둘째, 논문 제목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기독교 영성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방안 발전의 필요에 호소하며 글이 마무리 되었다. 물론 이 주제는 아직 태동 시기에 있고 과연 기독교 영성으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현 주소에서 저자의 연구를 통해 예상 가능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들의 부재가 아쉽다. 나가는 글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듯 했는데 제목에 알맞게 더욱 심층 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나가는 글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기독교 영성의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저자와 동의하는 바이다. 이 논문을 통해 그 어려운 과제를 알리고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대화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한국 교회가 모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첫째,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변화를 동반하고 둘째, 운송수단과 지식 정보의...

[논평2]

조성호 박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황빈 (강성교회)

1. 들어가는 글

최근 들어 영성형성, 영성운동, 영성훈련, 영성신학 등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신학교 강의실, 또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 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전반에 걸쳐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 저변의 확대와 연구 성과물의 상당한 축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면 뭔가 숭고하고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현실도피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본 논평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와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경우 영성을 매우 현실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융합과 창조’의 역동적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하고 아직 완전하고 분명하게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우리 현대인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여, 논문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2. 펴는 글

저자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과 특징을 다룬 후 이에 대한 신학적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영성의 관계에 대해 진술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론적 토대에 바탕을 둔 연역적 방식”보다는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귀납적 방식으로”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는 방식이 “꾸준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방법을 본 논문에 적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영성을 상수로 설정하는 대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를 상수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근거로 저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급변을 향한 반응의 결과”라는 자신(을 비롯한 영성학자들)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논평자는 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읽게 되었다. 논문의 전반부(4차 산업혁명의 태동, 특징, 신학적 진단)에

대해서는 다른 논평자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본 논평자가 보기에 이 후반부 부분이야말로 저자가 주장하려는 핵심이 담긴 대목이라 믿었기 때문이다.³⁾

저자는 수도생활, 종교개혁,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 등 세 가지 시대를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가 이 세 가지의 시대를 택한 근거는 아마도 저자가 보기에 이 세 시대야말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이 겪고 있는 급변의 상황,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역시 여기 언급한 세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시기라는 저자의 인식이 깔려 있다. 저자는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가의 원인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인간성 추락, 하나님의 존엄성 파괴 등과 같은 폐해를 지목하였다.

(1) 저자가 주목한 첫 번째 사례는 “수도생활”이다. 저자에 따르면, 수도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순수하고 낭만적 선입견”과는 달리 사실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와 영성훈련의 방식에 머물지 않고, 유대교와 헬레니즘 그리고 라틴 문화의 이상과 초기 기독교의 핵심가치들을 창조적으로 융합시킨 놀라운 사건”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에 신속히 적응한 실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집트 지역에서 시작된 수도생활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기후와 생활양식, 영적 전통들과 결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으며 “공동체 내부의 성원들에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공했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원 안에 갇혀 은둔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원의 영성의 진면목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울타리 밖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서 수도원 영성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된 환경조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창조와 융합의 역동적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기회의 감소와 인간 존엄성 약화 등이 염려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오히려 “인간 영혼의 문제에 다시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2)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독교 영성 운동의 또 다른 시기로 저자는 “종교개혁”을 꼽고 있다. 저자는 “신대륙 발견으로 인한 기존 경제 질서의 해체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했고 그와 더불어 과거 중세 기독교 중심의 신앙 이해

3)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총신대 박현신 박사가 본 학회 제34회 정기학술대회(2017년 11월 18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도전에 대한 기독교의 응전: AI(인공지능)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을 참고할 수 있다.

는 더 이상 효용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황의서(2011)의 글을 인용하면서, “종교개혁의 발발이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와 필수불가결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영성의 본질 구현 장소로 수도원이 아닌 도시를 제시”하였다는 Alister McGrath(2005)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저자는 칼빈 역시 제네바에서 활약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그에 덧붙여 “정치적으로 공적 자원인 사회복지가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의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공동 복지와 양질의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는 홍주민(2007)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의 영성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논증하고 있다. 저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었던 “질병과 전쟁 등으로 남성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고용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 현상”에 주목한 후, 이와 유사한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찾아올 것이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운동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비록 앞 두 시기에 비해 저자가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고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저자가 주목한 또 다른 시대 상황은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이다.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즉 “물질적인 빈곤으로 고통당하던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영성”을 취한 보수적 진영과, “빈부의 격차 및 사회적 양극화” 등을 주목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지닌 진보적 진영으로 나뉜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의식주와 연계된 인간의 실존적 삶이 영성과 필연적으로 연관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주목하면서 본 논문의 중심 논지와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자의 논문이 갖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논평자의 질문 사항을 아래에 요약해 본다. 첫 번째 장점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에 대해 진단하고 있으며 기독교계가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함을 효과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논평자가 발견한 본 논문의 두 번째 가치는 영성 연구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법과 차별화된 신선한 방식으로 영성 연구가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으로부터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유익은 앞서 말한 두 번째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두 시대적 상황(수도생활, 종교개혁)을 기독교영성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식견을 제공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와 융합”의 역동적 과정으로서 영성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본 학회에 참여하고 이곳을 통해 생산된 논문을 읽게 될 수많은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할 대목인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분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이 시기에 대한 평가가 각 교단별로 극명하게 나뉠 수 있기에 저자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십분 이해하는 바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끝으로 논평자가 저자에게 답을 듣기 원하는 질문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의 제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라고 잡고 있는데, 제목만 놓고 보면 영성은 “발전”하는 그 무엇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성경이 제시하는 확고한 위치가 있는 고정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살아 움직이며 발전해가는 생명체처럼 느끼게 하는 용어의 선택인 것 같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연역적 연구 방식보다는 귀납적 연구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논평자는 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그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듣기 원한다. 질문: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이고 확고불변한 기독교 영성은 없는 것인가? 시대적 상황을 먼저 분석하여 들여다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발전하는 상대적인 그 무엇으로만 기독교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기독교 영성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선제적 형태의 것인가, 아니면 주어지는 외부 환경에 따라 그것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적응하기 위해 각 시대의 성경 해석의 산물으로써 조금씩 변화 발전해가는 유기적 생명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

3. 나가는 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개념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모습에 머물고” 있다고 저자가 평가하듯, 아직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연한 실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가져다 줄 위협과 폐단은 아직까지는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실체는 점점 우리 생활 곳곳에 체감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대비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모습일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수도생활과 종교개혁, 그리고 70년대 한국교회 등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기독교 영성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제시하였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또 다른 시대적 상황들에 주목하면서 기독교 영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평자와 같이 영성신학/영성운동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 설명해 준 저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의를 표한다.

[논평3]

조성호 박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이대환 (반석교회)

1. 들어가는 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책임이라고 하겠다. 이 시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지각변동과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작금의 시대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적절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처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성호 박사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각의 지평을 열어주는 논문을 집필함으로써 학계와 교계에 상당한 도움을 선사하고 있다.

2. 논문의 주요 내용

조성호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한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 문명으로 시작되는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기,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와 자동차 생산체계에 기인한 2, 3 산업혁명을 거쳐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그리고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의 4차 산업시대에 인간의 가치하락과 인간성 상실 등의 회복을 주요 관심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생물학적(biological) 2) 운송수단의 발전과 지식 정보화 사회 3)노동가치 변화와 새로운 차별구조 등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는 기술적이고 물리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진단을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이를 기독교 신학적 차원에서 분석했을 때 1) 도덕적 해이를 언급했다. 즉 고도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해커들의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로 인한 도덕적 혼돈을 지적했다. 2) 인간성 추락과 하나님의 존엄성 파괴를 신학적 문제로 언급하면서 고도로 발전한 기술문명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이 가치 폄하되면서 여성들과 소수 약자들에게는 보다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도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적 핵심요소인 노동을 가치 폄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경제구조와 변화의 영성을 다루면서 영성은 시대마다 적절하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각의 시대를 선도해 간 것으로 설명했다. 1) 기독교 영성의 근원으로 보는 수도생활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수도생활이 단순한 영성생활의 차원을 넘어서서 초기 기독교회의 핵심가치들을 창조적으로 융합시키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온 영성의 방편이요 새로운 문화 창달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2)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리나 교회제도의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은 개인주의와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기독교의 영성을 수도원에서 도시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노동과 직업, 자본주의와 기독교 윤리를 밀접한 관계로 승화시켰다고 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은 사회복지의 초석을 닦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3)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와 경제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영성의 발로이었음을 언급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황도 동일한 선상에서 기독교인들의 영성으로 경제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영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된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하락과 같은 문제들을 영성이라는 고유한 방편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평이 열렸음을 확고히 피력했다.

3. 논문의 평가

조성호 박사는 본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기독교의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교회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기독교의 초기 영성운동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성의 발전과정과 각 시대마다 대처했던 방법들을 큰 틀에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시대에 유효하게 작용했던 영성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제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할 영성의 당위성과 그 영성의 능력에 대한 기반과 확신을 제공하였다. 연구자의 논문은 복잡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논평자는 이 논문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이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용어 설명이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영성”에 대한 용어 설명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기독교계의 신학교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저변에서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영성”이란 단어를 본 논문에서도 명확한 용어설명이 없이 사용된 점이 아쉽다. 예컨대 “노동과 영성의 상호관계”, “성직자들에게만

부여되던 일방적인 영성의 영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독교 영성과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영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영성이 시대적 급변을 향한 반응의 결과”, “새로운 기독교 영성의 지평확장”등등으로 다양한 문장 속에 “영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또 연구자는 “영성”이라는 주제는 변함없는 상수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변수로 역할 변화를 통해서 영성의 기능을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설명을 했다. 보통 “영성 (spirituality)”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즉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영적인 품성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연구자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논리적 도약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연구의 틀을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파생된 인간 존엄성 파괴나 노동의 가치하락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결론을 유도해 냈다. 결국 기독교 영성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로 제시했는데 수긍이 가는 일면도 있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문명이 물질적으로 더 부요하고 강력해 지면 정신적 또는 종교적으로 더 약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다. 그래서 ‘세속문화는 기독교의 적’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은 지난 역사도 증명을 했으며 성경도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롬12:2). 기독교의 영성이 인간의 복지와 지위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마6: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본 논문은 기독교의 영성이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찬사를 보낸다. 이와 같은 영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자유발표 2]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소고”



김상구 (백석대)

I. 들어가는 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는 어린이세례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향후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만 7-13세 어린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규정도 제안했다.¹⁾

현재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 경우에 만 14세가 되기까지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위원회는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성경과 교회사, 신학적인 근거를 볼 때 어린이세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세례가 가능하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은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편만이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이다. 이에 대해 …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한편, 연구위원회는 예비 유아세례자들을 위한 교회교육(교역자, 교사 역할)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매뉴얼이 요청되며, 아울러 부모가 없거나 비신자인 예비유아세례자들에 대한 조치로 교회 내 후견인 양성 등 선행과정이 필요하며 연구위원회 1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러한 유아세례와 세례교육에 관한 논의는 목회현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목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에 관한 논의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활발히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라 Y 형태로 세례 프락시스를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를 위해 먼저 세례 프락시스의 과거를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

1) 기독교신문 승인 2017.09.27. 14:16 호수 2123.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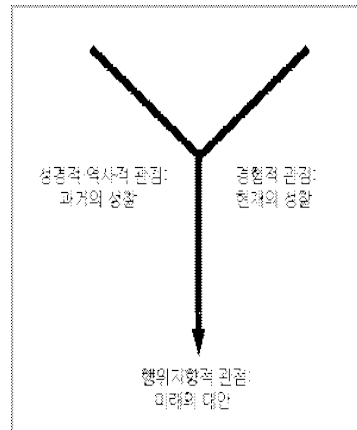
2) Christian Grethlein, *Abriß der Liturgik* (Gütersloh Güterloh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1²⁾), 13-14. 필자는 Grethlein의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라 세례 프락시스를 논하고자

날 상황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의 성경적 · 역사적 관점(과거)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이때 세례 프락시스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둘째, 오늘날의 상황은 경험적 관점(현재)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현장과 밀접한 연구들이다. 이때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 현장에서 분석한 세례의 질적 · 양적 연구물과 이를 통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동기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이 모든 연구는 행위 지향적 관점(미래)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독일 교회에서 세례 프락시스의 개선을 위해 제안된 모델들을 참고하여 한국 교회에 적용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세례 프락시스의 성경적 · 역사적 관점(과거)을 통해 난제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의 실상(현재)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세례 프락시스의 행동 지향적 관점(미래)에 따라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성경적 · 역사적 관점(과거): 세례 프락시스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1) 성경과 초기 교회에 나타난 세례 프락시스

세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공동체에서 베풀어져 왔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행 2:38; 8:12; 9:3-19; 10:44-46; 16:14 등), 바울의 경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롬 6:3; 고전 12:13). 이것은 신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연하게

한다. 본 논문은 Christian Grethlein, “Praktische Theologie - Zur gegenwärtigen Taufpraxis in den evangelischen Kirchen”, in Markus Öhler (Hg.), *Tauf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77-208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본 세례에 관한 연구로는 Christian Grethlein, “Taufe in praktisch-theologischer Perspektive”, in Franziska Beetschen, Christian Grethlein und Fritz Lienhard (Hg.), *Taufpraxi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7), 97-116 참고. 또 다른 실천신학적 방법론으로는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김현애 ·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서울: WPA, 2012), 27-28. 그는 여기서 기술적-경험적 과제(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석적 과제(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규범적 과제(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실용적 과제(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로 실천신학적 해석의 핵심 과제를 분석한다.

받아들이지게 될 것이다.³⁾

Grethlein은 그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sschrift)에서 로마서 6장을 주석하면서 세례의 선물(Taufgabe)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⁴⁾ 첫째, 세례는 수세자를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로 인도한다. 따라서 세례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성에 근거한다. 둘째, 세례는 죄 용서함의 선물(롬 6:2, 6-11; 행 2:38)과 죄 사함을 받은 수세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열어준다. 셋째, 세례는 직접적으로 윤리적 명령과 연결된다(롬 6:11ff.). 왜냐하면 세례는 새로운 삶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세례는 수세자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가입시키는 예식이다. 세례를 통해 전통적인 신분과 성의 차별은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며(갈 3:28), 모든 세례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롬 12장; 고전 12장). 요컨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죄 용서함, 성령을 선물로 받음, 새로운 삶의 결단, 그리고 공동체로의 가입예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⁵⁾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윤리적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에 따라 처음부터 신앙교육과 깊이 관련되었다. 초기 교회의 공동체 신앙교육

-
- 3) 세례의 구약신학적 관점으로는 Marianne Grohmann, "Kultische und prophetische Konzepte von Reinheit und Initiation im Alten Testament und im Judentum", in Öhler (Hg.), *Taufe*, 15-38; 세례의 신약신학적 관점으로는 Markus Öhler, "Einheit und Vielfalt: Die Taufe in neutestamentlicher Perspektive", in Öhler (Hg.), *Taufe*, 39-83; Gerhard Barth, *Die Taufe in frühchristlicher Zeit*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2002²); Christian Grethlein, *Taufpraxis heute. Prak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r theologisch verantworteten Gestaltung der Taufpraxis im Raum der EK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8), 159-83; 이를 참고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는 김상구,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난 세례 프락시스(Taufpraxis)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9 (2016): 11-17;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는 김상구,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난 예배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5 (2015): 9-42; 김상구, "초기 기독교 예배형태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13 (2007): 39-49.
- 4) 상세하게는 Grethlein, *Taufpraxis heute*, 159-83; 이를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는 Christian Grethlein, *Grundfragen der Liturgik*, 김상구 역, 『예배학 개론』 (서울: CLC, 2006), 242-44.
- 5) 1982년 제네바에서 발표한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는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세례는 죄의 용서를 뜻한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세례는 교회공동체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넷째, 세례는 성령의 선물을 포함한다. 다섯째, 세례는 중생과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1982). 이와 유사하게 White는 세례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성령님의 은사, 죄의 용서, 새로운 탄생으로 이해하고 있다. 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김운용 역,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78-90; 간략하게는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김상구·배영민 역,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CLC, 2017), 312-13.

과 관련해서, 세례의 심사기준에 관한 질문은 흥미롭다. 세례후보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세례의 성경적 증거를 살펴보면,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와 10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⁶⁾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가’이다. 이것은 세례의 본질이다. 둘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심리적 회심이 필요하지 않다. 회심한 이후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셋째, 세례로의 일반적인 초대는 원칙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초기 교회 세례 프락시스를 연구한 Kretschmar는 『레이투르기아 I』(*Leiturgia I*)의 첫 장에서 초기 교회의 세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중심 예배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주일에 행해진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라고 대답할 것이다.”⁷⁾ 그는 초기 교회 세례 프락시스와 세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⁸⁾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이끈다. 세례 시에 수세자는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서 세례는 공동체의 신앙 교육적 수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세례는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세례는 성령수여의 행동으로써 연출되었다. 안수와 도유는 이를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뚜렷이 표현했다. 셋째, 세례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끈다. 이것은 세례예식과 연결된 성찬경축에서 나타나는데, 수세자는 이 때 처음으로 성찬성례전에 참여했다.⁹⁾

그런데 이 같은 세례의 성경적 관점과 초기 교회에서 나타난 세례 프락시스는¹⁰⁾ 이후에 보편적으로 성인세례에서 유아세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본래적 세례 프락시스와는 멀어졌다. 특히 신앙 교육적 · 윤리적 · 교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신앙 교육적 차원의 약화

초기 기독교가 확대되고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이 생기면서 세례후보자들에게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세례예비자교육과정(Taufkatechumenat)이 실시되었다.¹¹⁾ 2-3세기엔 풍부한 세례예비자교육과정이

6) Christian Grethlein, *Gemeindepädagogi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44-45.

7) Georg Kretschmar, “Die Geschichte des Taufgottesdienstes in der alten Kirche”, in *Leiturgia 5* (Kassel: Johannes Stauda-Verlag, 1970), 5, 7.

8) Kretschmar, “Die Geschichte des Taufgottesdienstes in der alten Kirche”, 84-107.

9) 최승근, “교회의 패러다임인 세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70 (2014): 158.

10) 초기 교회 예배문헌에 나타난 세례에 대해서는 김상구, “세례예식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11 (2006): 176-86 참고.

1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서울: CLC, 2014), 139-56 참고.

정착되었다.¹²⁾ 이 과정에는 예전적 집행과 가르침이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로마 교부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 17장에 따르면, 세례예비자교육은 3년간 이루어졌다. “세례예비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한편 열성적이고 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면,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생활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¹³⁾ 이 기간 동안에 세례예비자들은 매주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여 성경봉독과 설교를 들었으나 성찬에서는 배제되었다. 이를 통해 세례예비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의 구원사적이며 윤리적인 근간을 형성했으며, 신앙고백을 지향하는 세례문답을 긍정할 수 있었다. 물론 세례예비자들의 신앙정도와 관심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된 4세기 이래로 서방교회에서는 초기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세례교육과 세례의식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례예전과 세례예비자교육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세례 프락시스의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¹⁴⁾ 유아세례가 언제부터 베풀어졌는지는 역사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전승에는 유아세례가 명료히 전제되어 있다. 어린이 수제자의 경우, 공동체는 가정의 사회화와 이후에는 간략한 설교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들을 위한 고유한 신앙 교육적 행위는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4-5세기 이래로 유아세례가 활발하게 행해지면서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략되기도 했다. 결국 유아세례의 보편적인 실행으로 세례예비자교육 과정은 그 신앙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단지 짧은 예전 행위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 결과 초기 교회에서 세례 전의 세례예비자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형성하던 세례는 단지 예식의 행위로만 축소되었다.

체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세례의 내용적 빈약함을 의미했다.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특히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신앙지식은 제대로 된 교회교육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윤리적인 내용들만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고백 거울(Beichtspiegel, 고백을 준비 할 때 양심을 검사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이나 소책자)과 고해성사(Beichte)의 형태로 교회교육을 접했을 뿐이다.

12) 세례예비자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49-59 참고.

13)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이형우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1994), 119; 사도전승에 나타난 세례 예비자교육과정을 분석한 것으로는 A. Jilek, “Die Taufe,” in H-Ch. Schmidt-Lauber und K.-H. Bieritz, *Handbuch der Liturgik* (Leipzig/Göttinge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Vandenhoeck & Ruprecht, 1995), 295-301.

14) Grethlein, 『예배학 개론』, 248.

3) 윤리적 차원의 약화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행위로서 세례의 의미를 강조했다.¹⁵⁾ 예전적으로 이것은 물세례 행위시 안수를 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례 후 도유(기름 바름)는 이와 관련된 풍부한 성경적 전통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의 이러한 의미가 분리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세례 후 도유를 행하는 동방 교회와는 사뭇 다르다.

서방교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리현상은 다음과 같은 교회 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¹⁶⁾ 첫째, 유아들의 높은 조기 사망률 때문이었다. 이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교회 공동체의 빠른 성장으로 감독은 더 이상 아이의 출생 직후 즉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모들이 희망하는 세례시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로나 사제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안수는 감독직을 통해 승인된 통일성과 전통을 위한 중요한 표징으로서 그 권한은 감독들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안수는 감독의 고유한 행위의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보편적으로 행했던 견진성사(Firmung)였다.¹⁷⁾

사제가 세례를 베푸는 동안, 감독들은 견진성사를 베풀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졌다. Hugo von St. Viktor(약 1097-1141)는 개별 성례전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결정했는데, 세례보다 견진성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¹⁸⁾ 하지만 종교개혁자들¹⁹⁾, 특히 Martin Luther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De captivitate babylic a)²⁰⁾에서 이를 강하게 거부했으며, 세례를 높이 평가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따라서 견진성사의 고평가는 문화적 기억 속으로 퇴보되었다. 또한 개신교 영역에서는 오늘날까지 견진례보다 세례를 중요시한다. 신학적으로 견진례는 명백히 성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교현상학적으로 보면, 견진례경축은 견진성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15) Öhler, “Einheit und Vielfalt: Die Taufe in neutestamentlicher Perspektive”, 54-55.

16) Grethlein, 『예배학 개론』, 249.

17) 최승근, “입교(Confirmation)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안”,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2 (2014): 185.

18) W. Maurer, “Geschichte von Firmung und Konfirmation bis zum Ausgang der lutherischen Orthodoxie”, in K. Frör (Hg.), *Confirmatio. Forschung zur Geschichte und Praxis der Konfirmatio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9), 14.

19) 종교개혁자들의 세례신학과 세례실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John W. Riggs, *Baptism in the Reformed Tradition*, 김상구 · 김태규 역, 『개혁주의 세례신학』 (서울: CLC, 2012), 55-173 참고.

20) WA 6.459f.

4) 공동체적 차원의 약화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임과 동시에 성찬을 통해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인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적 근거였다. 약 12세기까지 실제로 세례는 성찬경축과 함께 이루어졌다.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했으며, 동방 교회의 경우에는 지금도 세례에서 유아성찬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교회에서는 세례 프락시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스콜라 신학에서는 신앙의 인지적인 차원과 관련하여 어린이 성찬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전 10:17).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성찬참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어린이들이 성찬에서 제외됨으로써 첫 영성체의 관례가 생겼다. 이로 인하여 교회 구조에서 당연한 유아세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성찬 없는 세례가 거행됨으로써 성찬이 세례로부터 분리되었다.²¹⁾ 이러한 분리는 동시에 교회론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세례는 더 이상 주일 공동체에 배의 중심부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예식 조차도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5) 요약: 세례의 성경적 관점과 세례 프락시스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²⁾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세례 프락시스는 약 천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서방 교회에서 본질적 차원들을 상실했으며, 세례의 주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세례의 신앙 교육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둘째, 세례 후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도유와 이와 함께 성령의 수여를 위한 중요한 표징이 견진성사로 분리됨으로써 세례의 윤리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셋째, 세례예식은 공동체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짐으로써 교회공동체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 세례에서 유아세례로 전환되면서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이 예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짐으로써 세례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2. 경험적 관점(현재): 양적 · 질적 연구의 결과와 세례열망의 동기

경험적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신학은 오늘날의 목회현장을 분석할 때 다층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양적 연구는 통계 혹은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행동영역의 외적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인터뷰나, 직접 참관하여 심층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세례를

21) Grethlein, 『예배학 개론』, 249-50.

22) Christian Grethlein, *Grundinformation Kasualien. Kommunikation des Evangeliums an Übergängen des Lebe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13.

원하는 중요한 동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²³⁾

1) 양적 연구의 결과

먼저, 세례 프락시스에 관한 양적 연구가 활발한 독일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⁴⁾

첫째, 독일 교회 통계에 따르면, 세례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1960년 수세자의 인원은 425,053명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198,936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인구요인, 즉 지난 50년 동안 출생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통일을 통해 영토가 확장되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舊)동독지역에 사는 교인수가 현저하게 적다.

둘째, 홀부모 하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경우 세례를 희망하는 수가 현저하게 낮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홀부모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⁵⁾

셋째, 또 다른 세례통계에 따르면, 세례연령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9년 세례를 받은 20,135명의 연령이 이미 14세가 넘었다. 구(舊)동독지역의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수세자의 비율, 특히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수세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아들의 약 27%는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 중에 최소한 개신교인인 홀부모 하에 있는 유아들의 경우는 78.2%이다.

지난 1960년대 이래로 약 5만명의 세례자들이 개신교회를 떠났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세자의 수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간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통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의 교인들이 세례를 저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1970년이래도 10년 주기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세례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서독 개신교인의 95%와 구동독 개신교인의 87%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할 것이라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양적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인생사의 초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예전(禮典)이 아님이 드러났다. 개신교인의 경우 세례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의 수세자 비율은 전반

23) 이 연구를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는 Grethlein, *Taufpraxis in Geschichte, Gegenwart und Zukunft*, 83-124 참고.

24) Grethlein, 『예배학 개론』, 256-59; 독일 교회의 세례의 상세한 통계분석에 대해서는 Beetschen, Grethlein und Lienhard (Hg.), *Taufpraxis*, 17-37 참고.

25) Grethlein, *Taufpraxis heute*, 49.

적으로 줄었으며, 세례의 시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 교회에서의 세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에 관한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교단마다 정확한 세례자 통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돋보이는 연구로는 송창현의 세례교육 현황에 관한 분석이 있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구 대신) 목회자(65명)와 성도(96명)를 중심으로 세례교육 현황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²⁶⁾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과정도 매우 형식적이다.²⁷⁾ 목회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약 25%가 세례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지 못하였고, 신학교육 과정 중 효과적인 세례교육을 받은 비율은 약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신학교에서의 세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고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성도의 경우 57.4%가 세례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목회자들의 관심부족을 들었다.

둘째, 세례교육의 기간 역시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세례교육을 1주일 이하 받은 사람이 50.0%이고, 심지어 세례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5.0%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5%가 세례교육을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또한 사도전승에서의 3년간의 세례교육기간과 종교개혁시대의 요리문답교육 기간이 1년이었던 점과 비교해도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셋째, 세례교육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혹은 세례교육 문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천편일률적인 주입식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목회자나 성도는 세례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고, 교육기간 역시 단시간에 실행되며, 그 내용도 교리중심이고, 그 방법 또한 주입식이다. 이로써 세례교육과정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교육과정의 결핍이 세례예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 교회의 세례 프락시스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노학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경남지역 8개 노회를

26) 송창현,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158-216 참고.

27) 송창현,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를 중심으로”, 213-14.

28) 송창현,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를 중심으로”, 214-15.

중심으로 유아세례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급격한 저출산율로 인하여 유아세례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³⁰⁾ 물론 이 통계자료가 경남지방에 특정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저출산율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사이 목회자 1명당 연간 1명 정도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는 평균을 잡은 것이며, 지난 5년간 한 번도 유아세례를 베풀지 못한 목회자도 있다는 통계는 향후 한국 교회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둘째, 유아세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교육교재가 부족하다.³¹⁾ 많은 목회자가 유아세례의 교육과 예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교재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신학교의 교육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재 없이 교육을 하고 있거나(35.9%), 교재가 없어서 교육하지 않는 경우도 11.1%나 된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저출산율로 인하여 유아세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유아세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부족과 교육교재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과 예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질적 연구의 결과

최근 연이어 유아세례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 출간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R. Somm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³²⁾ 그녀는 세례자 부모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동기들에 대하여 물었다. 또한 Ch. Müller는 “가정에서의 의식과 의식화: 종교적 차원과 세례간의 특징들”에 관한 연구로 독일어권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례 프락시스를 조사했다.³³⁾ 이 연구의 주된 요점은 부모와 어린이, 조부모의 인터뷰와 목회자의 설문 조사 등에 있다. 위 연구결과에 대해 Grethlei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³⁴⁾

첫째,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세례경축의 큰 의미가 나타났다. Sommer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세례를 회상할 때 정서적으로 특별한 느낌을 가졌

29) 노학용, “예배문헌에 나타난 유아세례 고찰과 예전 모델제시-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고신) 경남지역 8노회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131-212 참고.

30) 노학용, “예배문헌에 나타난 유아세례 고찰과 예전 모델제시-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고신) 경남지역 8노회를 중심으로”, 209-10.

31) 노학용, “예배문헌에 나타난 유아세례 고찰과 예전 모델제시-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고신) 경남지역 8노회를 중심으로”, 210.

32) Regina Sommer, *Kindertaufe - Elternverständnis und theologische Deutung* (Stuttgart: Kohlhammer, 2009)

33) Müller Christoph, *Taufe als Lebensperspektive. Empirisch theologische Erkundungen eines Schlüsselrituals* (Stuttgart: Kohlhammer, 2010)

34) Grethlein, “Zur gegenwärtigen Taufpraxis in den evangelischen Kirchen”, in Öhler (Hg.), *Taufe*, 185-86.

다고 피력한다. 세례사건은 특히 이성적인 경험이 아니라, 신체적이며 감정적인 경험에서 대부분의 부모 마음을 움직인다. 비언어적 표정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둘째,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세례에 대한 대화에서 죽음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들과의 경험을 제기했다는 것에 달려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위협은 세례의 실질적인 동기이며, 부모의 죽음이라는 위협은 대부 선발의 문 의와 대부직의 의미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다.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한 바울의 세례 의미는 여기서 놀라운 현실성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Müller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은 세례에 대해 대화하기를 좋아하며, 목사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혹은 비이성적으로 세례를 집행할 때 환멸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세례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세례경험에 대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3) 세례열망의 동기

위에서 언급한 세례 프락시스의 양적 · 질적 연구와 사회심리학적 · 종교학적 관점으로부터 세례를 원하는 중요한 동기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Grethlein은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³⁵⁾ 또한 세례열망은 세례의 수용과 세례 경축, 세례 경축의 효과를 형성한다. 이때 세례 프락시스에서 다양한 세례 동기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첫째, 유아세례는 무엇보다도 신앙전통에 따른 것이다. 가족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오랜 전통이며, 조부모는 언제나 손자나 손녀가 세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동기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이러한 전통의 의미는 현재 사회공동체 안에서 선택적 사안이 되기도 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는 조부모로부터 유아세례 시 입을 옷을 물려받는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세례를 희망하는 표징이다.

둘째, 어린이세례는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Generationenvorsorge)이다.³⁶⁾ 부모는 자녀들의 안전장치를 희망하고, 그것이 전 생애에 적용되길 바란다. 어린이세례에는 이러한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 구세대는 돌봄이나 삶의 기회라는 동기로부터 다가오는 세대에게 종교적 이어짐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적 사랑의 동인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린이들 간의 융합적 동기가 있다. 어린이들은 세례를 통해 다른 세례자들과 연합되며, 상호간에 서로 이

35) Grethlein, *Taufpraxis heute*, 67-142; Grethlein, 『예배학 개론』, 259-62.

36) Hans-Otto Wölber, *Religion ohne Entscheidung. Volkskirche am Beispiel der jungen Gener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117.

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연령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성인세례에 준하는 연령으로서 약 만 14세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세례를 희망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일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성인세례의 동기는 보다 개인적인 경우가 많다. 이때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기도 하지만, 친구나 결혼으로 인하여, 혹은 군생활 등에서 겪게 되는 삶의 위기 가운데 신앙적 결단을 통해 세례를 원하기도 한다.

4) 요약: 세례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의 연속성과 변화의 징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특히 독일의 경우, 세례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종교적 예식이다. 비록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세례 받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또한 삶의 위기에서 학교나 군대, 병원 등에서 신앙적 결단을 통해 세례를 받기도 한다.

또 다른 세례동기의 경우, 전통적이며 새로운 동기들이 상호간에 연결되거나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세례는 ‘연령대 입교예식’(age group initiation)으로서 출생 직후에 베풀어졌으나, 오늘날 이러한 세례의 특징은 ‘신비적 입교예식’(esoteric initiation)으로 강화되었다. 세례는 또한 특별한 신앙공동체 안으로 옮겨감을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례동기들은 이와 같은 전환의 특성으로서도 이해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3세기 초기 교회에서 증가했던 세례의 다양한 내용들이 오늘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3. 행위 지향적 관점(미래):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

서론에서 언급한 한국 교회 세례 프락시스의 변화 요구와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의 문제들(세례의 신앙 교육적 · 윤리적 · 교회공동체적 차원의 약화)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세례교육 강화하기

독일 교회는 1970년 이래로 세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Grethlein은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실제적인 세례교육모델을 간략히 언급하였다.³⁸⁾ 첫째, Leuenberger가 제안한 세례교육의 기본 구상을 위한

37) Christian Grethlein, “Taufpraxis zwischen Wandel und Kontinuität - Herausforderungen und Chancen”, *ZThK* 102 (2005): 371-96.

38) Grethlein, *Gemeindepädagogik*, 63-71.

새로운 세례교육모델이다. 둘째, Gaebler와 Schmidt, Siber가 Leuenberger의 세례교육모델을 발전적으로 제안한 세례 대화 모델이 있다. 셋째, 독일 교회(VELKD)의 교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세례로의 초대-삶으로의 초대” 모델이다. 본고에서는 위 세 모델을 두 모델로 집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세례교육모델

1970년대 초반 세례 프락시스는 일반적인 전통비평의 맥락에서 주로 성인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³⁹⁾ 특히 Leuenberger는 교회 교육적 성찰을 통해 세례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세례는 단지 교회가 달라지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교회는 또한 세례의 변화만큼 달라질 수 있다. 세례개혁이 곧 교회개혁이다.”⁴⁰⁾ 그는 이러한 모토 하에서 세례예비자 부모들과 함께 하는 저녁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다수의 부모들이 세례예식의 경축과 함께 세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저녁간담회라는 특별한 기회는 세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공동체 담화 때에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두려움이나 희망을 나누면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복음은 규범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약 2-3번의 저녁간담회 교제 중에 시간적으로 압축된 제안들은 현장에서 입증되었다. 이 간담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제안들이 정규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저녁간담회의 주제들로는 예를 들어, “아이에 대해 물을 때-나는 무엇을 대답하는가?”, “좋은 밤을 위해-예식들”, “아이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말한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⁴¹⁾

어린이세례에 관한 새로운 사역이 세례 프락시스에 놓여 있다. 이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상응하는 자극을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그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례는 내용적으로 종교의 조기교육을 위한 좋은 연결점을 제공할 수 있다.⁴²⁾

마지막으로, 세례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견신례수업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다. 여기에 학습을 위한 좋은 기회가 열려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세례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흥미 있는 주제여야 한다는 점이다.⁴³⁾ 세례는 문화

39) Robert Leuenberger, *Taufe in der Krise* (Stuttgart: Calwer Verlag, 1973) 참고.

40) Leuenberger, *Taufe in der Krise*, 87.

41) Peter Barz, Bernd Schlüter (Hg.), *Werkbuch Tauf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1²), 116-24.

42) Barz, Schlüter (Hg.), *Werkbuch Taufe*, 111-46.

43) Wolfgang Ilg, Friedrich Schweitzer, Volker Elsenbast (Hg.), *Konfirmandenarbeit in*

적 기억에 깊이 고정된 의식이며, 개별 인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삶의 방향을 찾는 청소년시기에 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세례는 실천적 학습이 가능하다. 견신례를 받은 청소년들과 함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세례를 준비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세례와 입교예식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과 축제적인 예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례상징들

1980년대 말에 독일 교회에서는 “세례로의 초대-삶으로의 초대”라는 흥미로운 세례교육 모델이 제시되었다.⁴⁵⁾ 이 모델은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의 문제, 각각의 현실적인 질문의 틀 속에서 세례의 초대, 세례예식 및 세례회상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세례예식에는 기본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둘째로는 세례회상을 용이하게 하는 고정된 세례날을 지정하는 것이다.⁴⁶⁾

커뮤니케이션학적으로 보면, 세례는 그 중심에 있는 기본상징들이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⁴⁷⁾ 『개혁주의 예식서』(*Reformierte Liturgie*)에서는 이러한 상징들이 적어도 임의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⁸⁾ 대부분의 개신교 세례예식에서는 5개 혹은 6개 상징(십자가, 이름, 물, 안수, 빛, 옷)들이 사용된다.⁴⁹⁾ 이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십자가이다. 수세자는 세례예식의 시작과, 또한 물세례 이후 축복기도의

Deutschland. Empirische Einblicke - Herausforderung - Perspektiven (Komfirmandenarbeit erforschen und gestalten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9), 367.

44) Grethlein, *Grundinformation Kasualien*, 198. 또 다른 모델로는 Barz, Schlüter (Hg.), *Werkbuch Taufe*, 161-84 참고.

45) 이 세례교육모델은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Reiner Blank, Christian Grethlein (Hg.), *Einladung zur Taufe - Einladung zum Leben. Konzept für einen tauforientierten Gemeindeaufbau. Entwickelt im Gemeindkolleg der VELKD* (Stuttgart: Calwer Verlag, 1993 bzw. 1995)

46) Grethlein, 『예배학 개론』, 270.

47) 종교적 상징의 특징에 대해서는 Achim Härtner, Holger Eschmann, *Predigen Lernen*,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서울: kmc, 2014), 298-312 참고.

48) Peter Bukowski (Hg.), *Reformierte Liturgie. Gebete und Ordnungen für die unter dem Wort versammelte Gemeinde*, im Auftrag des Moderamens des Reformierten Bundes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Wuppertal/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 1999), 304.

49) 더 상세하게는 Grethlein, 『예배학 개론』, 270-73; 이를 적용한 세례교육교재로는 김상구, 『세례로의 초대』 (서울: 대서, 2014), 74-94 참고.

50) Grethlein, *Grundinformation Kasualien*, 141-44.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언급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십자가는 문화역사적으로 오래된 성취의 상징이며, 또한 고통의 형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다.

둘째, 이름이다. 세례에서 수세자의 이름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명명된다. 인간의 이름은 그의 인격의 친밀한 구성요소이다. 세례에서 수세자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된다. 독일에서는 성경 인물의 이름이나 기독교적 해석의 지평을 지닌 많은 이름들이 불리어지기도 한다.

셋째, 물이다. 인간의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다. 물은 생기가 나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며,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물은 사막의 거주민들이 아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물로 인해서 죽음이 수세자에게 다가서기도 한다. 삶을 공급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물의 이 이중의 능력은 세례에서 기억된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 이후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역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넷째, 안수이다. 목사는 수세자의 머리 위에 물을 끼얹은 이후 수세자를 축복하기 위해 안수를 한다. 인류사적으로 오래된 이러한 행동은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표현한 것이다. 축복의 기도는 이 축복의 수여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다섯째, 빛이다. 안수처럼 세례의 말미에 수세자에게 건네주는 초는 세례의 긍정적인 토대를 암시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관련된 기독교적 의미가 그 근처에 있으며, 이것은 세례를 통해 열린 제자됨의 동기를 부여한다.

여섯째, 옷이다. 수세자는 대부분 흰 옷을 입는다. 흰색은 정결과 순결을 상징한다. 독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세례 옷은 세대 간에 이어 입는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세례 옷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징이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상징들은 광범위한 해석놀이공간을 열어 주며, 동시에 기독교론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상징에 관한 상반감정의 양립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이러한 상반감정의 양립은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 오염의 스캔들 (vs. 물의 상징), 향락에 빠진 세상에서의 죽음과 고통의 억압 (vs. 십자가의 상징), 삶의 관계 속에서 증가하는 익명화 (vs. 이름의 상징), 고립과 함께 연결됨 (vs. 안수의 상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사 (vs. 빛의 상징)은 공동체적인 문제들을 위한 예들이다. 세례는 상징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하나님의 선한 피조계 선물로서의 물, 죽음과 고통의 극복과 인식의 표징으로서의 십자가, 생산력이 있는 삶의 지향성의 표현으로서의 빛, 이웃을 향한 관심의 상징으로서의 안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인간의 유일성을 위한 증거로서의 이름이다.”⁵¹⁾

여기서 이미 상이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위해 커다란 상징교수법적 토대가 서 있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히 나타난다.

2) 예전적 동기들

세례는 다양한 기독교 예배형식과 연결된 의식이다. 그래서 부활절초는 세례에서 수용되었으며, 세례초로 변형되었다. 물은 많은 종파에서 소위 성수의 형태로, 더 이상 교회예전뿐 아니라, 가정예전에서든 고정적인 장소에 놓여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세례에서 신앙고백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였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세례를 회상하게 하는 한 형태이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으로서 예배사적인 회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세례는 예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세례예배 자체 뿐 아니라 세례회상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세례예배와 세례경축

1950-60년대에는 세례의 획일성이 문제였다. 1973년까지 독일 교회 통계는 네 개의 다양한 세례 장소가 보고되었다. 즉, 공동체예배와 어린이예배, 규칙적인 예배 외의 장소로서 가정세례, 병원세례이다. 하지만 당시 가정과 병원세례는 단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독일 각주의 많은 교회에서 독립적인 세례예배가 축소되었고, 일반적으로 세례예식은 주일예배에 끼워 넣는 식으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전제가 있다. 우선, 주일예배만이 정상적인 예배이며, 또한 교구의 장소공동체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이다. 이러한 전제는 신학적이며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배사적으로 볼 때 항상 여러 예배형식들이 동등하게 존속했다. 예컨대, 성찬중심 예배(미사형식), 설교중심 예배(또한 선교중심 예배로 명명됨), 매일공중기도회, 축복예배(가령, 장례와 결혼 예식), 세례예배 등이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저녁과 아침예배, 견신례예배, 치유예배,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채플),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 등, 더 많은 예배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준다.

세례의 경우 다른 예배형태로 편입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례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개별적, 혹은 다수의 관련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수세자의 전기(傳記)가 이 경축의 중심에 있다. 이에 반해 주일오전예배는 일정한 사회구조가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소통하는 것을 위한 공간으로 열려져 있다. 따라서 세례와 주일예배의 관심사는 서로 만족시키기 어렵

51) Grethlein, *Grundinformation Kasualien*, 142.

다. 수세자 가족 뿐 아니라 교회공동체도 너무 긴 시간의 예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예배의 특징이 다시금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공동체 개념의 신학적 성찰은 신약성경에서 에클레시아(Ekklesia)가 결코 장소공동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가정공동체와 전체 기독교는 이러한 특징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장소공동체에서 모이는 것보다 소수인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족영역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세례연령의 변화는 예전적으로 큰 기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각 세례연령은 세례의 내용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유아세례의 경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과 효력이 나타나며, 세례의 윤리적 함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상이한 삶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세례를 추천한다.⁵²⁾

(2) 세례회상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Luther가 소요리문답에서 인상 깊게 매일 옛 아담의 죽는 모습으로 언급한 것처럼, 세례는 전 생애를 포괄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세례회상은 큰 의미가 있다. 이때 함께 참여한 사람을 위해 잘 구성된 세례가 근본적으로 세례회상의 최고 형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수와 참여하는 친척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세례회상의 특별한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초대는 세례날에 즈음하여 주일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고유한 세례회상을 경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례경축은 월주기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특정한 날을 정해 세례연약 재확인 예식도 고려해 봄직하다.⁵³⁾ 이 예식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검토하며, 새로운 삶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예식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교회절기(부활절, 주현절[혹은 성탄절], 성령강림절 및 추수감사절)에 세례날을 지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세례회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Grethlein은 초대 교회 전통에 따라 세례날로서 부활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52) Blank, Grethlein (Hg.), *Einladung zur Taufe - Einladung zum Leben. Konzept für einen tauforientierten Gemeindeaufbau. Entwickelt im Gemeindkolleg der VELKD*, 43-49 참고.

53) 이에 관한 상세한 신학적·예전적 논의와 이에 적용모델에 대해서는 김현애, 『견신례/세례연약 재확인 예식』(서울: WPA, 2015) 참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였으며, 주요 축일로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III. 나가는 글

오늘날 세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retschmar가 초기 교회 세례 프락시스에 주목한 것처럼, 초기 교회의 세례 프락시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실천 신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세례 프락시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례 프락시스의 성경적·역사적 관점(과거)을 통해 난제를 규명하고자 할 때 세례의 주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세례의 신앙 교육적 차원과 세례의 윤리적 차원, 세례의 교회공동체적 차원이 두드러지게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세례의 경험적 연구(현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의 연속성과 변화의 징조가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례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종교적 예식이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세례 받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삶의 위기, 예를 들어 학교나 군대, 병원 등에서 신앙적 결단을 통해 세례를 받기도 한다. 한국 교회의 경우, 목회자나 성도는 세례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고, 교육기간 역시 단기간에 실행되며, 그 내용도 교리중심이고, 교수법 또한 주입식이다. 이로써 세례교육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저출산율로 인하여 유아세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유아세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과 교육교재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과 예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동기의 경우, 전통적이며 새로운 동기들이 상호간에 연결되거나 다양하게 변했다. 서방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가 ‘연령대 입교예식’(age group initiation)으로서 출생 직후에 베풀어졌으나, 현재 이러한 세례의 특징은 ‘신비적 입교예식’(esoteric initiation)으로 강화되었다. 세례는 특별한 신앙공동체 안으로 옮겨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세례동기들은 이와 같은 삶의 전환적 특성으로 이해되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선교적 상황이라 이러한 현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세례 프락시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미래)으로 세

54) 세례날과 부활절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Grethlein, 『예배학 개론』, 276-78 참고.

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목회현장에서 세례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Leuenberger가 제안한 세례교육모델과 독일 교회(VELKD)의 교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세례로의 초대-삶으로의 초대” 모델 중에 세례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또한 세례의 예전 모델로는 세례예배 자체와 세례경축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며, 효과적인 세례회상을 위해 교회력과 관련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 ,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난 세례 프락시스(Taufpraxis)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9 (2016): 9-40.
- , “초기 교회 문헌에 나타난 예배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5 (2015): 9-42.
- , 『세례로의 초대』. 서울: 대서, 2014.
- , “초기 기독교 예배 형태에 관한 소고”.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13 (2007): 17-57.
- , “세례예식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11 (2006): 174-210.
-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서울: CLC, 2014.
- 김현애. 『건신례/세례언약 재확인 예식』. 서울: WPA, 2015.
- 김홍연. 『세례 · 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쿤란출판사, 2007.
- 노학용. “예배문헌에 나타난 유아세례 고찰과 예전 모델제시-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경남지역 8개 노회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 송창현.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최승근. “입교(Confirmation)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안”.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32 (2014): 175-213.
- , “교회의 패러다임인 세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70 (2014): 155-87.
- Barth, Gerhard. *Die Taufe in frühchristlicher Zeit*. Neukirchener: Neukirchen-Vluyn, 2002.
- Beetschen, Franziska, Christian Grethlein und Fritz Lienhard (Hg.). *Taufpraxi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7.
- Christoph, Müller. *Taufe als Lebensperspektive. Empirisch theologische*

- Erkundungen eines Schlüsselrituals*. Stuttgart: Kohlhammer, 2010.
- Gebauer, R. "Taufe und Ekklesiologie: Neutestamentliche Erwägungen zu einer biblisch erneuerten Praxis." in H. Stadelmann (Hg.). *Bausteine zur Erneuerung der Kirche*. Gießen/Basel: Brunnen Verlag, 1998.
- Grethlein, Christian. *Taufpraxis in Geschichte, Gegenwart und Zukunft*.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4.
- , *Grundinformation Kasuali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 *Grundfragen der Liturgik*. 김상구 역. 『예배학 개론』. 서울: CLC, 2006.
- , "Taufpraxis zwischen Wandel und Kontinuität - Herausforderungen und Chancen", *ZThK* 102 (2005): 371-96.
- , *Gemeindepädagogi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4.
- , *Abriß der Liturg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1².
- , *Taufpraxis heute. Prak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r theologisch verantworteten Gestaltung der Taufpraxis im Raum der EK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8.
- Härtner, Achim, Holger Eschmann. *Predigen Lernen*.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서울: kmc, 2014.
- Kretschmar, Georg. "Die Geschichte des Taufgottesdienstes in der alten Kirche". in *Leiturgia 5*. Kassel: Johannes Stauda-Verlag, 1970.
- Riggs, John W. *Baptism in the Reformed Tradition*. 김상구 · 김태규 역. 『개혁주의 세례신학』. 서울: CLC, 2012.
- Schwier, Helmut. *Die Erneuerung der Agende*.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2000.
- Sommer, Regina. *Kindertaufe - Elternverständnis und theologische Deutung*. Stuttgart: Kohlhammer, 2009.
- Stauffer, Anita. *Christlicher Gottesdienst: Einheit in kultureller Vielfalt. Beiträge zur Gestaltung des Gottesdienstes heute*. Hannover: Lutherische Verlagshaus, 1997.
- White, James F.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김상구 · 배영민 역.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CLC, 2017.
- , *Sacraments as God's Self-Giving*. 김운용 역.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 Wölber, Hans-Otto. *Religion ohne Entscheidung. Volkskirche am Beispiel der jungen Gener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 Öhler, Markus (Hg.). *Tauf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논평 1]

김상구 박사의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소고”에 대한 논평

이상홍 (광신대학교)

1. 논문의 내용

논문은 현재 합동 교단에서 거론되는 만 7-13세 사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교단 자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논문은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에 따라서 세례 프락시스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 줌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세례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문은 Grethlein이 제시하는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에 따라, 먼저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성경적 · 역사적 관점에 대한 과거의 성찰을 한 후에, 현재 세례 프락시스의 실상을 경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지향적 관점에서 미래의 대안으로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성경적 · 역사적 관점에서 세례 프락시스 이해

실천신학 연구방법의 첫 번째 단계에 따라, 논문은 성경적 · 역사적 관점에서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와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먼저, 성경과 초기 교회에서 세례는 신앙교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었으며, 성령수여의 의식(안수와 도유)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으며, 세례는 성찬경축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체 중심으로 이끌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성경과 초기 교회의 세례 프락시스가 성인세례에서 유아세례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앙교육적, 윤리적,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중세 시대의 교회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2) 경험적 관점에서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은 두 번째 경험적 관점에서 현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례 프락시

스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인 통계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현재 세례 프락시스의 외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서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한국 교회 교단 중에서 대신 교단과 고신 교단의 일부 세례 프락시스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논문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준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례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종교적 예식인데,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세례를 받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삶의 위기에서 학교나 군대, 병원 등에서 신앙적 결단을 통해 세례를 받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아세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부족과 교육부재로 인해서 세례 교육과 예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인터뷰나 직접 참관을 통하여 세례를 원하는 내적인 동기들을 규명하고 평가하고 있다. 논문은 Regina Sommer의 연구와 Grethlein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 연구 결과 전통적인 세례의 동기와 더불어서 새로운 동기들이 상호 연결되거나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전통적으로 세례는 “연령대 입교예식”으로서 출생 직후에 베풀어졌으나, 오늘날 세례의 특징은 “신비적 입교 예식”으로 강화되었고, 또한 신앙공동체 안으로 옮겨왔다고 평가한다.

3) 행위지향적 관점에서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 제시

논문은 실천신학의 세 번째 연구 과정인 행위지향적 관점에서 현재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례의 교육적 · 예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이 강조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세례 교육의 강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Leuenberger가 제안한 세례교육모델과 독일 교회의 교회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례로의 초대-삶으로의 초대’ 모델 중에서 세례 상징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세례 예전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세례예배 자체와 세례경축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2. 논문에 대한 공헌 및 제안

1) 논문은 현재 합동교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세례에 대한 연구와 프락시스

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신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연구 모델과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시의적절한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교회에서 세례 프락시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에 대한 프락시스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방법론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한국교회를 위한 세례 프락시스를 위하여 독일교회에서 1970년 이래로 논의된 세례 교육과 예전적 모델을 소개하면서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의 세례 프락시스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실천신학 방법론을 따라서 연구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간격을 좁히고 또한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적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논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천신학 연구방법을 따라 연구되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례 프락시스를 위한 연구의 범위와 초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일관성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점이다.

(1) 먼저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 다루는 주제가 일관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문제 제기에서 현재 합동교단에서 논의되는 어린이 세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발하지만 논문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논지는 어린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세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경험적 관점이나 행위지향적 관점에서 유아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뒤섞여 나오고 있다. 만약 논문에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 문제로 국한 시킨다면,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도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에 대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에 대한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신학적 논의도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두 번째로 실천신학 연구 방법론에 따른 연구과정은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성경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규범적 이해를 도출하고, 현재의 경험적 관점에서 어떻게 프락시스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서 미래적 프락시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경험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성경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도출된 규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논문의 연구자가 직접적인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 현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논문은 그런 과정보다는 제 3자가 해 놓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적 대안도 구체적인 현장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정도로 연구가 마무리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세례프락시스 뿐만 아니라 세례 프락시스를 위해서 실천신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이를 통한 향후 세례 프락시스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여 준 김상구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평2]

김상구 박사의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에 관한 소고”에 대해

임도균 (침례신학대학교/설교학)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세례 프락시스를 고찰하기 위하여 과거의 세례 전통을 분석하고 현재 세례 예식을 점검함으로써 미래에 바람직한 세례의 방향을 교육적이고 예전의 관점에서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행하여진 어린이세례 현황연구와 결과보고에서 기인한다. 이 현황연구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만 7-13세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14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관례가 있으므로 유아세례와 세례교육에 관하여 목회현장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상구 박사께서는 이러한 세례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세례를 종합적인 관점인 Y 형태로 세례 프락시스 방법론(성경적-역사적 관점, 경험적 관점, 행위 지향적 관점)을 제시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세례 예식과 교육에 대하여 과거를 조망하고, 오늘날 현장에서의 혼동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에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Y 형태 세례 프락시스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성경적 · 역사적 관점(과거): 세례 프락시스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세례를 성경적이고 교회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세례에서 신앙 교육적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아 왔다. 또한, 세례이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되지 않아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예배 중 세례예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른세례에서 유아세례로 변환되면서 더욱 나타났다.

둘째, 경험적 관점(현재): 양적 · 질적 연구의 결과와 세례열망의 동기. 실천신학은 이론신학에서 제공하는 신학적 토대 가운데 현장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학문이다. 경험적 관점 연구는 현재 목회 현장에서 세례의 프락시스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교회에서 세례를 양적, 질적, 동기적 관점에서 과거와의 공통점과 현재의 변동사항을 설명한다. 독일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는 숫자가 감소하지만, 성인 중 삶의 위기의 순간에 신앙적 결정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숫자가 늘

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유아세례의 비율이 출산을 저하와 목회자들의 유아세례 교육인식의 부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동기도 연령에 따른 의식이행 보다는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신비적 입교예식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자는 설명한다.

셋째, 행위 지향적 관점(미래): 세례의 교육적·예전적 모델. Y 형태의 세례 프락시스 연구 방법은 성경적-역사적 관점과 경험적 관점에서 세례를 고찰하고, 세례에서 문제점(세례의 신앙 교육, 윤리, 교회공동체성) 해결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교육적 영역에서는 목회현장에서 세례교육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의 상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세례예배의식의 강화와 세례축하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김 박사께서는 현대교회에서 약화되고 있는 세례 프락시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에서 세례의 의미를 반추하는 바람직한 연구를 했다. 신앙의 결단과 신앙 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세례교육과 예배의식 강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다. 특히, 세례교육에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가?”와 회심 후 즉각적인 세례의 강조, 세례의 일반적인 초대 원칙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세례교육을 신앙성숙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자에게 여쭙길 원한다.

1) 본 소논문에서 독일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장을 분석하므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세례에 있어서 독일교회를 세례연구의 예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2) 본 소논문에서 연구자는 Kretschmar의 『레이투르기아 I』(*Leiturgia I*)의 내용을 인용하여 세례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세례는 성령수여의 행동으로써 연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례가 성령을 수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하여 주었으면 한다.

3) 세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례로의 초대-삶으로의 초대” 모델을 통하여 세례의 상징과 세례 자체 예배 등을 제안하였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세대와 시대에 대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4)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세례가 ‘연령대 입교예식’(age group initiation)으로서 출생 직후에 행하여 졌으나, 현재는 ‘신비적 입교예식’(esoteric initiation)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본 논문은 오늘날 세례 시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적 방법으로 세례 시행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였다. 특히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의 적절했다는 생각을 한다. 바른 신앙을 다음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한국교회에게 세례 프락시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추하게 하는 값진 제안이라 생각 한다. 한국교회의 공동체성 증진을 위한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김상구 박사께 감사드린다.

[논평3]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따른 세례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소고에 대한 논평

김대진 박사 (고려신학대학원)

1. 논문의 논지 정리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세례 프락시스의 성경적·역사적 관점(과거)을 통해 난제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세례 프락시스의 실상(현재)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세례 프락시스의 행동 지향적 관점(미래)에 따라 세례의 교육적·예전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세례의 성경적 관점과 초기 교회에서 나타난 세례 프락시스는 이후에 보편적으로 성인세례에서 유아세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본래적 세례 프락시스와는 멀어졌다.”며 특히 신앙 교육적·윤리적·교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연구자는 또한 “초기 교회에서 세례 전의 세례예비자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형성하던 세례는 단지 예식의 행위로만 축소되었다.”고 진단한다.

연구자는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세례 프락시스는 약 천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서방 교회에서 본질적 차원들을 상실했다고 정리한다. 연구자에 의하면 세례의 주변화는 첫째, 세례의 신앙 교육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둘째, 세례 후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도유와 이와 함께 성령의 수여를 위한 중요한 표징이 견진성사로 분리됨으로써 세례의 윤리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셋째, 세례예식은 공동체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짐으로써 교회공동체적 차원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세례에서 유아세례로 전환되면서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이 예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짐으로써 세례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세례 프락시스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목회자나 성도는 세례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고, 교육기간 역시 단기간에 실행되며, 그 내용도 교리중심이고, 교수법 또한 주입식이다. 이로써 세례교육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저출산율로 인하여 유아세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유아세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과 교육교재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과 예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자는 세례 프락시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미래)으로 세례의 교육적·예전적 모델을 제안하며, 목회현장에서의 세례교육을 강화, 세례의 예전 모

델로서 세례예배 자체와 세례경축의 지속적인 기획, 효과적인 세례회상을 위해 교회력 관련 적용을 제안했다.

2. 공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교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한국교회 멤버십 문제와도 연결된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세례 프락시스에 대한 이번 연구는 한국교회의 멤버십 문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세례 전의 세례예비자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형성하던 세례”라는 초대교회의 세례 모델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세례는 단순한 ‘예식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포괄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자의 논지는 앞으로 한국교회 세례 프락시스가 회복해야 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질문과 보완점

1) 성령의 은사 행위로서 세례와 관련된 “세례 후 도유”의 약화가 어떻게 ‘윤리적 약화’와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세례 후 도유’를 통해서 과연 한국교회 교인들의 윤리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이다.

2) 연구자는 “성찬 없는 세례가 거행됨으로써 성찬이 세례로부터 분리”됨으로 “교회론의 의미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구자는 “오늘날 세례는 더 이상 주일 공동체예배의 중심부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예식조차도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찬과 세례가 분리되지 않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아세례의 폐지인가? 아니면 열린 성찬인가? 세례와 성찬의 분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3) “경험적 관점(현재): 양적 · 질적 연구의 결과와 세례열망의 동기”부분에서 “독일 교회에서의 세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한국의 세례 상황 연구 결과’가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세례와 관련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양적 질적 연구가 보완된다면 더욱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앞으로 열릴 2018년 9월 예정고신 총회에 정인지체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서울남부노회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례의 신앙교육적 측면의 강조와 정인지체장애인 세례라는 부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연구자가 제시한 “세례상징들의 적극적 활용 부분”을 신앙교육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신앙교육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한 예배학적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발표 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김준식 (하늘빛교회)

I. 들어가는 글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1세기라는 변화와 변혁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공감하듯 성장을 멈추고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예배당이 비어가는 유럽교회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등 작금의 한국 교회 상황을 걱정하는 여러 목소리들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교회 예배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예배와 더불어 함께해 왔고, 예배를 통해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 교회의 성장이 예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하며,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에 한국 교회는 나름 예배 갱신의 진두에 선 예배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배 갱신의 당위성을 주기적으로, 주도적으로 펼쳐왔다. 그런데 최근에 예배를 교단 신학의 테두리에 담고 그 안에서 갱신하고자 하는 시도를 넘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예배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백석학원¹⁾에서 펼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에 논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 예배는 어떤 부분에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충족할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개혁주의 생명신학

1)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4), 12. 백석학원은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1976년 11월 1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말씀을 붙잡고 설립하였고, 그 아래로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신학교와 기독교연합신문사를 두고 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재산 선취권 등 그동안의 가톨릭의 악습에 대한 95개 조항에 붙임으로써, 전 유럽에 큰 반향을 일구며 태동되었다.²⁾ 이 영향력 아래에 있던 칼빈은 당시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재조직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닦았다.³⁾ 특히 도르트 회의에서 결의된 신조(The Canons of Dort, 1619) 즉, 칼빈주의 5대 교리(TULIP)는 개혁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는데 있어 모태가 되었다.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i),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⁵⁾ 하지만 5백년이 지난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개혁주의의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꺾이고 있다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력에 관한 것으로, 그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교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정교한 신학을 가진 나라일수록,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에서 우린 그 안의 인간의 지혜는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⁶⁾ 둘째, 최근 신학계에 논의 되는 바 소위 ‘생명신학’(Life Theology) 때문이다. 이 생명신학은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던 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등을 통합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여러 전통종교사상으로부터 영감으로 끌어오고 있다.⁷⁾ 신학의 신학함에 있어 본질보다 비본질적 요소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학의 사변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학이 죽어 있다는 것이다.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지성과 이성만 만족함으로써 그 본래적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⁸⁾

이에 2003년 10월 25일 백석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일성으로 시작하여, 드디어 2010년 5월 21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⁹⁾ 다음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의이다.

2) Lion Publishing ed,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60.

3) Lion Publishing ed, 『교회사 핸드북』, 380.

4) 김태철,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33-34.

5) 설립3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백석신학연구소 편, 『백석학원 신앙선언문』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6), 17-18.

6) 설립3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백석신학연구소 편, 『백석학원 신앙선언문』, 37.

7) 설립3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백석신학연구소 편, 『백석학원 신앙선언문』, 37-38.

8)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16.

9) “우리 대학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있습니다”, <백석선교신문> 45호, 2010년 06월 01일자 1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¹⁰⁾

이러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존 개혁주의의 5대 *Sola*를 강조하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실천운동으로 모두 일곱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려는 신앙운동이다. 둘째, 신학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코자 하는 신학회복운동이다. 셋째, 회개용서운동이다. 넷째, 영적생명운동이다. 다섯째,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실현 하는 하나님나라운동이다. 여섯째,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운동이다. 일곱째, 이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성령운동이다.¹¹⁾ 그렇다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의 예배갱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예배는 칼빈과 그 후예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개혁주의 초기 예배의 실례는 칼빈의 “The Form of Church Prayers”(교회예배모범, 1542)와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웨스트민스터 공중예배 지침서, 1644)에 잘 나타나 있는데,¹²⁾ 그것은 다름 아닌 개혁주의 5대교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 예배의 모습은 개혁주의 예배의 본래적 모습에 충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사뭇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예배 상황이다. 이에 예배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 예배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김상구는 한국 교회 예배는 첫째,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 둘째, 상징적인 측면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¹³⁾ 셋째, 회중들이 직접 예배 구성원이란 느낌을 갖지 못한다.¹⁴⁾ 넷째,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삶과 괴리되고 있다고 말한다.¹⁵⁾ 또

김태철,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실천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16 재인용.

10)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17.

11)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18.

12) James A. De Jong, 『개혁주의 예배』, 황규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4.

13)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85.

한 김운용은 현대 예배는 예배자들이 일종의 소비자가 되며, 그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⁶⁾ 그리고 이명희는 기복적인 예배관, 인간중심적인 예배, 예배 순서의 경직성, 예배와 생활의 분리, 주정주의적 예배가 예배 갱신 사항임을 주장한다.¹⁷⁾ 더불어 조기연은 비논리적 예배, 통일성의 결핍, 경외감의 결핍, 진행감의 결핍, 상징성의 결핍, 참여도의 결핍, 성례전의 결핍 등 이른바 결핍의 요소를 예배의 문제점으로 말한다.¹⁸⁾ 또 다른 것으로 박은규는 한국 교회 예배가 규칙적인 모임이나 창의적이지 못하며, 열심 있는 집회이나 적합한 참여를 조장하지 못하며, 개인적인 위로와 치유를 일으키나 공동적 성격과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고 강조하며,¹⁹⁾ 더불어 한국 교회의 예배신학의 빈약함을 지적했다.²⁰⁾

이상과 같은 현대 한국 교회 예배에 대한 예배학자들의 예리한 지적에 대하여 논자 역시 공감하며, 논자가 나름대로 파악한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문제로서, 인도자와 회중이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 내지 자기애(愛), 자기만족을 내세운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배신학적 문제로서,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가 실종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배 전체의 주제와 흐름, 순서와 요소에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맥락이 짙게 배어 나와야 됴도 불구하고, 예배 인도자들은 특정 주제만을 요구하는 회중의 시류 편향성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예배 구조적인 문제로서, '원 포인트(One Point)' 예배와 파편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 포인트 예배란 논자가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견해로서, 예배 인도자의 주관과 생각이 예배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한 가지 특정 주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예배를 말한다. 또한 파편화된 예배란, 예배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예배를 말한다.²¹⁾ 넷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서, 지난 30년 동안 예배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교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바로 회중과 인도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²²⁾ 이로 보건데 현대 예배에서도 당연히 인도자와 회중의 상호간의 쌍방향식 소통이 발전해

14)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62.

15)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92.

16)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50.

17) 이명희, 『현대예배론』(서울: 대전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406-12.

18) 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 갱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7-65.

19)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26.

20)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34.

21) Robert E. Webber, 『예배학』, 이승진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48

22) 이우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를 통해 바라본 본문과 청중의 관계", 『3인 3색 설교학 특강』(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73.

야하지만²³⁾, 요즘 현대 예배에서는 인도자와 회중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²⁴⁾ 또 그와 연관된 교회력과 성서정과를 도외시한 예배를 드린다는 점, 예배 자체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교회 비전이나 특별한 목적에 치중하는 의도된 예배를 드린다는 점, 예배 인도자가 지나치게 교훈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논자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한국 교회 예배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에, 예배는 생명이 풍성히 담겨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지향해야 하며,²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이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것이다.²⁶⁾ 바로 이런 한국 교회 예배에 대한 진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생명’과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논자는 이에 대해 숙고하며 그 대안으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하는 바이다.

3. 내러티브의 이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다.²⁷⁾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다는 말은 어떠한 한 이야기가 성경 전 영역에 걸쳐 녹아 내재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경은 서로 다른 많은 저자가 존재하고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지만, 놀랍게도 서로 충돌되지 않은, 시작과 끝이 일관된 주제를 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학문적 용어로 ‘내러티브(Narrative)’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러티브 기법(Narrative Art)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 사용된 아주 특별한 저술방법이기도 하다.²⁸⁾ 논자는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 내러티브 예배를 알아보기 전, 여기서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한다.

1) 내러티브의 어원과 정의

내러티브(Narrative)란 용어는 원래 라틴어 ‘Narratus’라는 말에서 나왔다.

23) Robert E. Webber,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136.

24) 김상구, 『일상생활과 축제로서의 예배』 (서울: 이레서원, 2002), 405.

25)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349.

26) 최고센, “생명을 살리는 예배회복운동-회복의 신학적 입장에서 접근-”, 『생명을 살리는 예배와 설교』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2), 41

27)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서울: 콤파출판사, 2015), 22.

28)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37.

‘Narratus’는 단순히 ‘말하다’(to Tell) 또는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다’(to Describe)의 뜻으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서사(敍事)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²⁹⁾ 이 서사(敍事)를 국어사전에서는 “사실이나 사건 따위를 그대로 적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³⁰⁾ 한국현대문학대사전에서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다.³¹⁾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시간의 선 후관계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될 때,³²⁾ 그것을 비로소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이야기 + 플롯(Plot))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³⁾ 특히 성경은 70%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이야기가 아닌 여러 장르들조차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³⁴⁾ 일정한 구조를 담고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사용해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논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와 플롯이 결합된 형태는 일반 서사문학과 성경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2) 서사 문학의 플롯

일반적인 서사 문학의 모든 내러티브에는 플롯이란 구조를 갖는다.³⁵⁾ 그것은 그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다는 것이다.³⁶⁾ 이 플롯이란, 이야기의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며 묘사되도록 해주는 인과관계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또한 재료인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인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간단히 이를 설명하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이야기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그런데 이 인공적인 재배열은 의미의 질서를 나름대로 지녀야만 비로소 플롯이 되는데,³⁹⁾ 플롯은 개별 사건들의 의미와 역할을

29)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39.

30) 민중서관 편,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0), 1377.

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3731&cid=41708&categoryId=4173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2017/04/25

32)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서울: 글누님, 2005), 63.

33) Donald E.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 외 5인 역 (서울: 학지사, 2009), 44-5.

34) 이연길, 『말씀묵회와 그 지평』 (서울: 쿤란출판사, 2005), 145.

35)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47.

36)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172.

37) Paul Cogley, 『내러티브』, 윤혜준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6.

38)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65.

39)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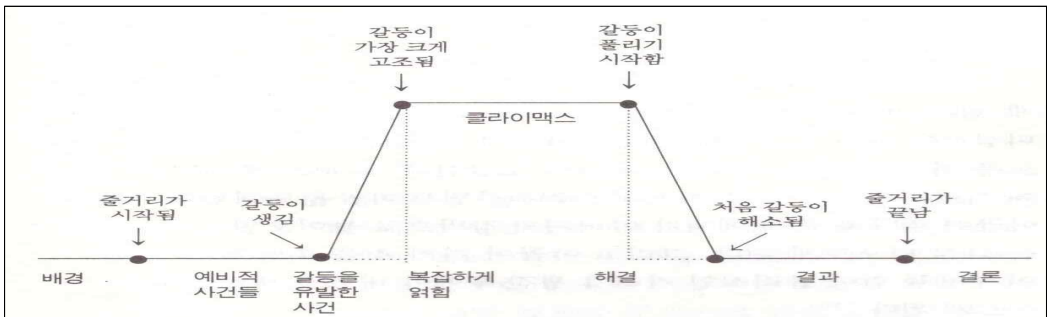
인식하여 조직하는 주제로서, 특정한 사건들이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을 짓도록 도식화한다.⁴⁰⁾ 그러므로 플롯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 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사건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문제는 플롯과 연결되어 있다.⁴¹⁾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플롯은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처음이란 뒤만 있고 앞은 없는 것이며, 중간이란 앞과 뒤가 모두 있는 것이며, 끝이란 앞만 있고 뒤는 없는 것이다. 처음과 중간과 끝에 합당하게 사건들이 배열되어야 하고, 각각의 사건들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야만 플롯의 의미는 생성된다.⁴²⁾ 이런 플롯의 구조 배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는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시작-중간-끝이 조화를 이루며 완결되어야 한다는 삼중 구조를 강조했다.⁴³⁾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플롯의 유형을 발전시켜 왔다. 일반적인 ‘기-승-전-결’(발전-전개-위기-결말)이라는 사중 구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오중 구조, 또한 ‘발단-발전-갈등-분규-절정(위기)-해결(화해)’의 육중 구조⁴⁴⁾ 등 다양한 플롯이 있다.

논자는 이제 일반 서사문학의 플롯에 이어 그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룬만에 의해 파악된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이다. <그림-1 참조>

<그림-1> 룬만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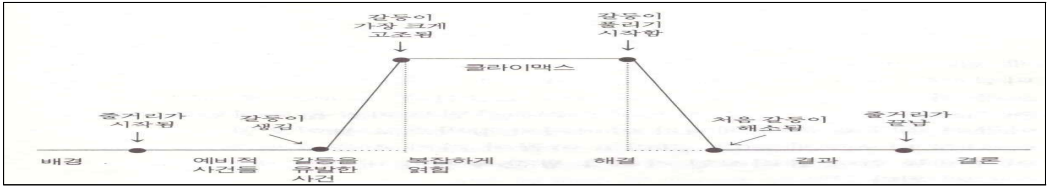
40)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55.

41) Daved Rhoads, Joanna Dewey, Donald Michie, 『이야기 마가』, 양재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15), 195.

42)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48.

43) 김만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서울: 연극과 인간, 2013), 3.

44) 김덕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5), 102.



롱맨에 따르면, 이야기의 구조는 “배경으로부터 시작해 갈등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갈등은 그 해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에서 갈등이 생겨나서, 우리를 그 중간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⁴⁵⁾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배경-갈등-절정-결론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메튜슨은 히브리 이야기의 서술적 설명(Expositon)과 위기(Crisis), 해결(Resolution), 그리고 결말(Conclusion)의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서술적 설명’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속성, 육체적인 모습, 생활 형편, 그리고 상호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등장인물에 관한 소개하거나, 지리적인 정황과 역사적 배경들을 언급한다. ‘위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이나 갈등, 혹은 심화와 같은 용어로 설명되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일단 갈등이 등장하게 되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해결국면을 향하여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 ‘해결’은 이야기가 위기를 지나서 해결에 도달하게 되면, 내러티브의 플롯은 그 절정으로부터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로 급진전하게 된다. ‘결말’은 이야기의 결과나 해결 단계의 후속 결과로서 주인공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이며, 독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제공하기도 한다.⁴⁶⁾

이 같은 성경 내러티브 플롯은 일반적인 서사 문화의 내러티브의 사중 구조인 ‘기-승-전-결 내지 발단-전개-위기-결말’의 유형과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네 단계는 보통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다 정점에 이르면, 독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곤 다시금 반전을 이루며 결말에 도달하는 진행을 가지고 있다.⁴⁷⁾

본자는 지금까지 내러티브의 어원과 정의, 일반 서사문학의 내러티브 플롯과 히브

45) Tremper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bervan, 1987), 92.; Sidney Greidanus,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중)』, 김영철 역 (서울: 여수문, 2000), 387; 이우제, 박영식,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계발: 룯기를 중심으로』 (서울: 대서, 2017), 175 재인용.

46) Steven D. Mathewson,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이승진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66-73.

47) 말씀목회공동체 편저, 『슬로, 바이블』 (서울: 두란노서원, 2015), 27.

리 내러티브 플롯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4. 내러티브 예배

세상 대부분의 종교에는 예배를 표방하는 다양한 예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가 세상 여타의 세속적 종교와 다른 점은 자의적 숭배 즉, 사람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예식을 설계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존속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된 예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의 예배는 아주 독특하게 성경이라는 경전에 기인한다. 이는 하나님의 신적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뿐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성경을 잡아야 하며, 성경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성경의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이에 논자는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어원을 시작으로,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까지 논하고자 한다.

1) 예배의 어원과 정의

예배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신을 높이 받들어 절이나 기도를 드리는 의식’이다.⁴⁸⁾ 이것이 기독교의 틀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전해지는 데,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으로서, 통상적으로 일요일 즉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일컫는다.⁴⁹⁾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예배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이 기록된 시기, 언어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그 의미와 내용은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⁵⁰⁾

먼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샤하’(שָׁחָ)라는 말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의 뜻으로, 창세기 24:26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종의 행위’나 출애굽기 34:8에서 보는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는 모세의 행위’가 그 예가 된다.⁵¹⁾ 또한 ‘아바드’(עָבַד)는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 예배에 사용된 ‘봉사’ 또는 ‘섬김’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했으며, 이 단어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부터(출 3:12) 제물

48) 토박이 사전 편찬실 편, 『보리 국어사전』 (서울: 보리, 2008), 959.

49) 이명희, “예배의 정의”,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 2001), 14.

50)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94), 7.

51)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99.

을 드리는 일이나,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⁵²⁾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흔히 예배를 지칭하는 헬라어 용어로 사용된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έω)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엎드리는’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예수께서 수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낱말을 사용했다.⁵³⁾ 또한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라는 단어는 원래는 고대 희랍에서 시나 국가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뜻하는 단어였고, 이것이 예배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이 하는 노동 내지는 봉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에 이 말은 특별히 기독교의 예전(Liturgy)을 나타낼 때 사용되곤 했다.⁵⁴⁾ 또한 영어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Worship’은 앵글로색슨 어인 ‘Weorthscipe’, 즉 ‘Worth(가치)와 Ship(신분)’에서 유래했는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⁵⁾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그의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⁶⁾ 그리고 독일어의 예배에 해당하는 ‘고테스딘스트’(Gottesdienst)는 하나님(Gott)과 봉사 혹은 섬김(Dienst)의 합성어이다. 이는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섬김’을 의미한다. 브룬너에 따르면 ‘고테스딘스트’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게 하신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이며 동시에 이 봉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회중의 행위라는 것이다.⁵⁷⁾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영어와 독일어 등에 사용되고 있는 예배의 어원들을 통해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 각각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먼저 종교개혁의 시작을 연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⁵⁸⁾ 에베린 언더힐(Evelyn Underhill)은 “모든 등급과 종류의 예배는 피조

52)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17.

53) 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정진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9.

54) 주승중, 『다시, 예배를 꿈꾸다』 (서울: 두란노, 2014), 43.

55) 황성철, 『예배학』, 16.

56)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강귀봉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30.

57)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101.

58) Peter Brunner, *Worship in the Name of Jesus* (St. Louis:Concordia, 1968), 123;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상구·배영민 역 (서울: CLC, 2017), 31.

물의 영원자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정의 했으며,⁵⁹⁾ 로버트 G. 레이번(Robert G. Rayburn)은 “신자의 새 생명의 활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격(Godhead)의 충만과 그의 강력한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합당한 영광, 존귀, 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⁶⁰⁾ 또한 로버트 E. 웨버(Robert E. Webber)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이며,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백성은 찬양과 감사로써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으며,⁶¹⁾ 제임스 F. 화이트(James F. White)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재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나타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⁶²⁾

논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의 어원과 여러 예배신학자들의 예배 정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논자가 나름대로 파악한 예배의 특징들을 통해 성경적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이다.”

여기 논자가 내린 성경적 정의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대화(Dialogue)이다.⁶³⁾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라는 상호작용(A Dialogic Interaction)을 이스라엘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⁶⁴⁾. 이것은 예배의 정의의 요소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며, 이야기와 플롯의 결합이라는 내러티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2)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

논자는 이미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이다.”라고 예배의 성경적 정의를 밝혔다. 그렇다면 논자가 결론 내린 예배의 정의와 논자가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예배와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논자는 여기에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논자가 주장하는 내

59) Evelyn Underhill, *Worship* (Scranton: Harpar & Row, 1936), 3.

60) Rayburn, 『예배학』, 30.

61)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12.

62)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36.

63) 논자는 월터 브루그만이 주장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라는 상호작용-여기 상호작용에는 말씀이라는 부르심과 몸짓을 비롯한, 찬양, 진실 말하기 등의 인간의 응답이 포함됨-이라는 견해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64) Walter Brueggemann,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28.

러티브 예배의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논자는 ‘내러티브의 이해’에서 예배의 신학적인 기초 곧 프레임(Frame)이 내러티브임을 밝혔다. 이미 언급한 것 같이 내러티브는 ‘시간의 선후관계가 있는 사건의 연쇄적 이야기’이며,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예배 역시도 성경 속에 전개된 내러티브를 예배라는 시공간으로 가져와 그대로 펼쳐내고 있다. 하지만 예배 속에 내러티브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내러티브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든지, 그것을 내러티브 예배라고 속단하여 일반화하기에 이론적 주장으로 빈약할 수 있기에, 논자는 여기에서 예배가 내러티브 예배라고 주장하기에 합당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 내러티브 예배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논자가 이미 밝힌 대로 서사문학의 플롯과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는 행동이나 사건들이 담긴 이야기들의 선적인 배열로 이루어지는데, 그 배열은 반드시 질서가 있다. 아무런 질서 없이 배열한 행동이나 사건들은 서사가 되지 못한다.⁶⁵⁾ 둘째, 내러티브에 있어서 시간적 질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인과적 질서이다.⁶⁶⁾ 만약, 한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에서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성된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없다. 셋째, 이러한 인과관계는 독자들이나 청자, 회중에게 어떤 사건의 전개나 행동에 그럴듯한 개연성(Probability)을 가져다준다.⁶⁷⁾ 넷째, 특히 이런 내러티브가 성경에 사용되는 것은 이야기가 가지는 힘 때문이다. 그건 바로 청자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 내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있다.⁶⁸⁾ 다섯째, 그것은 또한 성경에 기술된 내러티브가 히브리적 내러티브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헬라적 내러티브는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하는데 반해, 히브리적 내러티브는 마치 물 흐르듯 이야기 속에서 말하려 하는 의도를 묻어두며 전개한다.⁶⁹⁾ 여섯째, 이러한 내러티브는 저자로부터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기에,⁷⁰⁾ 말이나 글이라는 언어 체계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림이나 몸짓, 표

65)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67.

66)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68.

67)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69.

68)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42.

69)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40.

70) D. F. Tolmie, 『서사학과 성경 내러티브』, 이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18.

정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호체계에 의해서 전달된다.⁷¹⁾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성경적 내러티브의 특징들은 논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배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와 요소들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논자는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 예배가 담고 있어야 할 것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예배는 첫째, 일정한 질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 예배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42와 누가복음 24장 등에서 예배가 일정한 질서인 구조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 둘째, 예배 순서의 전후 간에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 예배의 요소와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시내산의 예배(출애굽기 19-30장)와 성전예배(대하 28-29장)에서 예배의 여러 요소들과 구성들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조직되어 있다. 셋째, 일관된 주제와 이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 예배의 주제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다.⁷²⁾ 성경은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요 4장). 넷째, 예배에 함께 하는 인물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러티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인간은 거기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구약의 여호와와의 사자와 구약 인물들과의 대화,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대화 등; 신약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등).⁷³⁾

그러므로 논자는 이미 정의한 바 있는 성경적 예배의 정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이라는 것에, 성경적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를 내려 본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⁷⁴⁾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⁷⁵⁾)과 커뮤니케이

71) 최예정·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61.

72) Sidney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역 (서울: SFC, 2011), 156.

73) H. J. C. Pieterse,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역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53-54.

74) 논자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내러티브 예배를 이루는 아주

션을 통해 활성화 된 예배”

이제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다룸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내러티브 예배에 다가서고자 한다.

5.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서사 문학의 플롯은 글 전체를 이루는 뼈대를 말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플롯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중간-끝’이라는 단순한 플롯을 비롯하여, 일반문학에서의 ‘기-승-전-결’이라는 사중 구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오중 구조, 또한 ‘발단-발전-갈등-분규-정절(위기)-해결(화해)’의 육중 구조 등 여러 플롯의 전개가 있다. 또한 성경 내러티브 플롯도 역시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었고, 실행되고 있는가? 논자는 여기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 예식서에서 선보이고 있는 사중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논자의 새롭게 제안하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찾아내고자 한다.

1)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

먼저 예배의 사중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살펴보자. 예배의 사중구조는 사도행전 2:42의 말씀에 기인한다. 물론 이것을 예배의 이중구조의 근거로 보기도 하지만, 사중구조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 구별된 ‘가르침’, ‘교제’, ‘빵을 떼’, ‘기도’의 행위 때문이다. 이것을 보다 확장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절 저녁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만남에서도 사중구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체리(Cherry)는 누가복음 24:13-35장에서 예배의 사중구조를 찾고 있는데,⁷⁶⁾ 모임의 예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눅 24:13-24)에서, 말씀의 예전을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눅 24:25-27)에서, 성찬의 예전을 식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눅 24:28-32)에서, 파송의 예전을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감동시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는 장면(눅 24:33-25)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표를 만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중요한 요소라고 특징짓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대화이며,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75) 논자는 다양한 내러티브 플롯(起-承-轉-結 & 발단-전개-위기-결말 &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 ‘발단-발전-갈등-분규-정절(위기)-해결(화해)’)과 히브리 이야기의 두 가지 내러티브 플롯 중 예, 예배의 사중구조와 관련이 있는 사중구조 형식의 플롯을 차용하되, 논자 나름대로 이해한 내러티브 플롯인 발단-전개-절정-결말을 사용하여 이후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76) Constance M. Cherry, 『예배건축가』, 양명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109.

<표-1> 예배의 사중구조

	사도행전2:42	누가복음 24:13-35
모임의 예전	교제	그리스도가 다가감
말씀의 예전	가르침	그리스도가 가르침
성찬의 예전	떡을 떼	그리스도와의 식탁
파송의 예전	기도	그리스도의 파송

뿐만 아니라, 체리는 예배의 사중구조를 복음의 순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⁷⁷⁾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논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표-2> 참조.

<표-2> 예배의 사중구조와 복음의 순서

	복음의 순서와의 유사점
모임의 예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의 예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다. 살아 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세상에 내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이시다.
성찬의 예전	그 계시는 응답을 요구한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참 제자로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다.

77) Constance M. Cherry, 『예배건축가』, 112.

파송의 예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파송을 수반한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의 세상에서 적극적인 대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이다.
---------------	---

예배의 사중구조 중 첫 번째는 모임의 예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다는 사실이 주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한다. 예배의 사중구조 중 두 번째는 말씀의 예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죄로 가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다. 이것은 복음 제시에 있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예배의 사중구조 중 세 번째는 성찬의 예전으로서,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이것은 복음 제시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라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사중구조 중 네 번째는 파송의 예전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자의 결단은 일상이라는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증인의 삶으로 초청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이제 논자는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에서 보다 발전되고 논자의 논지와 맥을 같이하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예배는 내러티브가 예배를 통해 회중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그 기본이 되는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같으나, 그 전개 흐름에 있어서는 내러티브 플롯의 사중구조와 닮아 있다. 논자는 이에 발단-‘전개’-‘절정’-결말이라는 내러티브 플롯을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 접목하고자 하며, 그 구조를 ‘도입’, ‘전환’, ‘절정’, ‘적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표-3>를 통해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논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내러티브의 플롯, 롱맨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매튜슨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를 정리하고, 그것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표-3> 참조.

<표-3> 사중구조의 플롯들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내러티브 플롯 ⁷⁸⁾	발단	전개	위기	결말
	등장인물이 소개되거나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	주인공의 행동이 전개되고 인물의 성격이 정착과 아울러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개와 분규가 마무리 지어지는 정점	등장인물이 분명해지는 부분으로서, 실패 혹은 성공의 순간이며 등장인물이 자기 자신의 맨 마지막 위치를 이해하는 순간, 혹은 독자가 등장인물의 위치를 마침내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룽만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⁷⁹⁾	배경	갈등	해결	결론
	이야기의 배경	갈등을 유발한 사건을 통해 갈등이 고조됨	갈등이 풀리기 시작하고 갈등 해소를 향해 나아감	이야기의 결과가 나타나고 결론에 이름
매튜슨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⁸⁰⁾	서술적 설명	위기	해결	결말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갈등이 생겨 긴장감이 고조되고 해결국면을 향해 이야기가 전개 됨	이야기는 위기를 지나 갈등의 해소로 나아감.	이야기의 결과나 해결 단계의 후속 결과로서 주인공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	모임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파송의 예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받는다.	말씀 앞에 선다.	식탁으로 나아간다.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도입	전환	절정	적용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함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잠식된 생각과 마음. 삶에 일대 전환을 경험함	말씀으로 전환을 경험한 자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절정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게 함	성찬을 통해 절정을 경험한 자가 마음 속 결단과 다짐을 삶의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함

<표-3>과 같이 내러티브 플롯,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와는 일견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한다.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내러티브 플롯과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의 전개와 흐름을 차용했고,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일반 예배의 모임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도입부분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하지만 ‘도입’은 그 전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마음 열기이다.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의 초청이라는 모임의 예전의 시도를 넘어선다. 둘째, 일반 예배의 말씀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전환부분은 그 위치가 같다. 그런데 ‘전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연 회중에게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잠식된 생각과 마음, 삶에 일대 전환을 경험케 하는 부분으로서 단순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셋째, 일반 예배의 성찬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절정부분은 분명 동일 선상에 있다. 하지만 ‘절정’은 말씀으로 일생일대의 전환을 경험한 자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절정’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는 부분으로서 한 마디로 예배의 절정을 경험하는 부분이다. 넷째, 일반 예배의 파송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적용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에서는 같다. 하지만 ‘적용’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경험한 자가 마음 속 결단과 다짐을 삶의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플롯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와는 차별된 ‘도입’, ‘전환’, ‘절정’, ‘적용’이라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예배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회중으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는 예배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6.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위한 내러티브 예배의 접근성

내러티브 예배가 지향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성경 속 구원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 경험되는 예배로서, 회중 개개인이 내러티브의 당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생명 잃은 회중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삶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자는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내러티브 예배는 근본적인 지

78) 유병로·조건상·강우식, 『문학개론』, 186-89. 저자는 Brooks와 Warren의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79) <그림-1>을 표로 정리.

80) 매튜슨의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을 표로 정리.

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에 논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7가지 실천운동을 전개 하는데 있어 내러티브 예배가 과연 어떠한 점에서 필요 적절한 예배인가에 대한 그 접근성에 관해 밝히고자 하고 그것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5> 참조.

<표-5>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실천운동에 대한 접근성 예시⁸¹⁾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실천운동	내러티브 예배
개혁주의 신학 계승하는 신앙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장종현 박사의 생명신학 주창 요지는, 신학이 이론신학에 머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내러티브 예배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이끌어 내는 신앙 고양 예배이다
신학회복운동	신학회복운동이란 신학의 생명성 회복을 지향하는 운동이라는 말이다. 이는 사람중심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문을 하나님의 학문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논자는 신학회복에 있어 예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바가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다. 삶의 예배는 논자가 주장하는 내러티브 예배의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적용부분의 강조는 내러티브 예배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개용서운동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회개용서운동은 이론적, 이성적 회개를 넘어선 감성적, 영적 회개를 지향한다. 이것은 예배의 회개가 삶의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예배는 일반적인 예배에서도 예배 요소에 도입의 순서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배 안에서만 머무르는 회개와 용서를 지양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회개용서를 지향한다.
영적생명운동	21세기는 개인영성의 시대이다. 논자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영성은 종교를 초월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영적생명을 지향하는 참된 영성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구원 중심의 참된 예배로부터 나오고 고양시킬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주요 논지이며, 본 예배가 지향하는 바다.

<p>하나님나라운동</p>	<p>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주제가기도 하다. 예배는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는 현상이요. 지금이란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된 내러티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맥이 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이미와 아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상이며, 논자는 이를 지향한다.</p>
<p>나눔운동</p>	<p>개혁주의생명신학의 나눔은 논자는 성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며, 회중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나눔 실천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눔운동의 시발은 성찬에 있다. 내러티브 예배는 바로 이 부분을 절정의 부분에서 특히 강조한다.</p>
<p>기도성령운동</p>	<p>내러티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논자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다. 특히 내러티브 예배에서 기도라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순서이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예배는 예배의 기도가 삶 속의 기도로 이어지도록 격려한다.</p>

Ⅲ. 나가는 글

현대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시대이다.⁸²⁾ 과거 농업화,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이제 바야흐로 스토리에 주목하고, 스토리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21세기 사람들은 이야기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⁸³⁾ 이처럼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⁸⁴⁾ 특히 하나의 감동스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곧바로 회자되고, 그것이 베스트셀러 책으로, 대형 뮤지컬로,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되고, 전세계인이 열광하는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한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의 이 같은 모습은 사실 과거에 이미 존재했는데, 이런 유형의 중심에 섰던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꾼(Storyteller)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81)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가 개혁주의생명신학에 얼마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본다.

82) 김만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서울: 연극과 인간, 2013), 20.

83) Steven D. Mathewson,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22.

84) 우정권, 『문명의 변화와 내러티브』 (서울: 월인, 2009), 134.

구원 역사를 알리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했다.⁸⁵⁾ 한 마디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다.⁸⁶⁾ 하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 즉 무구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진중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세상에서 존재감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선사하던 감동의 원천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예배 갱신은 다시금 성경 본연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 세상으로,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재현되고, 실현되고, 발현되는 현상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억되고 재현되어야 하며⁸⁷⁾, 그것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며,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넘어 미래로 전이되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동적인 구속의 드라마로 길이 남아야 한다.⁸⁸⁾ 논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서술이 잘 드러나야 하며, 이런 내러티브 예배가 현대 예배의 회복과 갱신에 있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예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의 핵심 요소인 생명 회복과 그 지향 바가 동일 선상에 있으며, 더불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실천운동이 자리 잡고 확장 일로를 걸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예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5.
 김만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서울: 연극과 인간, 2013.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_____. 『일상생활과 축제로의 예배』. 서울: 이레서원, 2002.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말씀목회공동체 편저. 『슬로, 바이블』. 서울: 두란노서원, 2015.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85) Haddon W. Robinson · Torrey W. Robinson, 『1인칭 내러티브 설교』, 전광규 역 (서울: 이레서원, 2009), 23.

86) Thomas G. Long,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61.

87) Webber, 『예배학』, 51.

88)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122.

- 설립3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백석신학연구소 편. 『백석학원 신앙선언문』.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6.
- 오택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 우정권. 『문명의 변화와 내러티브』. 서울: 월인, 2009.
- 윤병로·조건상·강우식. 『문학개론』. 서울: 문학아카데미, 1990.
- 이명희. “예배의 정의”.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 2005.
- _____. 『현대예배론』. 서울: 대전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 이연걸.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서울: 쿰란출판사, 2015.
- _____. 『말씀목회와 그 지평』. 서울: 쿰란출판사, 2005.
- 이우제.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통해 바라본 본문과 청중의 관계”. 『3인 3색 설교학 특강』.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 이우제·박영식.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룻기를 중심으로』. 서울: 대서, 2017.
-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장종현. 『백석학원의 설립정신』. 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4.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4.
- 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주승중. 『다시, 예배를 꿈꾸다』. 서울: 두란노, 2014.
- 최정예·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서울: 글누님, 2005.
-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 Underhill, Evelyn. *Worship*. Scranton: Harpar & row, 1936.
- Brueggemann, Walter.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Cherry, Constance M. 『예배건축가』. 양명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Cobley, Paul. 『내러티브』. 윤혜준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De Jong, James A. 『개혁주의 예배』. 황규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역. 서울: SFC, 2011_____.
- _____.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중)』.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2000.
- Lion Publishing ed.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Long, Thomas G.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athewson, Steven D.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Pieterse, H. J. C.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역.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Rayburn, Robert G. 『예배학』. 김달생·강귀봉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Rhoads, David. · Dewey, Joanna·Michie, Donald. 『이야기 마가』. 양재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15.

- Robinson, Haddon W. · Robinson, Torrey W. 『1인칭 내러티브 설교』. 전광규 역. 서울: 이레서원, 2009.
- Segler, Franklin M.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Tolmie, D.F. 『서사학과 성경 내러티브』. 이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Webber, Robert E.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_____.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 _____.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상구·배영민 역. 서울: CLC, 2017.
- 김태철.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3.
- 최고센, “생명을 살리는 예배회복운동-회복의 신학적 입장에서의 접근-”, 『생명을 살리는 예배와 설교』.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 2012: 41.
- 민중서관 편.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0.
- 토박이 사전 편찬실 편. 『보리 국어사전』. 서울: 보리, 200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3731&cid=41708&categoryId=4173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2017/04/25.
- <백석선교신문> “우리 대학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습니다”. <백석선교신문> 45호. 2010년 06월 01일자 1면.

[논평1]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논평

논평자 : 이돈규 박사 (새생명교회)

1. 논문 내용 요약

근래 들어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다시금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한국 교회 전체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침체는 가속도까지 붙어 상당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준식박사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본 논문에서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백석학원에서 펼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주창하는 한국 교회 예배 갱신을 소개하였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의는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논자는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점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하였다.

논자는 “성경은 서로 다른 많은 저자가 존재하고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지만, 놀랍게도 서로 충돌되지 않은, 시작과 끝이 일관된 주제를 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학문적 용어로 ‘내러티브(Narrative)’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러티브 기법(Narrative Art)은 성경 저자들에게 의해 사용된 아주 특별한 저술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사용해도 하등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논자는 일반 서사문학의 플롯인 ‘기-승-전-결’(발전-전개-위기-결말)이라는 사중 구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오중 구조, 또한 ‘발단-발전-갈등-분규-절정(위기)-해결(화해)’의 육중 구조와 더불어 히브리 내러티브 플롯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뿐 아니라 논자는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논자는 예배의 정의

에 있어 핵심 내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대화”에 두었다. 이것은 예배의 정의의 요소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며, 이야기와 플롯의 결합이라는 내러티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특징이라는 것이다.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가 담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내러티브 예배는 첫째, 일정한 질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예배 순서의 전후간에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내러티브 예배는 일관된 주제와 이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예배에 함께 하는 인물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를 내렸다. “내러티브 예배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성화된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인 예배에 다가서려는 접근을 하였다.

논자가 말하는 예배의 사중구조는 모임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파송의 예전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보다 더 발전한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 예배는 내러티브가 예배를 통해 회중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을 지향하며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그 기본이 되는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같으나, 그 전개 흐름에 있어서는 내러티브 플롯의 사중구조와 닮아 있다고 하였다. 논자는 이에 발단-전개-절정-결말이라는 내러티브 플롯을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 접목하면서, 그 구조를 ‘도입’, ‘전환’, ‘절정’, ‘적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소개하였다.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내러티브 플롯과 히브리 이야기의 플롯의 전개와 흐름을 차용했고,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째, 일반 예배의 모임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도입부분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지만 ‘도입’은 그 전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마음 열기로서 단순히 하나님 앞으로의 초청이라는 모임의 예전의 시도를 넘어선다. 둘째, 일반 예배의 말씀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전환부분은 그 위치가 같지만 ‘전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연 회중에게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잠식된 생각과 마음, 삶에 일대 전환을 경험케 하는 부분으로서 단순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셋째, 일반 예배의 성찬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절정부분은 분명 동일 선상에 있지만 ‘절정’은 말씀으로 일생일대의 전환을 경험한 자에게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절정’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는 부분으로서 예배의 절정을 경험하는 부분이다. 넷째, 일반 예배의 파송의 예전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

중 적용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적용'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경험한 자가 마음 속 결단과 다짐을 삶의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내러티브 예배의 목적을 생명 잃은 회중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삶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예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주창하는 7가지 실천운동(신앙 고양운동, 신앙 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운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 충분한 접근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논문의 특징 및 가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현실에서 한국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한 이 논문은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자칫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기 쉬운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자의 열정과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논평자는 본 논문의 특징 및 가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본다.

첫째, 논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라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승전결의 플롯을 성경의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으로 보고 이를 내러티브 예배로 확장시킨 점이 독특하다 하겠다. 즉,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내러티브)를 성경 자체에 국한 시키지 않고 이를 예배에 적용시켜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도입-전환-절정-적용)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예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둘째,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 예배에 생명력을 주기 위하여 사중구조의 과정 각 부분에 기승전결이라는 플롯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내러티브라는 용어는 설교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일반 문학에서의 기승전결(본 논문에서는 도입-전환-절정-적용) 전 과정에 적용 시킴으로 도입-전환-절정-적용이라는 각각의 예배 과정에서 예배의 생동감을 고양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셋째, 논자는 예배의 생명력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는 오늘날 예배의 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배는 많지만 그 안에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생명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논자는 이 문제를 생명신학과 연계하여 내러티브 예배와의 접근성에 대해 논지를 펼쳐나갔는데 이는 오늘날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예배 관습에 좋은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

진다.

넷째, 본 논문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 주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내러티브 예배를 예배 참여자 상호 간의 관계를 증진 시킴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하는 연구도 논자에게 기대를 해 본다.

3. 본 논문에 대한 제안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논자는 내러티브 예배를 통한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생명신학과의 접근성에 대해 논지를 펼쳐나갔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러티브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서술이 잘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배가 생명과 생명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서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생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둘째로, 논자는 논문 전체를 통해 내러티브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였음에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내러티브 예배가 내러티브 설교로 마무리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아쉬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평자는 이 논문이 한국교회의 예배 갱신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논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논평2]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윤훈중 (생명수샘교회)

1. 들어가는 말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다. 그렇다면 Christian A. Schwarz가 ‘생명체 원리’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스스로 자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 생명력을 상실한 듯 성장을 멈추고 침체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식 박사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현대예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현대예배가 내용과 형식에서 그 생명력을 상실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장종현 박사가 주창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제시했는데, 이 과업의중요과제로 “예배갱신”을 지적하고, 그 실천으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했다. 현대예배가 위기에 직면한 이때, 발제자가 현대예배를 갱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탁월한 진단이요 안목이라고 생각한다.

2. 논문의 내용 정리

본 논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교회의 예배의 갱신과 내러티브 예배”를 통해 생명을 잃은 회중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삶으로 나아가 그 생명을 전하며,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 예배”가 지향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성경 속 구원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 경험되는 예배로서 회중 개개인이 내러티브 당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발제자는 현대예배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문제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적으로 전도되고 있다. 둘째, 예배신학적 문제로, 예배에서 하나님 구원 내러티브가 실종되었다. 셋째, 예배의 구조적인 문제로, 예배가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예배 인도자와 회중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다섯째, 예배자의 삶의 문제로,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계되지 않는다.

발제자는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묶어낸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예배에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이 풍성히 담겨 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지향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제자의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진단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지향하는 ‘생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예배갱신을 주장한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은 개혁주의신학의 5대 표어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준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 실천을 위해 ‘7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발제자는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 예배를 제시하기 위해서 문학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요소를 가져와 현대예배에 접목하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 예배”에 대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성화 된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제시한다.

발제자는 전형적인 예배의 사중구조(모임예전-말씀예전-성만찬예전-파송예전)에서 벗어나,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을 차용하여 접목시켜,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도입-전환-절정-적용)을 도출시키고 있다. 곧 모든 내용과 형식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러한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는 예배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회중으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는 예배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이 ‘7대 실천운동’, 즉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을 전개하는데 “내러티브 예배”가 어떠한 점에서 필요 적절한 점인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 세상으로 삶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도해야 한다. “내러티브예배”야말로 ‘7대실천운동’이 자리잡고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예배가 될 것이다.

3. 논문에 대한 평가

본 논문 서두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 원인으로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생명력이 있는’, 즉 ‘살아 있는’ 예배를 거론한 것은 매우 성경적이며 이 시대에 부합하는 통찰이라고 하겠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발제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내러티브예배”가 주는 유익과 공헌

이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문학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요소를 가져와 현대예배에 접목하고 있는데, 성경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를 예배 구조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배자와 예배학계를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논문은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형적인 예배의 사중구조와 다른 예배의 사중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예배의 역동성과 생명이 넘치는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를 도출한 점은 아주 섬세하고 주도면밀한 논문의 가치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논의가 활발한 예배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접목한 것 또한 논문의 공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유익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내러티브 예배”의 이해에 그쳤다.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이론적 서술과 구조 및 순서의 예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제시가 없는 점이 아쉬웠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안된 “내러티브 예배”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배 인도자와 회중 사이에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텐데, 예배교육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러티브 예배”에서 회중이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짧은 지면과 연구시간의 한계로 그것을 다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후 후속 논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

4.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예배로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한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동기부여와 함께 예배자에게 귀중한 이정표를 제시해주었다. 교회예배를 고민하며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발제자의 수고에 감사한다.

[논평3]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에 대한 논평

이재욱 박사 (시냇가교회)

1. 들어가는 말

한국 기독교 예배는 서구의 현대 예배의 흐름과 맞물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환경과 시대 문화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예배에 대하여 신학적 고찰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다면 커다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¹⁾ 현대 예배를 압박하는 문화적 요구들은 사용하기 쉬운 접근, 회중의 참여를 통한 예배의 적극성, 경험의 내포, 전자 악기의 증가, 현대 음악적 측면, 다양성의 예배, 다른 예배의 경험 등이 있다.²⁾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 무리한, 무분별한 변화들은 예배를 더 큰 압박으로 이끌게 된다. 시대 상황과 문화에 맞추어 예배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고 여러 문제를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배의 양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변화해 왔지만, 앞으로 변화할 방향성 즉, 예배갱신은 본질을 추구하는 올바른 예배 회복 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³⁾ 따라서 어떠한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기준이 요구된다.

2. 본 논문의 논지와 주요 내용

본 논문의 논지는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대안으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하는 것이다. 김준식 박사는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내러티브 예배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내러티브

1)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54. 현대 예배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춤과 상징 및 음악적 요소들이 배려된 예배 구성을 시도하지만 신학적으로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Elmer Towns, 『예배전쟁의 종결』, 이성규 역(서울: 누가, 2000), 25.

3) Robert E. Webber,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이승진 역(서울: CLC, 2011), 85-112. 웨버는 그의 책 '4장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이야기가 사라진 이유'에서 오늘의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이 과거의 예배와 연결하여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고대사, 중세사, 종교개혁사, 근대사, 현대사의 다섯 단계의 역사적 과정에 따른 예배의 발전을 다루며, 각 시대 마다 예배의 강조점이 변화되어왔음을 기술하고 있다.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성화 된 예배”로 정의하고, 내러티브가 갖는 특징들을 신학적으로 조망하고 예배갱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과 내러티브 예배의 적용 점을 제안하면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필자는 논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배갱신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둘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예배에 대한 이해, 셋째, 내러티브 예배의 구체적 적용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예배갱신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제기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는 예배와 연관성을 가진다는데 주목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예배 문제를 지적한다.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문제, 예배 신학적 문제, 예배 구조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예배가 일상의 삶과의 연계되지 않는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예배에 대한 이해이다.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하기에 앞서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내러티브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간의 선후관계로 구성된 것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이다. 여기서 조직적인 도식인 플롯은 내러티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플롯은 이야기의 사건들이 연결되고 상관관계를 이루며 묘사되도록 해주는 인과관계의 사실이다.⁴⁾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이야기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적인 재배열은 나름의 의미 질서를 지녀야 플롯이 된다. 플롯은 개별 사건들의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여 조직하는 주제로서, 특정한 사건들이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을 짓도록 도식화한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내러티브의 이해를 토대로 내러티브 예배의 정의를 내린다. 내러티브 예배를 과정에서 먼저 예배의 신학적 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예배의 어원과 여러 예배 신학자들의 예배 정의에 근거하여, 예배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으로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준식 박사는 이러한 예배의 정의와 앞서 살펴본 내러티브의 이해를 통해 내러티브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러티브 예배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내러티브 플롯(발단-전개-절정-결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성화 된 예배”이다.

셋째, 내러티브 예배의 구체적 적용방안이다. 내러티브 예배의 구체적 적용 방안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실천의 적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운동’으로서 내러티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하게 이끌어 내는 신앙 고양 예배이며, ‘신학회복운동’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 내러티브 예배의 강점이

4) Paul Cobby, 『내러티브』, 윤혜준 역(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6.

기도 하다. '회개용서운동'으로 내러티브 예배는 단순히 예배 안에서만 머무르는 회개와 용서를 지양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회개용서를 지향한다. '영적생명운동'에서 영적생명을 지향하는 참된 영성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구원 중심의 참된 예배로부터 나오며 고양시킬 수 있다. '하나님나라운동'의 실현으로 내러티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맥이 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이미와 아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 '나눔운동'의 적용에 있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나눔은 성찬에서 출발하며,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며, 회중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나눔 실천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예배는 바로 이 부분을 절정의 부분에서 특히 강조한다.⁵⁾ 마지막으로 '기도성령운동'이 내러티브 예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성령의 역사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내러티브 예배에서 기도라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순서이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예배는 예배의 기도가 삶 속의 기도로 이어지도록 격려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준식 박사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배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예배갱신의 대안으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내러티브의 이해와 예배의 신학적 정의를 통해 내러티브 예배를 정의하였다. 나아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실천의 적용의 가능성으로 내러티브 예배를 제안하고 있다.

3. 본 논문의 논평

본 논문은 내러티브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주장하면서, 예배갱신의 기준이 예배의 본질과 목적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바이며, 내러티브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하여 제시한 내러티브 예배는 신학적 모색과 반성을 통해 올바른 예배 신학을 견지한다. 특히, 내러티브 예배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실천을 통해 확장하여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적 예배갱신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다.

김준식 박사는 내러티브의 의미와 예배갱신의 가능성을 함께 살피면서, 보다 적

5) 필자는 나눔 운동의 내러티브 예배의 절정으로 강조된다고 역설한다.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성찬이 내러티브 예배의 절정이라는 것인지? 나눔 운동이 내러티브 예배에 핵심이라는 의미인지 알고 싶다.

극적으로 한국교회 예배갱신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예배 안에 회복되어 세상과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억되고 재현되어야 하며⁶⁾, 세상에 전해지고, 세대를 아울러서 미래로 전이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적극 공감한다. 한국교회의 발전과 예배갱신을 위한, 특별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논문이라 여겨진다.

다만, 필자의 작은 지력이 논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논문을 읽으며 느꼈던 궁금증과 아쉬운 부분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점에서 예배갱신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문제, 예배 신학적 문제, 예배 구조적인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러티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해소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둘째, <표-3> ‘사중구조의 플롯들과 내러티브 예배의 사중구조’에서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예배의 사중구조가 갖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성찬의 예전이 ‘식탁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은 전후로 서술한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에서의 성찬 예전의 의미에서도 벗어나 보인다. 분명, 예배의 사중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한 응답과 성찬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정리되어 있다.⁷⁾ 성찬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상징하며, ‘아남네시스’의 의미를 갖는다.⁸⁾ 일반 예배의 사중구조에서 성찬의 예전에 대한 표현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셋째, 내러티브에서 이야기와 플롯이 갖는 위험성과 주의 점에 관한 내용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와 플롯으로 구성된다. 내러티브의 이해에서 이야기가 갖는 허구성과 플롯의 인위적 구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주의 할 것에 대한 안내가 요구된다. 내러티브 예배를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서 내러티브 예배에 관한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러티브가 성경 속 구원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 경험되는 예배로서, 회중 개개인이 내러티브의 당사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배의 정의에서 “예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차원의

6) Webber,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51.

7)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12 참고.

8) Webber,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210.

응답 즉 대화(Dialogue)가 조화를 이루는 향연”이라는 점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라는 상호작용(A Dialogic Interaction)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러티브 예배의 구체적 실행의 연결 고리이자, 중요한 과제는 회중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는 것이다.⁹⁾ 그렇다면, 내러티브 예배에 있어 회중의 적극적이며 능동적 참여를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이 필요하다.¹⁰⁾

4. 나가는 말

본 논문이 한국교회 예배갱신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 평가하며 김준식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대안으로 내러티브 예배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김준식 박사의 논문의 논평을 통해 예배갱신의 새로운 대안인 내러티브 예배를 더욱 자세히 알아 볼 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바이다. 본 논문을 통해 예배갱신에 관한 실천적 도약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이상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의 논평을 맡게 됨과 귀한 논문을 발제해 주신 김준식 박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논평을 마친다.

[참고 문헌]

-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 Towns, Elmer. 『예배전쟁의 종결』. 이성규 역. 서울: 누가, 2000.
- Cobley, Paul. 『내러티브』. 윤혜준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Webber, Robert E.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이승진 역. 서울: CLC, 2011.
- 김준식.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 예배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6.

9) 김준식 박사도 이점을 주지하고, “예배에 참석한 회중에게 경험되는 예배, 회중 개개인이 내러티브의 당사자가 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내러티브 예배”, 14 참고.

10)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김준식 박사의 논문을 찾아보았고, 그의 논문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 예배에 관한 연구”(신학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6)의 ‘제5장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 예배의 모델과 활성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접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방안 연구”



남상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세를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하고 윤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과 태도를 인식하게 한다.”¹⁾ 목회자는 세수자가 세례를 향한 바른 태도를 갖도록 설교와 함께 세수자의 마음에 성례의 효력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주시는 안수와 세례기도를 해야 한다. 세례후보자들은 세례예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세례를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세례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면 참석자들도 세례에 대한 지혜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는 회중에게 세례에 헌신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회중이 새롭게 믿는 사람을 위한 참된 가족이 되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유아세례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어떤 권능이 물속에 들어가게 됨을 믿는다.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향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세례교육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여 세례준비과정을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례 받는 교인들에게 세례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미미했기에 생긴 결과이다.²⁾ 선교초기의 한국장로교회는 세례의 중요함을 생각하여 선교사들이 직접 세례교육서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세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세례교육은 세례의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 한국교회는 세례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회자와 세례대상자, 그리고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세례예식은 유아세례 이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례교육을 실시하는 교회도 있지만

1) 최정일, “한국장로교회 문헌과 예식서의 통시적 고찰에 따른 세례신학과 세례예식 연구”(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4), 5.

2) 최정일, “한국장로교회 문헌과 예식서의 통시적 고찰에 따른 세례신학과 세례예식 연구”, 3.

3)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검춘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48.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세례교육의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로마의 간섭이 심했던 시기에 3년 정도의 세례후보자의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게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 개혁시대에는 교리교육이 중심이 되어 세례교육도 문답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대교회에서는 세례교육이 형식화에 되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세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신도들의 마음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접근이 어려워 세례의 진정성을 잃게 되어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원인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목회현장에서는 교회의 위기에 대응하고 진정한 세례교육의 회복을 위한 세례교육방법에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교육에서 세례의 의미를 토대로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적용한 세례교육의 모델과 세례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의 본문을 읽을 때 풍성한 이미지와 상징을 발견한 다음, 이를 염두 하여 읽는 부분에서 어떤 의례인지와 함께 세례예식의 진정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⁴⁾ 세례예식과 교육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불연속성 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중세에 들어오면서 유아세례의 영향과 종교개혁시대의 말씀중심 설교와 연관되어 문답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에서는 세례교육의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까지 시행되어 온 세례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운영, 그리고 세례교육의 유형과 함께 교회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1. 세례교육의 역사적 발전

초대교회의 세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위한 최초의 복음전도이며 구체적인 교회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예비과정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였다.⁵⁾ 세례교육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면서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⁶⁾ 세례는 초대교회 이후에 체계를 갖추고 발전하면서 현대에 이르러 많이 변화되

4)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07.

5)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서울: 대한기독교문서회, 2012), 108.

6) 송창현, “한국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박사학위논문 백

었다. 현대교회의 세례예식과 세례교육은 중세 종교개혁 이후 교리교육과 말씀중심의 영향을 받아 간소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초대교회의 세례에서 출발하여 중세 종교개혁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의 세례 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1) 초대 교회의 세례문헌과 세례교육

『디다케』 저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한 두 가지 길(Two Ways)을 세례후보자들에게 설명한다. 디다케 공동체는 세례후보자들에게 세례 전 일정 기간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⁷⁾ 이 공동체는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세례준비를 하여 신앙이 형성됨이 확인되면 세례를 베풀었다. 이 공동체의 세례교육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스티누스 제1변증문에서 기독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를 설득하여 기독교 가르침이 참이라고 믿게 하는 과정이다. 세례후보자는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회개한 후에는 물로 씻음을 조명받기 때문에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다.⁸⁾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키릴로스의 세례에 관한 『신비 교리』는 사순절 초입에 행하여진 것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전 초신자 교리의 강의 내용과 사순절 기간에 주어진 18편의 초신자 교리, 그리고 부활절 기간에 주어진 5편의 신비 교리로 시리아 교회의 전형적인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례교육과정은 새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후보자 과정으로 형식적 보다는 실제적 경험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⁹⁾ 질문형식의 신앙고백과 물세례 후 도유 같은 일부의식은 키릴로스가 서방으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는 세례후보자에게 약 3년간 교회의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이 끝나면 교육자에게 안수를 받게 하며 기도 교육을 한 내용이 있다. 신앙적 회심은 개인적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교회생활을 사회적 조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교육자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신앙을 온전히 성숙하게 한다. 후견인 제도는 세례후보자를 항상 도와주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사도전승』의 세례 전 도유예식은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사탄을 쫓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감사의 기름은 장로가 물에서 올라온 수세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은 물에서 나와 한 차례 도유를 행한

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54.

7)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122.

8)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244.

9)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16), 70.

후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간 후 수세자에게 다시 기름을 붓고 안수하며 은총을 내려 달라는 기도를 한다. 감독은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기름을 수세자에게 바르는 두 번째 도유를 시행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입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¹⁰⁾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수자들에게 행한 교육과 세례 받은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자의 가이드북으로 『기독교 교육』을 작성하여 교육자들에게 많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첫 창조, 아브라함의 순종, 출애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 하나님 안에서 삶, 깨끗한 물과 새로워진 심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례교육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성서적이며 교회력을 따라 행해지는 절기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다. 초대교회는 교리를 가르칠 때 교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대교회 교육자들은 교리내용이 어려워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신앙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였다.

2) 중세 종교개혁교회의 세례교육

츠빙글리의 교회개혁은 세례교육보다 교리교육을 중심에 두고 있어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교육으로 사회를 어우르는 확장된 교회를 표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 수단에 의해 전달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표징과 실재 사이를 구별하고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표징으로 주장하였다.¹¹⁾ 또한 유아 세례를 수용하고 세례 받은 유아는 성서를 기초로 올바르게 교육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행된 세례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시행된 것으로 다시 반복될 필요도 없고 다시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세례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다.¹²⁾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리교육과 기도의 중요성을 중점을 두고 문답식 교육에서 학습자와 교육자들이 질문내용을 말하거나 들을 때 설교의 주제나 내용을 함께 암기하게 하였다. 따라서 세례교육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부처는 말로써 같은 복음을 제공하는 것은 표징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례적 합법성은 오랜 전통에서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인 표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¹³⁾ 그는 세례가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은

10)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153.

11)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73.

12) 박기성, “한국감리교회 세례 프락시스의 갱신원리와 교육·예식에 대한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6), 38.

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라 하였다. 또한 세례에서 유아의 부모에게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독교 질서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를 포함한 성례를 중심에 두는 교리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세례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고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의식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논하지 않고 진정한 성례들의 본질을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다.”¹⁴⁾ 그리고 칼빈은 유아세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들로서 올바르게 강력한 표현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이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문답식의 교리교육서는 16세기 종교개혁시기에 나타났다.¹⁵⁾ 종교개혁시대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전체 129문답 중에 세례에 관하여 69-74문답에 명시되어 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107문답으로 되어 있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문답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답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인간의 죄, 구속자, 인간의 의무로서의 계명 준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례전, 그리고 주의 기도”¹⁶⁾를 다루고 있다. 종교개혁시대는 교리문답교육이 정착이 되어 세례예식에서 말씀 선포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세례교육은 교리문답교육의 영향을 받아 단순화되고 세례의 행위가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하게 되었다.

3) 현대교회의 세례교육

세례예식에서 공통적 사항은 필수적인 행위인 단절을 통해서 표현되는 윤리적인 변화, 삼위일체를 확증함으로써 표현되는 신앙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례는 씻음, 안수, 그리고 최초의 성찬에 집중하는 예식이다.¹⁷⁾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세례의 특성을 하나님의 제언과 인간의 반응으로 언약의 언어를 사용해왔다. 개혁주의 신학은 공통된 예식의 내용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예배서』에서는 세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형식과 언약으로 입문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국기독교 교단에서는 세례예식서를 발간하여 세례와 교육에 대한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 교단별 세례교육에서 성결교단은 초기에 학습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하고 세례문답의 교육을 통하여 세례를 주고 있다. 장로교단은 세례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교인이 되기 위한 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⁸⁾ 그리고 신앙과

13) W. John Riggs, 『개혁주의 세례신학』, 김상규, 김태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82.

14) Riggs, 『개혁주의 세례신학』, 122.

15)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74.

16) 최덕수, “한국교회의 세례예비자 교육갱신에 관한 연구.” 37-38.

17) White, 『기독교 예배학 개론』, 311.

18) 최덕수, “한국교회의 세례예비자 교육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49.

이에 대한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원입교인에게 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감리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세례를 받은 아동이 13세 이상 된 자와 원입교인은 1년 이상 교회를 충실히 출석하고 성경교리 공부를 하여야 한다. 침례교단은 세례대상자에게 보편적으로 1~2주 정도 전에는 세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심사를 통하여 침례탕 또는 강이나 냇물에서 세례예식을 시행한다.¹⁹⁾ 이 교단은 미국의 침례회의 세례방식에 의하여 초창기부터 세례의 학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침례교단은 개교회의 독립을 강조하고 회중적 민주제도를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례의식의 침례의례와 주의 만찬예식을 시행하고 있다.

2. 세례교육의 관리 운영

초대교회에서는 죄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세례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세례 전까지 매일 성경공부와 기도훈련을 하였으며 영혼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 의식과 영적분별교육을 받았다. 세례는 악마의 유혹을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눔 실천교육까지 시키는 전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례교육에 대하여 세례예비과정의 단계와 세례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세례예비과정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과 삶을 세례후보자가 실천하고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세례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세례예비과정, 세례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세례교육의 역할과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²⁰⁾

세례교육의 예비과정단계에서 복음화단계는 새신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새신자에게 선포하는 시간이다.²¹⁾ 이 단계는 세례교육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새로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심자를 도와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초적인 훈련을 한다. 교리교육단계는 입교과정의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세례후보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교회에 공적으로 알리는 교육을 한다. 이 단계는 강의와 교육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전도행위를 포함한 사회적 실천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입교예식단계는 세

19) 최덕수, “한국교회의 세례예비자 교육갱신에 관한 연구,” 49.

20) Michael W. Merriman, *The Baptismal Mystery and the Catechumenate* (New York: The Church Hymnal Cooperation, 1990), 7;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0에서 재인용.

21) Aidan Kavanagh, *The Shape of Baptism: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129;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1에서 재인용.

례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으로 끝나게 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다. 세례후보자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세례후보자가 성실하고 문제에 관해 잘 적응하면 교육시간은 행동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다.²²⁾

세례교육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 성서의 기원, 해석 방법, 그리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세례교육은 이러한 초기의 혼란을 회심자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도와주었다.²³⁾ 교육자는 세례교육 내용에 구원의 역사를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세례후보자는 신앙의 경험을 공식적 영역으로 구성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았다. 세례교육은 개교회의 정규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여 성서와 교리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 전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례예비자과정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과 세례예비자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회심의 경험도 함께 다루고 있어 교회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과례의 역할을 하였다.”²⁴⁾

세례후보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종말론적 실재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 함께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도성과 천국을 세례를 통하여 맛보게 되며 성찬에서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된다.²⁵⁾ 세례는 예전성, 정체성 그리고 연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전성은 입문성사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 세례교육의 참됨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에서 세례에 대한 준비 예전과정,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찬 순으로 입문성사가 예전의 형태로 진행되는 준비예전을 시행하였다.²⁶⁾ 세례의 정체성은 예식의례가 세례로 인해 새롭게 표현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확립하게 된다. 세례의 연속성은 세례대상자의 선발과정과 세례교육과 준비를 거쳐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통해 영성체로서 완전한 신자가 된다. 세례교육은 세례준비교육, 교리교육, 그리고 세례 후 교육으로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세례교육의 유형

세례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성서와 구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례에 대한 상황적응 학습은 기독교의 문화 형성과정과 여러 역사적 의미와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신앙공동체는 학습자를 다양한 문화와 기독교 교육의 문제를 상황의 가치기준으로 사고를 유도하고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²⁷⁾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22) 『사도전승』 제17장.

23) M. W. Merriman, *The Baptismal Mystery and the Catechumenate*, 39-40;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8에서 재인용.

24)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9.

25) Laurence Hull Stooke,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김은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188.

26)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114-115.

이론교육, 기도교육, 영적분별과 교회 생활교육 그리고 나눔 실천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론교육은 신학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례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세례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교육의 발전으로 이루어져 성서전체가 강의형태로 행하여졌다.²⁸⁾ 세례적임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했다. 이론교육방법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과 함께 성경교육을 중심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기도교육은 정화되고, 조명되며, 주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기도와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영성을 성장하게 한다.²⁹⁾ 세례후보자들은 기도회가 열리면 참가하여 안수를 받는다. 세례후보자들은 교육의 시기를 거쳐서 지식과 삶의 실천에 일치함을 검증받아야 했다.³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강조하셨다. 자신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었고 기도의 본보기적인 예문을 직접 제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도전승』에 세례후보자들이 복음과 윤리의 교육과 함께 기도교육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성령의 생활을 참되게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하여 교회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법과 질문에 직면하게 되면 성경적인 믿음에 의한 생활방식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³¹⁾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 영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을 배울 수 있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례교육기간 동안에 고독, 금식, 기도, 개인적 성경읽기, 예배, 그리고 희생적 봉사와 구제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영적분별과 교회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나눔 실천교육은 영향력, 권세, 지도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의미와 제자의 직면에서 도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³²⁾ 세례후보자들은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과 도덕적 생활규범 등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삶이 기독교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영적 분별교육과 함께 나눔 실천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3. 교회교육과정과 세례교육의 운영

27) 오인탁, 『기독교 교육사』, 287.

28)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3.

29) 이금만, “기도의 영성 형성에 관한 연구”『대학과 선교』19 (2010): 초록.

30)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153.

31) Stookey,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206-207.

32) Dallas Willard, 『영성훈련』,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8), 279.

교회교육은 목회자 양성과 강도사 훈련, 그리고 교회교육전문가 양성 등이 해당된다.³³⁾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삶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는데 있다.³⁴⁾ 현대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사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야 하며, 교육적 전략도 이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³⁵⁾ 따라서 교회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신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회교육과정과 경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교육경영은 기획과 조직과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위한 교회교육과정이 필요하다.

1) 교회교육과정 운영

교회교육과정에 의한 교회교육은 예배의식과 분반 학습 및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 그리고 정의적인 것과 운동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⁶⁾ 교회교육은 목회자와 교육자에게 이중적 책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회자와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이전에 학습자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실히 양육하며 친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방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는 교육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임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교육전도사 등을 두고 있다. 교회학교의 책임자는 당연직으로 규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³⁷⁾ 한국교회는 교회교육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평신도 교육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회교육의 유형은 어린이 교회학교, 청소년 교회학교, 성인 교회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어린이 교회학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어린이 신앙교육을 통해 바르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교회학교는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된다. 이 학교는 실적과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수업의 심각한 긴장감에서 벗어나 교회교육을 통하여 균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 교회학교는 청년 1부, 청년 2부, 청·장년부, 노년부로 구분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게 이해하게 하며,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통전적 시각에서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교회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자는 기독교 복음을 교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33) 정일웅,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1), 390.

34) 박종석, “삶과 사람을 위한 기독교 교육: 조각가 홍순모를 실마리로,” 『신학사상』 145 (2009): 297.

35) 장순애, “신앙의 대잇기에 초점을 두는 교회교육,” 『신학과 목회』 44 (2015): 217.

36) 한미라,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99.

37) 정일웅, 『교회교육학』, 399.

복음의 관점에서 가치와 관념을 파악하고 분별하여 가르쳐야 한다. 교육자는 가르치는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³⁸⁾ 교회교육자의 역할은 조력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와 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회학교 교육자는 학습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야 성서지식의 전달과 통찰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공동체는 각 교회적에서 교육자 양성을 위한 단기대학, 교육자세미나, 교육자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교육의 전제조건은 신학적인 학문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³⁹⁾ 한국교회는 설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에 임하고 있으며 믿음의 본질을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 교회교육과정의 운영사례

사랑의교회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새신교육인 새가족 모임, 주일학교, 대학청년부 교육, 성경.교리교육, 교육자교육,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례교육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1647년에 편찬된 소요리 문답,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세례문답 107문항을 중심으로 소속 교회 학교별로 공동으로 세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⁴⁰⁾ 유아세례는 18개월 이하의 유아, 부모 모두 새가족 모임의 5주 과정을 수료한 사랑의교회 등록교인 가정, 부모 중 한 분 이상 세례 받은 가정의 부모가 타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경우에 사랑의교회 등록 6개월 후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만 15세가 되면 입교예식과정을 거치게 된다.⁴¹⁾ 이 교회의 세례 문답은 회심과 거듭남, 용서, 칭의, 화목과 대속,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의 확신으로 6가지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⁴²⁾

온누리교회의 교회교육은 양육사역으로 이루어지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새가족, 일대일, Q.T 등 주요 양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온누리교회는 각 부서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체와 예배가치의 표현을 위하여 어린이 차세대 양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서빙고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한 번 세례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재교회에서는 세례 담당목사가 세례교육과 문답을 실시한다. 또한 서빙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제외한 전교역자가 세례교육과 문답에 참여하고 있다.

38) 정일웅, 『교회교육학』, 399.

39) 이은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세례와 세례교육,” 『기독교 교육논총』 36 (2013): 313.

40) http://info.sarang.org/newfam/study_baptism.asp (2017. 4.29).

41) http://info.sarang.org/newfam/study_baptism.asp (2017. 4.29).

42) 온누리교회 세례문답 교육자료 참고하여 작성.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교회는 목회예식서의 문답 내용을 근거하여 19문항으로 구성된 침례 문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도를 양육하여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와 교회대학, 대학청년국, 장년국, 노인대학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새신자 교육,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성경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례교육을 세례문답으로 진행하고 개인적으로 직접침례로 세례를 진행하기 있기 때문에 예식이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세례교육은 성경의 내용이 중심이 되며 문답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회 세례교육의 초대교회의 세례교육 유형에 관련된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 1>와 같다.

<표 1> 한국교회의 세례교육 유형에 따른 운영 현황

구분	이론교육		기도교육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		나눔 실천교육	
	세례교육	프로그램	세례교육	프로그램	세례교육	프로그램	세례교육	프로그램
사랑의교회	문답	새가족모임	-	중보기도학교	-	제자훈련	-	봉사자훈련
온누리교회	문답	새가족모임	-	기도소그룹	-	양육 프로그램	-	사회참여
여의도순복음교회	문답	새신자교육	-	중보기도훈련	-	오순절 사랑학교	-	GOOD PEOPLE

사랑의교회의 세례교육은 문답형식으로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세례의 이론교육은 새가족 모임에서 실시하고 있어 세례교육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기도교육은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어 영적성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제자 훈련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 나눔 실천교육은 봉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세례교육은 이론교육은 문답형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새가족 모임이 세례교육 이전에 운영되고 있다. 이론교육은 문답형식으로 운영되고, 기도교육은 기도 소그룹 모임으로 대체하였다.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양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훈련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 나눔 실천교육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례

교육의 이론교육이 문답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신자교육은 세례교육 이전 단계에 운영한 것으로 초대교회의 세례교육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교육은 문답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도교육은 중보기도 훈련으로 대체되었다. 영적분별과 교회 생활교육은 오사랑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눔 실천교육은 GOOD PEOPLE 등을 이용하여 사회의 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세례교육의 기독교 교육과정 접근

개신교 종교교육의 교육과정 이론가들은 교수학습이론이 교육과정의 요소로 수용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⁴³⁾ 세례예식은 세례자들과 회중들이 함께 준비하고 기대 속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공동체의 의식이다.⁴⁴⁾ 세례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 수업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교수학습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독교 교육과정을 융합한 수업설계의 요소들을 적합하게 반영하는 특수한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⁴⁵⁾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세례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을 기독교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교수학습의 방법

세례교육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책임 있는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세례후보자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교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세례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며 교수학습 방법은 이야기 방법, 질문 방법, 강의방법, 토론방법 그리고 극화 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이야기방법은 대화형식으로 이루지고 있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실화와 타인 이야기는 이야기의 출처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는 과장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⁴⁶⁾ 이야기방법은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상학습, 전체인식 학습, 그리고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질문방법은 미리 준비한 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 의지와 태도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다.⁴⁷⁾ 이 방법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

43) 이원일, 『해석학적 상상력과 기독교 교육과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88.

44) 김영근, “세례교육 교재 개발을 한 연구: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8), 79.

45) 이원일, 『해석학적 상상력과 기독교 교육과정』, 386.

46) 김용원,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9), 202.

47) 김경배,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6), 55.

도가 백 개 이상의 질문을 했던 것을 토대로 이루어 졌던 중세 기독교 교육의 학습방법이기도 하다. 질문방법은 학습자들이 중심 주제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도록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학습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강의방법은 기독교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으로서 교육자가 주도하는 학습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교육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대규모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효과적이다.⁴⁸⁾ 이 방법은 강의의 전 과정을 명료하게 진도를 맞춤으로써 강의운곽을 학습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자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하여 대중적 학습과 진도위주의 학습을 강의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넷째, 토론방법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효과가 있다.⁴⁹⁾ 이 방법은 잡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법은 다양한 가치적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 비평을 받은 여러 견해들 가운데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탐구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이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섯째, 극화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극화적인 설명은 사람의 자연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면 좋은 학습의 효과가 일어난다. 극화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유도한다. 극화방법은 학습자가 자아의식을 느끼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 역할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표현학습에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다.

2) 교수학습의 원리

학습과 교육과정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기독교 교육과정은 지식과 교육의 성격, 그리고 지식습득 과정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⁵⁰⁾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원리를 교육원리, 학습상호작용 원리, 학습경험 원리, 그

48) 김용원, 『기독교 교육학 개론』, 202.

49) 윤치영, 『토론의 기술』 (서울: 미래지식, 2009), 167.

50) Jerome S Bruner,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72.; Hilda Taba, *Curriculum Development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62), 172-174 ; 이원일, 『해석학적 상상력과 기독교 교육과정』, 385에서 재인용.

리고 학습동기부여 원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교육 원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자는 교과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없어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교회교육자가 학습자들의 신앙성장의 모습을 관찰하고 올바른 비판과 종합적인 실습교육의 가치를 설명하는 적합한 원리이다.

둘째, 학습경험 원리는 학습자들의 내적동기의 유발촉진과 생활문제 해결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된다.⁵¹⁾ 이 원리는 개인의 흥미와 개인차를 중시하므로 교육 과정은 학습자들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신적 경험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설된 공동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터전이 되며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학습적 경험은 학습현장에서 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원리이며, 성취의 긴장감과 새로운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게 한다.

셋째, 학습상호작용 원리는 교육자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교육자와 교환하고 교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학습자 상호 간의 인간관계는 학습자 중심의 협력학습, 토의학습, 토래학습 등 학습의 형태 변화도 가져온다. 상호관계의 형성은 학습경영의 적합한 과제로서 교육자상호, 학습자상호, 학습자와 교육자상호 간에 인간관계의 형성원리이다.

넷째, 학습동기부여 원리에서 학습자들은 목적이나 동기를 가질 때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자는 학습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욕구를 자극해 주어 학습자들이 목적달성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학습자들이 진정한 학습의 목적을 알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고, 활동을 통해 감지된 욕구에 의하여 학습에 관심이 높아져 행동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원리이다.

Ⅲ. 세례교육방안 적용분석과 모델 제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학교의 최고의 스승이며 참된 지도자이므로 교회의 사명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교회학교는 어린이 교회학교, 청소년 교회학교, 그리고 성인 교회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고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견신례 의식과 연결된다. 세례의 예전적 형식은 초대교회에서 성경적 심상의 풍부함이 정립되었지만 불투명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⁵²⁾ 이러한 상황을 근간으로 하여 현대교회의 세례교육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례교육의 유형별 분석과 기독교 교수학습방법에 대

51) 김영광, 『교육과정』 (서울: 영광교육선교센터, 2011), 211.

52) Stookey,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224-226.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세례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방법과 원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의 교회에서의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의 의미를 교회교육과 세례교육 간의 적합도를 설문도구를 통하여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실천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 중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30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세례교육 적용분석

세례는 통과예식으로 평생 잊혀 지지 않는 중요한 결단으로 세례후보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새신자교육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신자를 양육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온전히 건강한 예배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⁵³⁾ 따라서 세례교육은 체계를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이론을 근거로 직접경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세례교육은 직접적인 방법을 대신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내용에 대해 강조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원리와 교육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례교육을 문답식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운영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1)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교육의 분석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의 의미 간에서 이론교육은 성경적 의미가 가장 적합하며, 기도교육은 영성적 의미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신학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적합하며 나눔 실천교육은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세례의 의미와는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례교육의 유형과 교회교육 간에서 이론교육은 사랑의교회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교육을 문답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도교육은 사랑의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에서는 소그룹 기도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사랑의교회에서 제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는 양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나눔 실천교육은 사랑의교회는 봉사자 훈련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누리교회는 사회참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례교육 없이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신자교육, 중보기도훈련, GOOD PEOPLE 등을 사역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53) 김상구, 『세례로의 초대』 (서울: 대서 2009), 5-6.

2)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 간의 적합도 분석

중세 종교개혁이후 기독교 교육이 교리문답예식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세례교육도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례문답의 구성은 세례의 중요성, 세례의 시간성, 세례의 신학적 의미, 교회생활, 개인생활로 구분하였으며,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 간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례문답과 세례의 의미 간에서 세례문답의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세례의 의미의 신학적 의미와 적합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례의 중요성, 세례의 시간은 교회생활, 개인생활은 세례의 의미 간의 적합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례문답과 기독교 교육과정 간 세례의 중요성은 강의방법과 교육 원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세례의 시간성은 이야기방법과 극화방법과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상호작용 원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례문답의 교회생활은 이야기방법과 학습상호작용 원리가 적합한 방법이며, 세례의 개인생활은 이야기방법과 학습경험 원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례의 의미와 기독교 교육과정 간에서 성경적 의미는 강의방법과 교육 원리가 적합하며, 신학적 의미는 질문방법과 토론방법 그리고 학습상호작용 원리와 학습동기부여 원리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징적 의미는 이야기방법과 극화방법 그리고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 상호작용 원리가 적합하며 영성적 의미는 이야기방법과 학습동기부여 원리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회교육과 세례문답 간에서 어린이 교회학교의 영·유아부는 세례문답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부는 세례의 중요성과 시간성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교회학교의 중·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는 세례의 시간성과 개인생활의 적합도가 높았으며, 성인 교회학교의 청·장년부와 노인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교회생활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회교육 운영과 세례의 의미 간에서 어린이 교회학교의 영·유아부에게 세례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초등학생부는 상징적 의미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교회학교의 중·고등학생부와 대학부는 신학적 의미와 영성적 의미의 적합도가 매우 높았으며, 성인 교회학교의 청·장년부와 노인부는 기도생활과 교회의 경험에서 영성적 의미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회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 간에서 어린이 교회학교의 영·유아부는 이야기방법과 학습상호작용 원리가 적합하고 초등학생부는 이야기방법과 극화방법 그리고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상호작용 원리도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학교의 중·고등학생부와 대학부에게는 질문방법과 토론방법, 그리고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동기부여 원리가 적합하고 성인 교회학교의 청·장년부는 강의방법과 학습경험 원리, 그리고 노인부는 극화방법과 학습상호작용 원리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세례교육모델 제안과 적용방안

세례는 세례교육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교육내용과 형식이 주는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초대교회의 세례관은 교회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교육에 세례의 의미가 전달되는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초대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세례를 받게 하였다. 현대사회는 문화의 세기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세례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교회마다 특성에 맞도록 교회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회성장과 내실화를 기하여 있지만 세례교육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례교육의 모델과 입교세례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1) 세례교육모델 제안

세례신학은 개혁주의 전통과 적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교회의 성장하기 위한 공헌이 함축되어 있다. 개혁주의 전통은 단순히 인간으로 인간 실존의 모습들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계시의 수용자로 만든 것이다. 세례신학의 규범적인 규칙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한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들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례문답과 세례의 의미를 8주제로 구분하여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육학습의 방법과 원리 간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 세례교육모델은 <표2>와 같다.

<표 2> 세례교육모델

주제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원리
세례 문답	세례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방법 (대중학습, 진도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원리 (설명, 관찰, 실습)
	세례의 시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방법 (상상력, 전체인지, 상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경험 원리 (정신적 경험, 학습적 경험, 환경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의 시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죄인의 생활 - 현재: 그리스도의 영접 - 미래: 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화방법 (역할 모델, 표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상호작용 원리 (학습자 상호, 교사 상호, 학습자와 교사 상호)

	교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배와 성례 성도의 교제 전도 구원의 열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방법 (상상력, 전체인지, 상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상호작용 원리 (학습자 상호, 교사 상호, 학습자와 교사 상호)
	개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과 시련 순종 기도 하나님께 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방법 (상상력, 전체인지, 상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경험 원리 (정신적 경험, 학습적 경험, 환경적 경험)
세례의 의미	성경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약 세례(할레 등) 복음서 세례(요한과 예수의 세례 이해) 사도행전(성령) 세례 바울서신 세례(교회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방법 (대중학습, 진도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원리 (설명, 관찰, 실습)
	신학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과 연결(그리스도와 연합, 교회와의 연합, 인침) 성결(죄의 용서, 씻음, 성별) 거듭남(공동체, 중생, 성령사건) 약속(단절, 조명, 복음증거, 천국 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방법 (적극적 학습, 논리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동기부여원리 (욕구, 동기부여,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방법 (탐구학습, 문제해결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상호작용 원리 (학습자 상호, 교사 상호, 학습자와 교사 상호)
	상징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결(마귀추방, 도유, 안수) 존재(물의 성별, 삼의의 이름, 호명) 새로움(옷 벗음, 흰옷, 발 씻음) 부활(물에 잠기고 일어섬, 부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방법 (상상력, 전체인지, 상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경험 원리 (정신적 경험, 학습적 경험, 환경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화방법 (역할 모델, 표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상호작용 원리 (학습자 상호, 교사 상호, 학습자와 교사 상호) 	
영성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성 정체성 회복 (영성정체성 인식, 구원의 신비 인식) 영성관계 형성 (영적 회상, 평등관계 형성) 영성성장(하나님의 나라확장, 기도와 영성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방법 (상상력, 전체인지, 상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동기부여 원리 (욕구, 동기부여, 행동 변화) 	

강의방법은 지도내용이나 지도방법에 의하여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세례문답의 세례의 중요성과 세례의 성경적 의미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야기방법은 교사와 학습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자신의 깊은 느낌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있다. 따라서 세례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여 이야기 방법은 세례문답의 세례의 시간성, 교회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세례의 상징적 의미, 영성적 의미에 적합한 방법이다. 질문방법은 세례의 신학적 의미에 적합한 방법이다. 토론방법은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사고와 의견의 교환과 문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비하여 진술을 개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 자신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구성원이 되어 토론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세례의 신학적 의미의 교육에 적합한 방법이다. 극화방법은 등장인물과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할모델과 표현학습에 적절한 세례문답의 시간성과 세례의 상징적 의미에 적합한 방법이다.

교수학습의 원리에서 교육 원리는 효과적인 학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명과 관찰, 그리고 실습이 가능하며 강의방법이 적절한 세례문답의 세례의 중요성과 세례의 성경적 의미에 적합하다. 학습경험 원리는 학습자들이 가치 발휘와 기술발전의 유지가 가능하고 이야기방법이 적절한 세례문답의 세례의 시간성, 개인생활과 세례의 상징적 의미, 영성적 의미가 적합하다. 학습상호작용 원리는 학습자들이 좋은 관계형성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방법과 극화방법이 적합하며 세례문답의 시간성, 교회생활과 세례의 신학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적합하다. 학습동기부여 원리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지식의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야기방법과 토론방법이 적절하며 세례의 신학적 의미, 영성적 의미에 적합하다.

유아세례를 받은 세례입교교육의 대상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회교육의 청소년교육에 적용할 세례입교교육은 세례문답의 세례의 시간성, 개인생활과 세례의 신학적 의미, 영성적 의미가 적합하고 질문방법과 토론방법이 중심이 되는 학습자 위주의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교육학습의 방법은 적극적 학습과 논리적 학습이 가능하고 탐구학습, 문제해결 학습이 적절한 이야기방법을 가미하여 효과적인 세례입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선정과 조직해야 한다. 세례입교교육은 정신적 경험, 학습적 경험, 환경적 경험을 유발하는 학습경험의 원리와 동기부여를 통한 행동변화를 요구하는 학습동기부여 원리를 충분히 발휘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원리가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례교육 적용방안 제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한다. 세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답례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식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세례의 이론교육은 성경적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세례문답과 QT 교육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례의 기도교육은 영성적 의미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교회교육의 기도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례의 영적분별과 교회생활교육은 신학적 의미, 영성적 의미가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제자훈련, 양육프로그램, 영적전투훈련, 공동체교육모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례의 나눔 실천교육은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 상징적 의미, 영성적 의미가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구제 사업을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세례교육 적용방안

교회교육은 학습자의 학습경험이 학습목표에 의해서 제시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필요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실행가능성 안에서 접근하여야 한다.⁵⁴⁾ 현대교회의 세례교육은 세례예식과 세례입교예식이 있을 때에 실시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례교육모델에서 얻어진 세례교육 적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례교육은 세례문답의 교육에서 세례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례문답 교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도입부, 전개부, 결론부로 구분한 교수학습 단계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둘째, 세례문답의 중요성과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 대중적, 역사적, 문화적 사상이 함축되어 있고 세례교육의 기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육 원리를 반영한 강의방법을 도입부에 반영한다.

셋째, 세례문답의 세례의 시간성, 교회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세례의 상징적 의미, 영성적 의미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생동적 묘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세례의 상징을 나타내는 행위나 물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적합하여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방법으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넷째,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결, 그리고 거듭남과 약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연합되는 의미가 있어 적극적이고 논리적 전개를 위해 학습동기부여 원리를 적용한 질문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그리고 거듭남과 약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탐구적이며 문제해결 학습이 필요한 영역은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토론방법이 적합하며 전개부에 반영한다.

다섯째, 세례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한 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례문답의 시간성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로 이어지므로 성극, 뮤지컬, 연극 등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학습상호작용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을 결론부에 반영한다.

(2) 교회학교에서의 세례교육 적용방안

세례교육모델을 중심으로 얻어진 교회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례교육 적용방안을

54) 이원일, 『해석학적 상상력과 기독교 교육과정』, 388.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부에서는 세례교육을 위하여 교육자와 학습자의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방법을 활용한다. 초등학생부에서는 세례문답의 세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경험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방법을 전개부에 배치하고, 세례문답의 시간성과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을 교회교육의 결론부에 반영한다.

둘째, 청소년 교회학교의 중·고등학생부와 대학부에서는 세례문답의 개인생활과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학습동기부여 원리를 적용한 질문방법을 전개부에 반영하고, 세례문답의 시간성과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경험 원리를 적용한 토론방식을 전개부에 반영한다.

셋째, 성인 교회학교 장년부와 노인부에서는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이 적합하므로 결론부에 반영하고, 장년부의 교회생활은 학습경험 원리를 적용한 강의방법이 적합하므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IV. 나가는 글

한국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수료한 세례 대상자와 유아세례를 받은 세례입교교육 대상자 그리고 교회교육에 적용한 세례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는 새신자가 감소하고 있고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세례예식과 세례교육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례의 예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유아세례는 정체성이 부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세례입교교육과 연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례교육의 지속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의 세례교육은 형식화되고 세례교육 없이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세례의 신비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례교육이 양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례교육, 세례, 성찬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례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세례교육이 성경과 교리교육을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범위 축소와 제한적인 운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례교육의 문답형식을 넘어서 교회 실정에 맞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문화의 영향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어 세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하며, 세

례교육방법 적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토론방법과 질문방법에 익숙한 전문 교육자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세례교육의 극화방법은 디자인, 사니리오 등이 요구되므로 교회기구나 외부 기관의 전문시설과 인력을 요구하므로 교회교육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수학습의 방법의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회에서 세례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흥미위주로 구성되거나 기획자의 의도가 너무 강하여 세례교육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 프로그램의 검증과정이 필요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교회와 함께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의 세례교육은 형식화되고 세례교육 없이 문답형식으로 단순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영위하도록 세례교육, 세례예식, 성찬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배.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6.
- 김경애. 『어떻게 연극은 학습인가?』. 서울: 학이시습, 2013.
- 김상구. “초기 기독교 예배 형태에 관한 소고.” 『복음과 실천신학』봄호 (2007): 17-57.
- _____. 『세례로의 초대』. 서울: 대서 2009.
- _____.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대서 2017.
-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검춘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김규섭. “기독교 교육과 영성.” 『국제신학』14 (2012): 7-20.
- 김영광. 『교육과정』. 서울: 영광교육선교센터, 2011.
- 김용원.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9.
- 김영곤. “세례교육 교재 개발을 한 연구: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8.
- 노학용. “예배문헌에 나타난 유아세례 고찰과 예전 모델제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와 경남지역 8개 노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1.
- 박기성. “한국감리교회 세례 프락시스의 갱신원리와 교육·예식에 대한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6.
- 박종석. “삶과 사람을 위한 기독교 교육: 조각가 홍순모를 실마리로.” 『신학사상』145 (2009): 297-322
- 성종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7.
- 송창현. “한국장로교회 세례교육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

- 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0), 54.
- 윤치영. 『토론의 기술』. 서울: 미래지식, 2009.
- 이금란. “기도의 영성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19 (2010): 149-173.
- 이은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세례와 세례교육.” 『기독교 교육논총』 36 (2013): 293-217.
- 이원일. 『해석학적 상상력과 기독교 교육과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88.
-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서울: 세움박스, 2016), 70.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3.
- 조기연. 『기독교 세례예식』. 서울: 대한기독교문서회, 2012.
- 최덕수. “한국교회의 세례예비자 교육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 최정일. “한국장로교회 문헌과 예식서의 통시적 고찰에 따른 세례신학과 세례예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4.
- 한미라. 『개신교 교회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Dallas Willard. 『영성훈련』.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8.
- Eavey. C. B. 『기독교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_____. 『기독교 교육원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Harper E. Normann·Making Disciples.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기독교 교육』.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 Murray John. 『기독교 세례론』. 이길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Saliers Don E. 『예배와 영성』. 이필은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2).
- Stooke Laurence Hull.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 김은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 Riggs W. John . 『개혁주의 세례신학』. 김상구. 김태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개론』. 김상구 · 배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Bruner Jerome S.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Gee P. J.: L. J. Green, *Discourse Analysis, Learning, and Social Practice: A Methodological Study*, In Apple. W. M.(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19-120). Washington D.C.: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98.
- Kavanagh Aidan. *The Shape of Baptism: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 Taba Hilda. *Curriculum Development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62.
- Merriman Michael W. *The Baptismal Mystery and the Catechumenate*. New York: The Church Hymnal Cooperation, 1990.
-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1990.
- http://info.sarang.org/newfam/study_baptism.asp (2017. 4.29).

[논평1]

남상문 박사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함용철 (화곡교회)

I. 논문의 배경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교회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받아주는 입문의 표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입교를 위한 중요한 예식이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으로 교회공동체의 소명이기 때문에 교회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유아세례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는 설교중심의 예배로 정착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는 세례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세례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여 세례준비과정을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례자들에게 세례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미미했기에 생긴 결과라고 진단한다.

II. 내용 요약

세례의 의미와 세례교육이 미미하다고 진단한 후 자신의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한다. 『디다케』로부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문헌들에 나타난 세례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중세와 종교개혁시대 츠빙글리, 루터, 부처, 칼빈에 이어 학습자들이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문답식의 교리교육서를 설명한다. 그리고 세례교육이 미미하지만 한국교회의 각 교단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의 세례교육의 시행상황을 개론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연구자는 세례교육에 대하여 세례예비과정의 단계와 세례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세례교육의 예비과정 단계로는 복음화 단계, 교리교육단계, 입교식 단계로 분리한다. 세례교육의 유형은 초대교회를 예로 제시하면서 이론교육,

기도교육, 영적분별과 교회 생활교육 그리고 나눔실천교육으로 구분한다.

교회교육과정과 세례교육의 운영 부분에서는 교회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신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회교육과정과 경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교회교육경영은 기획과 조직과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후 교회교육과정의 운영사례로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순복음 교회’의 교회교육과정과 세례교육을 유형-이론교육, 기도교육, 영적분별과 교회 생활교육 그리고 나눔실천교육-별로 분석한다.

연구자는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세례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을 기독교 교수학습방법과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먼저,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이야기 방법, 질문방법, 강의방법, 토론방법, 극화방법으로 구분한다. 교수학습의 원리로는 교육원리, 학습상호작용원리, 학습경험원리, 학습동기부여원리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세례교육방안 적용분석과 모델 제안”을 한다. 먼저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교육의 분석에서는 이론교육은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교회가 세례교육을 문답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도교육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에서는 소그룹 기도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영적분별력과 교회생활교육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는 양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눔실천 교육은 사랑의 교회는 봉사자 훈련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누리교회는 사회참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례교육없이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신자교육, 중보기도훈련, GOOD PEOPLE 등을 사역의 일환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었다.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 간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데는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세례교육모델 제안과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세례교육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세례문답과 의미를 8주제로 구분하여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육학습의 방법과 원리간의 적합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다. 제시한 세례교육모델은 <표2>와 같다.

현대교회 세례교육은 세례예식과 입교예식이 있을 때에 실시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례교육모델에서 얻어진 세례교육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례교육은 세례문답의 교육에서 세례의 의미를 확대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례문답 교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도입부, 전개부, 결론부로 구분한 교수학습 단계에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둘째, 세례문답의 중요성과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 대중적, 역

사적, 문화적 사상이 함축되어 있고 세례교육의 기초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육원리를 반영한 강의방법을 도입부에 반영한다. 셋째, 세례문답의 세례의 시간성, 교회생활, 개인생활, 그리고 세례의 상징적 의미, 영성적 의미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생동적 묘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세례의 상징을 나타내는 행위나 물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적합하여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방법으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넷째,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결, 그리고 거듭남과 약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 적극적이고 논리적 전개를 위해 학습동기부여 원리를 적용한 질문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다섯째, 세례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한 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례문답의 시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로 이어지므로 성극, 뮤지컬, 연극 등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학습상호작용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을 결론에 반영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세례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얻어진 교회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례교육 적용방안은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영·유아부에서는 세례교육을 위하여 교육자와 학습자의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작용한 이야기 방법을 활용한다. 초등학생부에서는 세례문답의 세례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경험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 방법을 전개부에 배치하고, 세례문답의 시간성과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을 교회교육의 결론부에 반영한다. 둘째, 청소년 교회학교의 중·고등학생부와 대학부에서는 세례문답의 개인생활과 세례의 신학적 의미는 학습동기부여 원리를 적용한 질문방법을 전개부에 반영하고, 세례문답의 시간성과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경험원리를 적용한 토론방식을 전개부에 반영한다. 셋째, 성인 교회학교 장년부와 노인부에서는 세례의 영성적 의미는 학습경험 원리와 학습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한 극화방법이 적합하므로 결론부에 반영하고 장년부의 교회생활은 학습경험 원리를 적용한 강의방법이 적합하므로 전개부에 반영한다.

연구자는 새신자 교육을 수료한 세례대상자와 유아세례를 받은 세례입교교육 대상자 그리고 교회교육에 적용한 세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연구자가 세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의 방향은 세례의 예전성 회복, 특히 유아세례는 정체성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례입교교육과 연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례교육의 지속화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례의 연속성 보장, 기독교과정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 도입, 세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회교육의 중요성 재인식 등을 제시하며, 한국교회의 세례교육은 형식화되고 세례 교육없이 문답형식으로 단순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영위되도록 세례교육, 세례예식, 성찬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논문을 마친다.

II. 논문의 평가

본 논문은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에도 3년 정도의 세례후보자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교육이 매우 심도 있게 운영되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례교육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고 세례준비 과정을 학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도들의 마음은 종말론적 접근이 어려워 세례의 진정성을 잃게 되어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 모델을 제안할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세례를 주는 목회자나 세례를 받는 수세자나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나 예배와 세례예식에 참여하는 회중들 모두 다 세례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례가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나아가 세례를 개교회의 세례교인과 공동의회 회원을 확보하거나 교회활동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조차 생기고 있는 이때에 세례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세례교육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은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의적절하고, 세례교육을 기독교교육과정을 접목한 세례교육 방안 제시는 독창적이며 탁월하다고 평가한다.

본 논문은 세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성찰하게 하는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하며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연구자에게 질문을 한다.

첫째, 연구자는 세례교육의 약화가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세례교육의 약화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였다. 그때는 세례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성장했는지?

둘째, 연구자가 제시한 세례교육모델 제안은 소위 중대형 교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소형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례교육에 대해 형식화 되어가 세례의 진정성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본 논문을 통해서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남상문 박사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귀중한 논문이 될 것을 소망하며 논평을 마친다.

남상문 박사의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김진목 (큰사랑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현실은 세례에 있어서 목회자나 수세자 그리고 세례예식에 참여하는 회중 모두 세례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몰이해와 세례교육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례 전 준비과정의 필수요건인 ‘학습’과정마저도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작금에 남상문 박사의 본 연구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례의 의미를 토대로 하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적용한 세례교육의 모델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시기적절하다고 본다.

제1장 들어가는 글에서 연구자는 세례교육의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3년 정도로 충분한 세례후보자의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종교개혁시대에 들어오면서 세례교육도 문답방법으로 전환되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현대교회에 와서도 세례교육이 형식화가 가속되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세례를 부여하는 현실을 연구자는 지적하면서 현대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세례교육에서 찾고 있다.

제2장 세례교육과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면서 제1항에 연구자는 시대적으로 세례교육의 발전을 알아보기 위해 초대교회의 세례문헌 중 『디다케』로부터 키릴로스의 『신비교리』,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세례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중세 종교개혁시대의 쾰링거, 루터 그리고 부처와 칼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 소개하면서 나아가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공동예배서』와 한국 각 교단의 세례교육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항에 연구자는 이것을 토대로 세례교육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세례예비과정의 단계와 세례교육의 유형을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먼저 세례교육의 예비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새로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심자를 도와주며, 그리스도인으로써 삶을 살도록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세례교육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 성서의 기원, 해석 방법, 그리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례교육의 유형으로는 성서와 구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례에 대한 상황적

응학습은 기독교의 문화 형성과정과 여러 역사적 의미와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인 이론교육, 기도교육, 영적 분별과 교회 생활교육 그리고 나눔 실천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에 걸쳐 연구자는 교회교육과정과 세례교육의 운영을 논하면서 예배의식과 분반학습, 특별활동 등으로 편성된 교회교육과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교육 유형에 따른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세례예식을 세례자들과 회중들이 함께 준비하고 기대 속에 참여하는 교회공동체의 의식으로 봄으로써 세례교육도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 수업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기독교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 연구자는 세례교육방안 적용 분석과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세례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교수학습의 방법과 원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대교회에서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의 의미를 교회교육과 세례교육 간의 적합도를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을 통해 세례교육모델과 교회학교에서의 세례교육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세례의 예전성을 회복과 세례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세례교육의 문답형식을 뛰어 넘어선 교회 실정에 맞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나아가 세례교육방법을 적용한 토론과 질문방법에 익숙한 전문 교육자의 양성과 효과적인 세례교육을 위한 극화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한 시점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세례교육, 세례예식, 그리고 성찬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논평자는 본 연구의 공헌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인 세례교육의 부재와 형식화의 현실인식을 통해 올바른 세례교육의 이해와 적용부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본다. 세례를 주는 목회자나 세례를 받는 수세자나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들조차도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세례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교회 세례교육에서 세례의 의미를 토대로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적용한 세례교육의 모델과 세례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었다. 세례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요리문답 활용방안이나 세례과정과 절차에 따른 구조와 목회적 적용점을 둔 것이라면, 본 연구는

교수학습방법과 교육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세례교육에 대한 모델과 제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셋째, 한국교회 일부 대형교회에서 시행되는 세례교육의 운영사례를 보고해 줌으로서, 한국교회 세례교육의 운영의 한 단면을 이해하게 해 주었다.

넷째, 본 연구는 세례교육방안 적용분석과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의 방법과 원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세례교육의 유형과 세례의 의미를 교회교육과 세례교육 간의 적합도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실천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 중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기술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목회현장에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는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물론 세례교육과 그 준비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터? 왜? 세례교육이 축소되고 약화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교회 상황적 현상을 언급해 주었다면 좋았으리라 본다.

둘째, 연구자는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3년간의 세례교육을 준수하면서 성경전반과 신앙인의 실제적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적 교육이었다고 밝히면서, 세례교육의 약화는 종교개혁가들의 교리교육 강화와 함께 세례신학에 대한 입장의 차이, 그리고 문답서들의 발간과 정착에 두었다고 하였다. 교리교육과 문답서 활용이 오늘의 세례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린다.

셋째, II. 1. 3)현대교육의 세례교육 부분에서 한국교회 주요교단의 세례교육을 다루었는데, 주로 세례 받을 기준 혹은 자격에 논해 논하고 있다. 이는 세례교육과 별개의 것이라 본다. 세례 받을 자격과 세례교육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각 교단의 헌법을 인용하여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옳다고 본다.

넷째, 세례교육의 관리 운영 부분에서 세례예비자교육과 교육유형을 다루었는데,

주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현대 세례교육의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평, 혹은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함인지 연구자의 입장이 궁금하다.

다섯째, 세례교육의 운영사례로 주로 대형교회를 다루었다. 이들 세례교육 교재(문답)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여섯째, 본 연구의 가치는 세례교육의 모델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였다는데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은 연구자가 이 모델을 목회현장에서 시연해 보고 피드백을 제시하였다면 보다 더 목회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겠다는 점이다.

일곱째, 본 연구의 세례교육 모델(안) 교재로 구현하고자 할 때, 교회의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언급하였다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진다.

여덟째, 본 연구의 세례교육의 모델을 목회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목회자와 수제자 간의 깊은 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지침서를 제시하였다면 좋겠다.

본 연구가 현재 한국교회에서 세례교육의 부재와 점점 형식화 되고 약화되는 시점에서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 방안 연구를 통해 세례교육을 강화하는데 좋은 모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연구자가 보다 더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된 후속 논문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논평3]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한 세례교육방안 연구”에 대한 논평

강일구 (선한목자교회)

1. 들어가는 말

기독교의 초기 선교와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있어서,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이는 기독교의 선교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지탄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주요 종교들 가운데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여정으로서 첫 과정인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본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육과정은 대략 3년의 기간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례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다는 남상문 교수의 지적은 적확하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의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에 감사드린다.

2. 논문의 요지

본 논문은 교회쇠퇴의 한 원인을 ‘세례교육의 형식화’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기독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원리’를 적용한 ‘세례교육의 모델과 세례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세례교육의 역사적 발전’을 초대, 종교개혁, 현대의 순으로 고찰하고, ‘세례교육의 관리 운영’에서는 초대교회의 세례예비과정과 세례교육의 유형을 네 가지(이론, 기도, 영적분별과 교회생활, 나눔 실천)로 제시한다. 그리고 오늘날 실시하는 ‘교회교육과정과 세례교육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끝으로 ‘세례교육의 기독교 교육과정 접근’을 통해 세례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교수학습원리를 제시한다.

셋째 장의 “세례교육방안 적용분석과 모델제안”에서는 둘째 장에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례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다(<표2> 참고).

나가는 글에서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세례교육과 세례의 예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교회기구, 외부기관, 교회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3. 논문의 공헌과 아쉬운 점

우선 논문의 공헌에 있어서 첫째는,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례는 일반사회에서의 단체의 입회와 같은 하나의 형식적 절차처럼 여기지고 있어서, 그 의미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상문 박사가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례교육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한국 개신교회는 '세례교육 없이' 문답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세례의 전 과정은 - 논평의 '들어가는 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문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공헌점이 있다.

둘째, 이 논문은 논문의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세례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효과가 없거나, 혹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회의 교육현장에서는 - 특히 세례교육에 있어서 - 자칫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또는 교육방법이 되기 쉽다(교회의 규모에 따라서도). 그러나 남상문 박사는 세례교육을 연령대에 알맞게 제안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적합한 교육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 개신교회의 세례교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크다.

셋째, 세례교육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세례교육과 비교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논문의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용어의 문제다. 유아세례 이후의 과정을 동일하게 세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들어가는 글의 둘째 문단, II장 1항의 3)번 둘째문단 등). 세례와 견신례(혹은 입교)의 혼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III장의 머리말과 '나가는 글'의 첫 문단에서도). 이 외에도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다음은 II장의 "1. 세례교육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제목에 대한 것이다. 초대교회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세례교육을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위의 공헌점 세 번째에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세례교육의 '퇴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초대 교회의 세례문헌과 세례교육'의 시점을 어거스틴까지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과정에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등으로 인한 세례교육의 커다란 퇴보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울러 종교개혁시대의 세례교육에 대해서 '축소', '중요성 인식 못하게', '간소화' 등의 부정적 표현이 많은데, 이는 어거스틴 이후 크리스텐덤의 등장으로 인한 세례교육과정의 부정적인 변질을 살펴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루터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종교개혁 전까지 중세는 흑사병

1) '들어가는 글'의 첫째 문단에서 세례의 물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표 1>은 초대교회의 세례교육과 현재 한국교회 세례교육을 비교한 운영 현황이란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

으로 인한 사제부족으로 인해, 또 성직매매로 인해 무자격자의 성직임명이 만연해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제들은 무지하고 게을렀다. 루터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1529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 교리문답서로 알려진 소교리문답서와 대교리문답서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서들은 당시 유아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기본 교리교육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세례, 견신례, 입교 표준 교재로 사용되게 된다. 또한 이 형태가 장로교와 가톨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문답서들은 세례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논문에 대한 질의

1) 논문에서 제안한 “세례교육모델”이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교재로 만들 계획은 있는가?

2) 본 논문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세를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하고 윤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과 태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서론에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를 설득하여 기독교 가르침이 참이라고 믿게 하는 과정”(Ⅱ장 1. 1)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례예식에서 공통적 사항은 필수적인 행위인 단절을 통해서 표현되는 윤리적인 변화, 삼위일체를 확증함으로써 표현되는 신앙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Ⅱ장 1. 3). 실제로 초대교회에서의 세례의 전 과정에 대해서 남상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 대상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세례 전까지 매일 성경공부와 기도훈련을 하였으며 영혼을 깨끗이 하는 정확의 의식과 영적분별교육을 받았다. 세례는 악마의 유혹을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눔 실천교육까지 시키는 전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설명과 일맥하듯 고든 스미스는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원제:Beginning well)에서 훌륭한 회심의 7가지 요소를 ‘믿음_지적 요소’, ‘회개_참회의 요소’,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_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결단, 충성, 헌신_의지적 요소’, ‘물세례_성례적 요소’, ‘성령을 선물로 받음_은사적 요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_공동체적 요소’라고 말한다. 알렌 크라이더 역시 “회심의 변질”에서 초대교회에서의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인 ‘신념’(Belief), ‘행동’(Behavior), ‘소속’(Belonging)을 말한다. 신념은 ‘지적인 요소’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말한다. 행동은 회심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방식이 매력적이었음을 말한다. 3세기 초, 카르타고의 이교도 캐실리우스(Caecilius)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증언을 한 대표적 인물인데, 그에게 답변한 옥타비우스(Octavius)는 “삶의 아름다움이…낯선 사람들을 그 모임에 가담

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 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초기 수도원 운동의 원동력이 된 파코미우스 역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세례예비과정’과 ‘세례예식’을 통해 입교자들은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경험했다.

이런 세례의 의미와 내용을 고려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례교육모델은 적실성이 있는가?

5. 논평을 마치며

이러한 논문을 통하여 세례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성서적 세례의 의미와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기대한다.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신 남상문 박사님께 감사를 표한다.